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 12. 24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책임자 신 명 호
공동연구자 한 귀 영 (한국산업사회학회)
김 유 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 진 숙 (한국도시연구소)
이 호 (한국도시연구소)
홍 인 옥 (한국도시연구소)

<제목 차례>

제Ⅰ장 서 론 ·····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부랑인의 정의 및 현황 ····· 7
1. 부랑인의 정의 ····· 7
2. 부랑인의 현황 ····· 10
3. 부랑인 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 13
1) 부랑의 발생원인 ····· 13
2) 부랑인의 심리적 특성 ····· 14
4. 부랑생활의 동기와 위기 대처 능력 ····· 16

제3장 부랑인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 19
1. IMF 사태 이전의 노숙자 정책 :
70년대~80년대의 부랑인 정책 ····· 19
2. IMF 사태 이후의 노숙자 정책 ····· 21
1) 민관 협력이 이루어진 시기 ····· 21
2) 서울시로 주도권이 넘어간 시기 ····· 22
3) 노숙자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시기 ····· 23
3. 노숙자 정책의 주요 실태 및 평가 ····· 24
1) 주요 노숙자 정책 ····· 24
2) 부랑인 시설 수용자에 대한 정책 ····· 28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의 생애와 생활실태 ····· 39
1.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의 생애사 ····· 39
1) 설문분석 결과 ····· 39
2) 심층분석 결과 ····· 74
2.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의 생활실태 ····· 125
1) 현재의 생활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 125
2) 시설에 대한 평가 ····· 131

제5장 결론 및 제언 ····· 134
1. 부랑의 발생 원인과 유형 ····· 134
2. 조사 결과의 요약 ····· 135
1) 양육 과정상의 어머니에 대한 높은 의존도 ····· 135
2) 성장기의 가정해체와 이후의 위기 대처 능력 ····· 136
3) 직업능력과 삶의 안정성 ····· 136
4) 성 역할과 부부관계의 해체 ····· 137
5)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삶의 불안정성 ····· 137
6) 사회적 관계의 단절 ····· 138
7) 부랑인복지시설 안에서의 인권 문제 ····· 138
3. 제언 ····· 140
1) 현행 부랑인 보호제도의 개선책 ····· 140
2) 예방 차원의 대책 ····· 142
4. 본 연구의 한계와 과제 ····· 145

참고문헌 ····· 147
설문조사지 ····· 149

<표 차례>

<표 1> 설문조사 실시 결과 ····· 4
<표 2 > 노숙자와 부랑인의 개념 ····· 9
<표 3>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연령별 현황 (2002년 6월말 현재) ····· 11
<표 4>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상태별 현황 (2002년 6월말 현재) ····· 12
<표 5> 노숙자 진료비(의료구호비) 현황 ····· 26
<표 6> 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 30
<표 7> 부랑인 시설 규모별 현황 ····· 31
<표 8> 부랑인 시설의 설립연도별 분포 현황 ····· 32
<표 9> 전문시설별 관리인원 현황 ····· 33
<표 10> 시설별(성인) 예산지원 비교표 ····· 33
<표 11> 조사대상자의 성격 (n=151) ····· 39
<표 12> 부의 직업 ····· 41
<표 13> 모의 직업 ····· 42
<표 14> 부의 직업×성장기 가정형편 ····· 43
<표 15> 10대까지 주 양육자 ····· 44
<표 16> 20세 이전 부모 사망시 주 양육자 ····· 45
<표 17> 주 양육자와의 교류 여부 ····· 45
<표 18> 20세 이전 주 양육자 × 주 양육자와의 교류 여부 ····· 46
<표 19> 성장기에 명절을 누구와 보냈는가 ····· 47
<표 20> 20세 이전 주 양육자×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 ····· 48
<표 21> 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 ····· 49
<표 22> 성별×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 ····· 50
<표 23>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 ····· 51
<표 24>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 ····· 51
<표 25>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성장기 관심과 보호 ····· 52
<표 26> 20세 이전 주양육자 × 성장기 관심과 보호 ····· 53
<표 27> 경험의 중복정도 ····· 54
<표 28> 성장기 가정형편×성장기 장래희망 ····· 55

<표 29> 교육년수×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 ····· 56
<표 30> 결혼 또는 동거 경험 유무 ····· 57
<표 31> 배우자 수 ····· 57
<표 32> 성별×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기 ····· 58
<표 33> 성별×결혼생활의 행복 정도 ····· 59
<표 34> 성별×결혼(동거)생활이 중단된 이유 ····· 60
<표 35>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결혼생활이 중단된 이유 ····· 60
<표 36> 성별×배우자와 살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 61
<표 37> 성별×결혼생활의 행복 정도 ····· 62
<표 38> 결혼기간×결혼생활 행복 정도 ····· 62
<표 39> 결혼하지 않은 이유 ····· 63
<표 40> 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 ····· 63
<표 41>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 ····· 64
<표 42> 성별×20살 이전 주요 직업 ····· 65
<표 43> 성별×20세 이후 주요 직업 ····· 66
<표 44>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성별 ····· 69
<표 45>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 ····· 70
<표 46> 시설 입소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 ×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 ····· 71
<표 47> 결혼기간×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 ····· 71
<표 48> 정착 여부 ····· 72
<표 49> 정신적 건강상태×성별 ····· 127
<표 50> 만성질환 유무 ····· 128
<표 51> 장애유형 ····· 128
<표 52>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 ····· 128
<표 53> 지속적인 치료 경험 여부 ····· 129
<표 54> 가족이나 친지와의 연락 여부 ····· 130
<표 55> 함께 살고 싶은지 여부 ····· 130
<표 56> 퇴소할 계획 ····· 130
<표 57> 시설에 대한 구체적 평가 ····· 133

<그림 차례>

<그림 1> 서울시 노숙자 대책의 기본 구상 ····· 23
<그림 2> 부랑인시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모형 ····· 38
<그림 3> 모의 사망 시기 ····· 41
<그림 4> 성장기 가정형편 ····· 42
<그림 5>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 ····· 47
<그림 6>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 여부 ····· 54
<그림 7> 성장기 장래희망 ····· 55
<그림 8> 성장기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 ····· 56
<그림 9>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 ····· 59
<그림 10> 시설에 들어오기 전 근로 정도 ····· 67
<그림 11> 지나온 생애에 대한 평가 ····· 68
<그림 12> 현재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 ····· 69
<그림 20> 생활력의 특징 비교 모형 ····· 77
<그림 21> 심현복씨 사례 ····· 78
<그림 22> 송봉환씨 사례 ····· 80
<그림 23> 문국주씨 사례 ····· 82
<그림 24> 홍기훈씨 사례 ····· 84
<그림 25> 염종호씨 사례 ····· 85
<그림 26> 구백민씨 사례 ····· 87
<그림 27> 오경훈씨 사례 ····· 89
<그림 29> 천성휘씨 사례 ····· 93
<그림 30> 고영국씨 사례 ····· 94
<그림 31> 설기범씨 사례 ····· 96
<그림 33> 남종근씨 사례 ····· 99
<그림 34> 주명신씨 사례 ····· 101
<그림 35> 김선길씨 사례 ····· 103
<그림 36> 배종만씨 사례 ····· 104
<그림 37> 길옥윤씨 사례 ····· 106

<그림 38> 김영진씨 사례 ····· 108
<그림 39> 김원봉씨 사례 ····· 110
<그림 40> 이주종씨 사례 ····· 112
<그림 41> 전수권씨 사례 ····· 113
<그림 36> 육체적 건강 정도 ····· 126
<그림 37> 정신적 건강 정도 ····· 126
<그림 38> 반길 가족이 있는지 여부 ····· 129
<그림 39> 입소경위 ····· 131
<그림 40> 현재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 132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현재 전국에는 부랑인복지시설로 인가 받은 37개의 기관에서 10,000여명의 사람이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미인가시설 입소자까지를 합하면 그 수는 1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흔히 부랑인이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뜻하므로 부랑인 통계에는 응당 거리 생활자가 포함돼야 하겠지만, 이 대목에 이르면 노숙자와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진다. 노숙자와 부랑인을 각각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있어왔다. 논란의 여지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부랑인'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 이 말의 용례에는 사회관습이 부여한 차별적 요소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인권의 증진이라는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조차, 굳이 '부랑인'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낱말이 현재까지 정부 제도의 공식 용어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정부가 인가한 '부랑인복지시설' 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랑인'에 관한 과거의 정부 정책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므로 자연히, 부랑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원인에는 무관심한 편이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치유해야할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보이지 않게' 격리해야 할 이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노숙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거리로 내몬 위기적 상황 속에는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해야할 타당한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의 처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구조가 쳐놓은 운명의 덫에 걸린 희생자라고 보는 편이 옳다는 시각이 생겨났다. 이는 문제를 은폐하고 사람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깨달음인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한 단계 성숙돼 나가는 시대적 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부랑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집단의 하나이다.

그리고 부랑인 복지제도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늘 후순위에 놓여왔기 때문에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제도 변화의 진전 속도가 느린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랑인 문제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일은 사회적 최약자(最弱者)의 권리에 주목하고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사회가 부랑인(혹은 노숙자[1])을 더 이상 백안시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 관련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다음 단계로 필요한 작업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첫 단계로서 부랑의 발생원인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상식의 수준에서 언급되어온 부랑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추적하고 확인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려고 한다. 둘째로,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의 개선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주로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면접 조사를 통해 각 개인의 생애사를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과거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다 보니 입소자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면담이 가

1) 최근에는 노숙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인격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시민단체들이 '노숙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노숙인'이란 용어의 사용이 보다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이 용어가 비교적 최근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과거의 문건이나 정책까지 다루어야 하는 본 보고서에서는 부득이 '노숙자'로 통일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노숙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였고, 정부의 정책도 "도시노숙자특별보호사업지침"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노숙인'으로 바꿔 부를 경우 오히려 어색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능한 대상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부랑인복지시설 가운데 수용인원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 내의 시설 3곳(서울 '은평의 마을', 인천 '은혜의 집', 경기 '가평꽃동네')과 대구 '희망원'에서 각각 10~60 사례의 설문면접을 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부랑인 시설만으로는 요건에 맞는 피면접자를 목표만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내의 '노숙자 쉼터' 5곳을 포함시켰다. 이는 부랑인과 노숙자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부랑인 시설과 노숙자 시설의 입소자 간에 생활 내력과 사회적 특성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2]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편, 여성과 남성을 같은 수로 조사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조건에 맞는 여성 부랑노인을 찾는 일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대화가 가능한 60세 이상의 여성 부랑인은 매우 드물었고, 입소자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여성 부랑인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이 부랑인화 되는 경로가 남성과 크게 다를 것이라는 점과, 따라서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여성 대상자와의 면접은 모두 4곳에서 27건이 이루어졌다. 각 시설별 면접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1>)

2) 이는 임현철의 최근 논문 "노숙자와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특성 비교"(2002,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표 1> 설문조사 실시 결과

시 설 명	소 재 지	피면접자의 수			비고
		남성	여성	계	
은평의 마을	서울시 은평구	68	-	68	부랑인시설
대구시립 희망원	대구시 달성군	21	18	39	부랑인시설
가평 꽃동네	경기도 가평군	16	7	23	부랑인시설
은혜의 집	인천시 서구	9	1	10	부랑인시설
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시 강남구	-	1	1	부랑인시설
혜명양로원 희망의 집	서울시 금천구	8	-	8	노숙자쉼터
신당복지관 희망의 집	서울시 중구	3	-	3	노숙자쉼터
방배복지관 희망의 집	서울시 서초구	2	-	2	노숙자쉼터
충정로 사랑방	서울시 서대문구	2	-	2	노숙자쉼터
생명의전화복지관 희망의 집	서울시 성북구	2	-	2	노숙자쉼터
총 계		131	27	158	

60세 이상의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데는 과거사를 정확히 이끌어내는 데 따르는 애로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생애의 긴 과정을 살핌으로써 삶의 부침(浮沈)을 낳았던 다양한 요인과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이 부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궤적을 살피고자 하였다. 즉, 성장기로부터 청장년기를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를 따라가면서 부랑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과 직·간접적 요인, 그리고 부랑인으로 들어선 이후의 삶의 변화 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성장기에는 가정형편, 가족관계, 교육 정도, 직업 경험 등을 통해서 위기적 요소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장년기에는 결혼(동거) 경험,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해체 요인, 직업, 주거지의 형태와 변화 과정 등을 보았으며, 노년기

인 현재의 사회적 관계, 입소 동기, 건강상태, 시설에 대한 만족도, 욕구 등도 아울러 밝히고자 하였다. 요컨대 부랑 생활은 각 개인의 생애에 뜻하지 않게 불어닥친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는 관점에서, 그 위기의 내용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없었던 요인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연구의 방법

IMF 경제위기 이후로 노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에 관한 조사와 연구도 늘어났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선 부랑인 혹은 노숙자를 주제로 한 논문과 책자들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에 들어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등의 통계와 관련 자료들도 아울러 참고하였다.

(1) 설문 조사

생활력(生活歷)의 유형과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서 선정해준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이 전 생애에 걸쳐 있고 피면접자의 이해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원은 일문일답의 방식보다는 몇 개의 문항을 묶어서 질문하고 응답자의 구술 내용을 조사원이 분석해서 해당문항에 표기하는 과정을 밟았다. 설문조사는 총 158 명에 대해 실시했다.

(2) 심층면접

설문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30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우선 조사에 협조적이고 자신의 과거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비교적 상세하게 구술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조사자가 판단하기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꾸며서 한다고 생각되는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부랑화 과정의 유형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가설을 세웠다. 첫째, 조실부모하거나 성장기에 가정이 해체되어 일찍이 부랑생활에 근접한 삶을

시작하고 그것이 지속되어온 한계계층형과 둘째, 장년기까지 큰 위기 없이 살아오다가 불의의 사고나 위기를 겪고 나서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무너진 경우, 그리고 노년기에 자립적인 삶의 기반이 없어 고립되거나 유기된 경우 등으로 추정하였다. 그리하여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급적 이 세 가지 유형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유념하였다. 과거사는 본인이 기억하기 좋게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술하도록 유도하면서 간간이 질문을 던져 빠진 내용과 사실의 상관관계, 당시의 심경 등을 확인했다. 구술 내용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했다.

(3) 시설 관계자와의 공동토론

설문조사의 통계분석 결과를 놓고 부랑인 혹은 노숙자 시설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랑인의 삶은 복잡다단한 상황적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나기 마련이어서, 그들의 생활력(生活歷)과 심리상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시설에서 입소자들과 생활해본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와 인터뷰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설문 및 심층면접의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4) 자문회의

본 연구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 학자, 정책 연구자, 복지시설 관련자 등 전문가들로부터 평가와 자문을 받았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별도의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조사의 분석 결과를 수정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

제2장 부랑인의 정의 및 현황

1. 부랑인의 정의

부랑인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거처나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내린 정의도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 사전적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5년에 발표된 내무부 훈령(410호)[3]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이라고 되어 있고, 1987년 보건사회부가 내린 정의[4]에는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자, 또한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 능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폐질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 과거의 개념을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부랑인의 객관적 조건과 특성 외에도, 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가치판단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보다는, 반사회적 존재로서 따로 격리하고 자유를 제한해야할 징벌성 정책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정책이 부랑인을 적대시 혹은 차별하는 경향은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 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차츰 완화되어 왔다.

한편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노숙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실업 및 복지 정책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정한 거처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외견상 부랑인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들이 거리로 나

3)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 및 귀향처리", 1970
4)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 규정", 1987

오게 된 원인을, 대책의 내용적 측면에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즉, 갑작스런 경제 위기에 의해서 생겨난 일시적 가정해체 현상인가, 혹은 경제불황 이전부터 진행돼온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부랑화 현상인가를 구분해서, 원인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은 전자가 일자리나 주거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규범적 삶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문제의 뿌리가 깊고 복잡할 뿐 아니라 지속돼온 기간이 길어서 실업정책과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의 의지와 가정 복원의 의욕을 갖고 있는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와 치료를 우선 필요로 하므로 자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노숙자 가운데 전자의 범주에 드는 사람을 '실직 노숙자'로 칭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보호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랑형 노숙자'와 구분하는 경향이 생겼다. 따라서 '거처가 없는 사람' 즉, 홈리스(homeless)라는 영어에 상응하는 말로 사용돼 온 '노숙자'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자면, 여기에는 응당 부랑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부랑인이란 용어는 과거 격리 수용 위주의 정책을 펼 당시의 개념이고, 사회통념상 그들에게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걷어내는 것도 사회정책의 한 소임이고 보면, 굳이 부랑인을 노숙자와 따로 구분해서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더구나 노숙자 혹은 부랑인이란 용어가 애초부터 명확한 기준과 구분의 필요성을 가지고 생겨난 말이 아니어서, 부랑인은 노숙자 가운데서 제도에 의해 '부랑인 복지시설'로 규정된 시설에 입주해 있는 자 이상의 차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5]. 이렇게 볼 때, 노숙자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약 13,000여명에 이르는 부랑인 시설 수용자와 실직 노숙자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또한 보다 상위 개념이랄 수 있는 '홈리스'의 범주에는, 거리에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기 거처가 없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쪽방, 함바, 여인숙, 만화방 등지에서 기숙하는 사람들까지가 포함되는 것이다[6]. 이를 종합해보면,

---

5) 이는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숙자 쉼터 입소자를 조사·비교한 한 최근 연구에서 부랑인의 시설입소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것 외에는, 양자가 경제활동 기능 수행,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의 수준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임현철, 2002, "노숙자와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특성 비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참조.

6)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외, 2000, 『한국의 노숙자: 2년의 흐름과 진단』, 2쪽

흔히 '부랑인'을 개념화할 때 수반되는 그들의 부정적인 특성 내지 낙인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사회적 존재조건만을 기준 삼는다면, 노숙자와 구별되는 부랑인의 객관적 특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랑인'이란 용어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것은, 거리 생활자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개념화하려는 사회통념 내지 언어적 습관,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용어로 사용해오고 있는 제도적 관행 때문이다. '노숙자'가 현재의 조건을 표현하는 현상적 개념이라면 '부랑인'이란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표 2 > 노숙자와 부랑인의 개념

<table>
<tr><td colspan="2" rowspan="2">노 숙 자
(현상적 개념)</td><td colspan="2">부 랑 인
(관습적 개념)</td></tr>
<tr><td>정부제도</td><td>사회통념</td></tr>
<tr><td rowspan="2">보호대상자</td><td>요양대상자</td><td rowspan="3">부랑인 복지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td><td rowspan="3">노숙이 만성화된 사람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집단</td></tr>
<tr><td>치료대상자</td></tr>
<tr><td rowspan="2">자활대상자</td><td>재활대상자</td></tr>
<tr><td colspan="2">협의의 자활대상자</td></tr>
</table>

소위 '부랑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노숙자를,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한 연구[7]는 노숙자를 보호대상자와 자활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활대상자는 일단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단기적인 물질적 지원으로 자활이 가능한 사람과 상당 기간 정서적 지원과 재교육이 주어져야 자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구분된다. 반면 보호대상자란 극도의 빈곤과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오래 동안 경험하여

7)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1, 『자활의 관점에서 본 노숙자의 이해와 지원 체계』, 7-8쪽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영양결핍, 육체적 쇠약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구분법에 입각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랑인'이라 지칭되어온 사람들은 주로 보호대상이 되는 후자라 할 수 있다.

2002년 8월, 보건복지부가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부랑인의 정의를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18세 이상인 자'로 변경하려다가 종교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철회했던 일화도,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노숙자를 협소하고 부정적인 느낌의 부랑인에 역으로 포함시키려 했던 데서 일어난 오해가 발단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상 '부랑인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기관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용어의 부적합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부랑인' 혹은 '부랑인 시설'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부랑인의 현황

전국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은 2002년 6월말 현재, 10,429명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343명으로 12.8%이고, 20세에서 64세 이하가 8,905명, 19세 이하가 181명이다. 입소자의 상태별로는 정신질환자가 전체의 약 43%(4,48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장애인 28%, 신체질환자가 8% 순이고, 특별한 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일반부랑인은 14% 정도(허약자 포함)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6%로, 남성 입소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성비와 비교할 때 특이한 현상인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표 3>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연령별 현황 (2002년 6월말 현재)

구 분	계	0세 ~ 19세			20세 ~ 64세			65세이상		
		소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총계 (37)	10,429	181	100	81	8,905	5,825	3,080	1,343	750	593
서 울 (3)	3,044	20	10	10	2,520	1,605	915	504	231	273
부 산 (3)	566	8	7	1	487	323	164	71	40	31
대 구 (1)	1,325	16	13	3	1,214	720	494	95	65	30
인 천 (1)	513				431	286	145	82	68	14
광 주 (1)	274				255	191	64	19	10	9
대 전 (1)	222	1	1		201	141	60	20	14	6
경 기 (3)	1,024	3	1	2	908	593	315	113	62	51
강 원 (3)	318				264	180	84	54	31	23
충 북 (2)	939	107	55	52	736	508	228	96	51	45
충 남 (1)	104				91	61	30	13	7	6
전 북 (4)	355				301	196	105	54	36	18
전 남 (5)	737				676	474	202	61	41	20
경 북 (2)	411	18	9	9	323	188	135	70	35	35
경 남 (4)	444	6	3	3	356	254	102	82	52	30
제 주 (2)	153	2	1	1	142	105	37	9	7	2

자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2년 2/4분기 자료

<표 4>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상태별 현황 (2002년 6월말 현재)

시·도별 / 유형별		총 계	남	여	입원환자	전원대상
합 계		10,429	6,675	3,754	1,059	267
일반 부랑인	소계	1,433	1,056	377	76	
	건강	823	559	264	24	
	허약	610	497	113	52	
장애인	소계	3,000	1,860	1,140	132	117
	지체 장애	1,039	754	285	58	36
	정신 지체	1,653	938	715	64	56
	시각 장애	108	69	39	2	16
	언어 장애	200	99	101	8	9
정신 질환	소계	4,483	2,763	1,720	788	100
	정신과	3,401	1,855	1,546	653	99
	간질	417	282	135	35	1
	알콜 중독	665	626	39	100	
노인	소계	682	367	315	32	43
	치매	326	120	206	29	22
	요양	93	74	19	2	17
	일반	263	173	90	1	4
신체 질환	소계	831	629	202	31	7
	와상 환자	411	263	148	7	4
	결핵	114	92	22	18	
	만성 질환	306	274	32	6	3

자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2년 2/4분기 자료

3. 부랑인 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이 연구가 부랑의 동기와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발생원인에 관해서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우선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숙자와 부랑인의 경계가 상당부분 모호하고 발생 과정 역시 동일하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에는 노숙자에 관한 연구결과도 포함하였다.

1) 부랑의 발생원인

일반적으로 부랑(노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 중독, 가정 폭력, 비행이나 범죄, 저학력 등이 지적된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개인, 가정,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범주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랑의 발생원인을 '개인적 자립·자활 능력의 결여, 나태성으로 인한 근로기피, 신체적 장애와 폐질 등에 의한 개인적 요인과, 가정의 보호능력 상실, 무능력, 결손 등의 사유로 적절한 가정보호를 받지 못한 가정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적응능력의 결여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8][9]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나열식 설명법 가운데는 부랑인의 생활상의 특징이나 심리적 성향을 원인과 같은 범주로 다룸으로써,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는 오류를 낳는 경우가 있다. 위의 예에서 개인적 자립·자활 능력의 결여라는 특징은 부랑인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설명이어서, 그것을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어반복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태성으로 인한 근로기피가 부랑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도 일을 회피하는 무기력증 내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 과정적 요인을 간과한 결과론적 설명이다. 흔히 알콜이나 약물 중독에서 원인을 찾는 것도, 한 개인이 부랑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알콜이 일차적 원인이라기보다 외적 위기에 대한 도피수단으로 알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단순화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알콜에 탐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8) 보건사회부, 1986, 『보건사회』, 327-328쪽
9) 엄영태, 2000, "부랑인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13쪽

곧장 부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빈곤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알콜에 의존할 때 노숙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자칫 정상적 궤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빌미가 될 수 있고, 부랑인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문제로 왜곡하는 근거가 될 소지도 있다.

리치(Leach)는 노숙에 이르는 원인을 내생적(intrinsic) 원인과 외생적(extrinsic) 원인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 손상이나 장애로, 그리고 후자를 빈곤과 같은 외부의 상황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노숙의 원인을 개인적(individual) 차원, 사회집단(social groups)의 차원, 사회경제적 상황(socio-economic context)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학자[10]도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의 요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 저소득, 교육수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등 개인의 특성, 경험 및 행위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개인의 경험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퇴거로 인한 주거의 상실, 실업 혹은 복지급여의 상실에 따른 물질적 자원의 감소, 약물 남용과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이다. 사회집단 차원의 요인이란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단절 혹은 약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원에서는 저렴한 주택의 부족, 특히 저소득 가구와 저렴주택 비율의 불일치를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차원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작동하는 기제와 변수들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언급된 많은 요소들이 노숙의 원인 요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노숙의 결과'[11]이기도 한 것이다.

2) 부랑인의 심리적 특성

부랑인에 관한 대책의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사회규범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고 자활·자립케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치매, 중증의 신체적 장애는 노동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가항력의 요인이므로 타인이나 시설로부터의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가 요구된

10) Shinn & Weitzman, 1990,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외, 앞의 책에서 재인용

11)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외, 2000, 앞의 책, 6쪽

다. 문제는 자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활대상자들이다. 흔히 사회통념은 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는 일자리나 주거공간과 같은 경제적 요소만 주어지면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하거나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철저히 백안시하는 것이다.

부랑인 문제는 늘 재활 또는 자활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기 마련이어서, 자연히 우리나라의 연구도 '자활의 저해 요인이 무엇인가, 자활을 어렵게 하는 그들만의 심리적 특징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부랑인들은 성장기의 가정환경에서부터 일반인과 다른 조건에 처함으로 해서, 이러한 양육 환경이 그들의 성격 형성과 심리 기제 패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우한 환경에서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까닭에, 심리 발달 과정에서 자신을 양육자로부터 분리시켜 주체성을 정립하는 '격리개별화'의 정도가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낮다든지, '자아존중감'이 낮다든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이는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遺棄感)이 우울증, 무기력, 두려움 등을 낳고, 취약한 자아(自我)로 인해서 좌절을 이기는 내성(耐性)이 약해지며 충동 억제를 잘 하지 못하는 등의 심리적 장애가 생기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단 성장기의 애정 결핍이나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아니더라도, 거리 생활을 오래한 장기노숙자들 사이에는 활동에 대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성향이 나타난다.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이 단절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숙자는 고립감에 젖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점차 다른 노숙자들과의 관계 제휴(social affiliation)가 이루어진다[13].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그는 일반적 사회관습과는 동떨어진 '노숙문화'에 의존하게 되는데, 활동성과 의욕의 저하 현상은 이러한 노숙문화의 일면이라고 보여진다.

다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관심과 지원,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랑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14]에 의하면, 높은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일에

12) 최성숙, 2000,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13)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1, 앞의 책, 11-13쪽
14) 강민정, 2000,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적응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및 사회 적응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고 한다. 연령층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야 하겠지만, 사회적 지지 관계의 존속 여부는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장기의 불우한 환경에 의한 것이든, 노숙의 장기화에 따른 결과이든, 거리 생활이 만성화된 노숙자(부랑인)들한테서는 재활 혹은 자활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 특성 내지 성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외적 요인에서 연유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부랑생활의 동기와 위기 대처 능력

'현재는 과거의 역사가 누적된 총합'이란 말이 부랑인의 삶만큼 정확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것이다. 일상생활은 과거의 시·공간에서 발생한 경험과 현재의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경험이 교차하는 곳이다[15]. 일상생활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경험 속에서 반복되는데, 현재의 삶 속에는 과거의 삶이 투영되고 개입해서 독특한 속성을 이룬다. 인간의 생애가 이러할진대 특히 부랑인의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절단한 단면만을 보고 이해하려 한다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정적인 판단에 빠지기 쉽다.

사회규범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혹은 자립적인 삶을 한 개인이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소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과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생명유지 활동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일정한 거처,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가족, 그리고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노동의 기회, 즉 일자리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족은 다른 요소가 결핍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그것을 보완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물질적 지지의 원천일 뿐 아니라, 가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확인하게 해주는 주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소위 '부랑인'은 이상의 네 가지 요소를 상당부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근혜, 1999,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5)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91쪽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상의 요소들을 항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누리는 사람의 비율은 많지 않다. 인생의 역정에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고나 불운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되기고 하고 건강을 상실하기도 하며 직업을 잃기도 한다. 말하자면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그 개인에게 있는가, 그러하지 못할 때 가족이 안전판의 구실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역시 그러하지 못할 때 국가나 사회가 얼마나 그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떠받쳐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부랑인의 현재 모습은 그가 과거로부터 겪은 위기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연유된 결과이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연속적으로 좌절되고 대처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자포자기의 방법으로 위기 상황에 적응해나간다.

셋째, 규범적 삶으로부터 도피한 후 사회관습과 괴리된 생활이 장기화되면, 그 곳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또 다른 고유의 관습이 형성되고 그렇게 체화된 관습을 벗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건강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동시에, 위기 대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지식과 기술은 경제적 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학력이 낮거나 기술이 없다는 것은 안정적인 생계유지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위기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또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인성(人性)도 위기 대처 능력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 자립심, 인내심, 대인관계 능력 등은 사회관습의 틀 안에서 위기를 풀어나가는 데 요구되는 심리적 자원이다. 끝으로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 지지(支持)의 정도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부랑인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지체, 신체장애 등을 갖고 있고 교육 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그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전무하거나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노동의 의지, 자립심, 대인관계 능력 등 건강한 자아 역시 위기 대처 능력의 한 요소라고 할 때,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경우 심리적 장애를 갖게 된 부랑인들은

혼자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랑인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로, 개인적으로 극심한 위기를 겪었거나 경제적 실패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다[16]는 사실이 지적되는데, 이러한 타격은 심리적 차원에서 위기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는 것은 위기 대처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흔히 부모형제, 친척, 친구와의 관계는 인생 행로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자금, 일자리, 정보나 기회)을 제공받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신의 역할 수행의 동기를 부여받고 정신적 위안과 격려를 받는 안식처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정신적, 물질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 대처 능력을 격감시키는 요인이다. 보통 알콜에 탐닉하거나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는 것도 극도의 외로움과,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6) M. Stoner, 1983, The Plight of Homeless Women, *Social Service Review*, Univ.of Chicago Press, Vol.57. No.4

제3장 부랑인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1. IMF 사태 이전의 노숙자 정책 : 70년대~80년대의 부랑인 정책

1975년에 발표된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의하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부랑인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질서 확립과 도시 미관의 차원에서 부랑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부랑인을 책임지는 부서 또한 내무부로, 부랑인은 치안 유지를 위한 통제의 대상에 다름 아니었고 독립된 '부랑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부랑인 보호대책은 1981년 부랑인에 대한 일제단속과 사회조사 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조사는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01호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1981년 4월 20일부터 8일간 전국에 걸쳐, 연인원 19,3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85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은 전원 강제 수용되었다. 이러한 일제단속과 강제수용은 제5공화국 출범 초기 사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실시되었지만, 이 시기부터 부랑인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 개입이 시작된다.

1981년 부랑인에 대한 일제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 같은 해 10월 '부랑인 보호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부랑인 보호사업을 '국가의 복지정책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자선적 시혜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적 시혜로 전환, 둘째, 시설을 확충하여 시설 부족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전문시설에 수용하고 자활 촉진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유도, 셋째,

시설 운영의 민간기관 위탁으로 효율성 도모, 넷째,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행정체계의 합리적 정비 등이다.(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구걸행위자 보호대책, 1981)

이에 따라 1982년부터는 비교적 많은 자원을 부랑인 대책에 할애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부랑인보호시설 신·증축에 재정 투자를 늘려, 이 기간에 지은 건축면적이 당시의 부랑인보호시설 전체 면적의 85.6%에 이르렀다. 1981년 23개 시설에 5,175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6년에는 27개 시설 13,15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다가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시설운영개선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수용자 수는 다소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부랑인보호시설에 대한 다소간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인원이 단속되어 수용되었기 때문에 시설 종사원 부족 등 과밀 시설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기도 부랑인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수용되는 등 여전히 치안의 차원에서 부랑인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7년 형제복지원과 성지원 사건으로 부랑인보호시설의 인권 침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랑인에 대한 강제수용은 포기되었다. 1987년 부랑인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도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이듬해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부랑인의 단속과 입·퇴소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시설의 규모를 약 300~500명 정도로 줄이는 것, 그리고 장애의 종류별로 전문시설에 분리 수용하며, 시설 내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시설운영을 공익법인에서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단속과 강제수용에서 노숙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부랑인 정책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그 후에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끔씩 부랑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 침해가 문제시되었다. 또 부랑인보호시설의 운영 방식도 크게 혁신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부랑인보호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정부의 공식 부문 이외에도 소규모의 민간 부문 활동들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들에서 제공했고, 드물게 개인이 한 경우도 있다. 주로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왔고, 숙소를 제공한 기관도 몇

개 있다. 그밖에도 의료 서비스 제공, 무료 목욕 서비스 등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2. IMF 사태 이후의 노숙자 정책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되면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IMF 사태를 겪으면서이다. 1998년 이후 전국적으로 대도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노숙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997년 말까지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는 100명을 넘지 않았으나, 1998년 4월에 약 400여명, 6월에 1,300여명, 9월에 약 2,000여명으로 급증하였다. 부랑인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IMF를 계기로 누구라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IMF 사태 이후 노숙자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1998년 초 보건복지부가 민간과 함께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보건복지부와 민간의 종교·시민단체들이 긴밀한 협조 아래 노숙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간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가 노숙자 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노숙자 정책을 주도해나간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서울시 노숙자 정책은 노숙자들의 수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노숙자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노숙자들의 자활지원에 정책적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시기이다.

1) 민관 협력이 이루어진 시기

노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공식적으로 수립된 것은 1998년 3월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노숙자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시대 도시노숙자보호 세부집행계획'을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을 활용하여 급식, 쉼터,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복지부와 민간의 모임은 이후 몇 차례 지속되면서 그 과정에 단순한 시혜 차원의 구호가 아닌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적 구호가 필요하며 민간에서도 기존의

부랑인 보호와는 다른 자활까지의 보호를 포함해야한다는 논의로 모아졌다. 그리고 정책의 초점은 당면한 문제인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쉼터)의 마련을 위한 응급 구호에 맞추어졌다. 따라서 노숙자에 대한 대책으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급식 대책이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1998년 4월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급식비 지원과 쉼터 확보, 상담과 귀향 여비 지급, 의료 구호이다. 또한 노숙자의 실태 파악, 의료에 대한 내용과 노숙자와 부랑인을 구분하여 부랑화를 예방하고 부랑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급식 제공과 더불어 거리생활로 인해 자신의 자립의지를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쉼터'의 설립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이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맡기로 하고 복지부는 재정과 행정적 도움을 주기로 논의를 모아, 5월 중순에 2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었다. 1998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20개의 노숙자 쉼터가 개설되어 1,195명의 노숙자를 수용·보호하게 되었고, 30여 개 이상의 노숙자 급식소가 운영되었다.

이 시기는 보건복지부가 민간 부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정책을 수립한 시기로서 민·관의 역할이 가장 잘 배분되어 사업이 수행된 시기였다.

2) 서울시로 주도권이 넘어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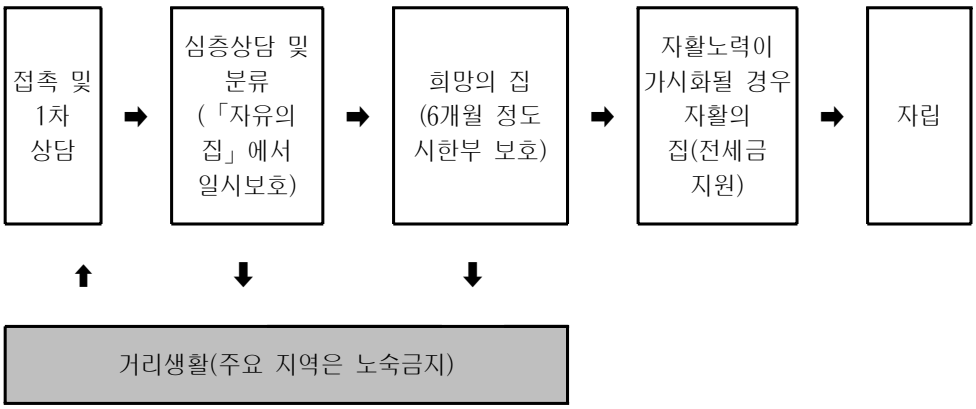
이렇듯 민관이 협력하여 노숙자에 대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고건 시장 취임을 계기로 노숙자 문제의 주도권이 서울시로 넘어갔다. 고건 시장은 노숙자 대책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었고 노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일시에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곧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노숙자 대책의 골간이 된 '노숙자 다시 서기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의 집」을 대폭 확충하는 것,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설치, 「희망의 집」의 노숙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노숙자 정책의 전반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까지 1,0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개소에 불과했던 서울지역의 쉼터가 105개로 대거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내 주요 지역을 노숙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시기 서울시의 노숙자 정책의 특징은 거리 노숙자를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수용 위주의 정책에 대해 민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복지관을 이용하여 쉼터를 만든 것이나 입소 노숙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한 것은 강제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노숙자를 거리로부터 '청소'한다는 점에서 결국 동일한 효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노숙자에 대한 지원 수준이 단기적으로는 법정영세민에 대한 지원보다 높아서, 예방보다는 노숙자 발생 후 대책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3) 노숙자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시기

1999년 서울시는 노숙자 대책의 방향으로 쉼터를 유형별로 특성화하고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노숙자 문제가 수용에 의해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자활대책 마련이라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아갔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자활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여기서 「자유의 집」은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1차 시설이고, 「희망의 집」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정신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대책 등 자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시 노숙자 대책의 기본 구상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0년 노숙자 정책을 보면 노숙자 예방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그간의 사후적인 응급대책 위주의 노숙자 대책에서 탈피하여 예방 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숙자 예방책으로 제시된 것은 사회

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노숙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기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 등으로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었다.

3. 노숙자 정책의 주요 실태 및 평가

IMF 사태 직후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응급구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제도화에 대한 고민들,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부랑인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은 도외시되었다. 그러다가 노숙자 문제가 단기간의 지원 조치에 의해 해결될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노숙자의 유형화에 따른 자활 및 재활 대책이 논의되었고, 비로소 부랑인 문제도 노숙자 문제의 한 범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숙자 정책과 부랑인 정책은 거의 별개로 진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노숙자 정책을 응급구호,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의 대책으로 구분해서 살펴 본 후, 노숙자 정책과 별개로 진행되어왔던 부랑인 정책을 부랑인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랑인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주요 노숙자 정책

(1) 응급구호 중심의 노숙자 정책

IMF사태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고 가정이 해체된 취약계층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숙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급식, 주거지원 등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98년 3월 30일,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노숙자 보호 관련 전문가 회의와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숙자 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전문가 회의 결과 및 추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시노숙자특별보호사업지침'을 수립(1998. 4. 10)하여 전국에 시행하였다.

노숙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1998년 6월부터는 종교계와 사회복지계의 협력

을 바탕으로 거리의 노숙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해갔다. 이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취업 알선, 쉼터 제공, 귀향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8년 가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노숙자 쉼터의 확대·설치(현재 전국 150개소)였다. 이러한 노숙자 쉼터 확대 과정에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 80여개소에 노숙자쉼터가 신규 설치되었으며 잔류 노숙자에 대한 동사(凍死) 방지를 위해, 쉼터 내 생활이 다른 시설보다 자유로운 1,000명 규모의 「자유의 집」이 1999년 1월에 개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노숙자를 거리로부터 유리시켜 보호하고자 하는 응급구호 중심의 대책으로, 일시적 효과는 거두었지만 노숙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

(2) 의료 지원

노숙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의료보험과 공공부조의 의료보호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거나, 의료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노숙자 대다수의 처지였다. 따라서 임시 방편으로 의료구호비를 책정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노숙자의 질병 치료는 의료 구호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공공의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노숙자에게는 지정의료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병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리 노숙자의 의료서비스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중 약품비 등 극히 일부만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노숙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긴급하게 편성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노숙자 쉼터로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고 부랑인시설에 입소하면 해결이 되는 식이었다. 또 의료비의 지급도 의료보호에 근거하지 못하고 노숙자 관련 예산의 일부를 이용하는 식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진료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수익성과

성과 위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숙자 의료 실태의 심각성은 계속 보고되었는데, 서울시가 1999년 1월 28일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 등 노숙자 보호시설 106곳에 수용된 노숙자 3,900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8%인 462명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에는 시설 수용 노숙자에게 시설보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의료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노숙자의 의료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제한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표 5> 노숙자 진료비(의료구호비) 현황

기간	진료연인원	예산	지출	초과액
1999년	20,003명	-	867,397,000원	
2000년	12,791명	809,760,000원	971,411,000원	161,651,000
2001년(1~3월)	11,944명	792,000,000원	517,065,000원	

자료 : '노숙인 의료문제 실태 및 제언', 고영, 제3회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타 심포지엄 (2001.12)

노숙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노숙자 대책사업을 IMF 경제위기 때 일시적으로 생긴 잔여적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여 한시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이 프로그램 공모형식으로 지원됨으로써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3) 자활프로그램

1999년 가을, 노숙자의 쉼터 입소가 늘어나고 응급구호 중심의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자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공공근로 사업 확대, 쉼터에 입소한 노숙자들 가운데 자활의지가 높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봉사단 등이 자활대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1999년 자활 대책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생산자 공동체 프로그램' 등 노숙자의 자활활동을 지원하는 자활의 집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활 대책 중 주거 대책으로 1999년 3월 최대

1,000명까지 전세방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종래의 시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이 지원 사업의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 1년 이상 안정적인 취업을 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2~3명당 하나씩 1,500만원 상당의 전셋방을 얻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실직 노숙자'들은 쉼터 생활을 통해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바로 일터로 나가게 되었지만, 알콜 중독, 사회 적응 능력 결여, 심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오거나 쉼터로 돌아오는 노숙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이들을 관찰해온 사회복지계의 학자들과 종교시민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대안으로서 알콜중독 예방, 심리 치료, 사회성 훈련 등 노숙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0년부터 전국 노숙자 쉼터에서 본격적인 노숙자 자활사업이 전개되었다.

(4) 노숙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한국의 노숙자 대책 사업에 관해 주목할 사항은 IMF 사태 이후 급속히 증가한 노숙자에 대해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고도 온정적인 지원책을 펼쳤다는 점과 제반 사회복지 제도가 취약한 가운데 노숙자에 대한 응급대책이 수립됨으로써 형평성 내지는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문제가 도외시되었다[17]는 점이다. 이렇듯 노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로 노숙자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지원사업의 체계화, 제도화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노숙자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숙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안정성이 떨어져 전문적인 보호사업을 펼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쉼터는 일시적인 수용시설에 불과할 뿐, 다양한 유형의 노숙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쉼터 유형화에 따른 전문 쉼터의 마련이 절실하다

셋째, 열악한 노숙자 의료지원 체계로서, 현재의 의료구호비로는 효과적인 의료서

17) '노숙자 지원 제도화 방안 시론' 김수현,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2000년 심포지엄

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넷째, 노숙자 보호시설을 공식화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희망의 집」은 임의시설에 불과하여 생활시설로서 적합한지 검증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한편 부랑인 시설과의 관계 정립 또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시 보호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 생활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을 무연고, 무능력자를 위한 장기 생활시설로 현실화하고, 노숙자 쉼터가 단기 보호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신 요양, 노인 요양, 그리고 부랑인복지시설의 실질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부랑인 시설이나 정신 요양 시설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시설 부족이나 시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거리로 나오게 되고, 다시 노숙자 쉼터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 부랑인 시설 수용자에 대한 정책

부랑인 복지사업은 주로 시설 생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랑인 시설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이다. 부랑인에 대한 관점이 수용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시켜야할 존재로부터 보호 및 재활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부랑인 시설에 대한 관점 또한 변화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부랑인 시설은 부랑인들이 가진 개인적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적인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랑인에 대한 보호와 판정의 기능, 장애 극복의 기능, 생활의 정상화를 위한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을 해주어야 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1) 부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부랑인 복지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는 크게 단속·선도 부분, 수용·보호 부분, 프로그램 부분, 그리고 정부 지원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단속·선도 부분은 행정자치부 차원의 법령들로서 이들 법령에 근거한 단속 대상은 첫째,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그리고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둘째, 물품 강매자, 청객 행위자, 구걸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자, 불안감 조성자, 음주 소란자 등이다.

수용·보호 부분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법령들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는 입소 대상과 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도 '부랑인 복지'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2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부랑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부분은 주로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 규정 제12조는 부랑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부분에는 부랑인 보호 국고보조사업지침,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등이 포함된다. 국고보조사업지침에는 사업 방향, 보조사업 수행지침, 사업별 추진지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는 부랑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과 보조금 부담을 국고, 지방비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있다.

<표 6> 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구 분	관련법령	내용
단속・선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경찰업무지침보안편 제29절 경범죄처벌법 제1조	보호조치 등 단속대상 경범죄의 종류
수용・보호	부랑인선도시설설치・운영규칙 제3조 부랑인선도시설설치・운영규칙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노인복지법 제8조	입소대상 시설설치기준정의 시설의 설치 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대상자의 구분 보호조치 시설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 금지행위 상담・입소 등의 조치, 생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프로그램	부랑인선도시설설치・운영규칙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호 부랑인선도시설설치・운영규칙 제15조~20조 부랑인선도시설설치・운영규칙 제22조~26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 및 자격 건강관리, 급식위생, 후생복지의 증진, 전원조치 등 아동에 대한 교육보호, 사망자의 처리 직업보도, 직종, 작업시간, 수익금 관리, 작업환경
정부지원	부랑인보호국고보조사업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제13호 국민기초생활법 제43조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규정	지원기준, 교부신청, 집행 등에 관한 기준 보조금 등 보조비용의 부담기준 시설직원봉급, 수당지급 기준, 정근수당 지급기준

자료 : '지역사회 부랑인시설의 실태와 운영개선방안', 김태진, 정운석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권 특집호, 2001.6

(2) 부랑인 시설의 주요 현황

역사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은 6.25 전쟁 이후 무의탁·무연고 걸인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수용시설로서의 뿌리가 깊다. 이런 연원으로 인해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해 현저히 낮으며, 시설의 노후도나 1인당 생활 면적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형성 과정에서 '수용'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000~2,000명이 생활하는 초대형 시설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랑인 시설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9월 말 현재, 전체 시설수 37개소에 전체수용인원 10,241명(정원 11,267명)으로 시설당 평균 277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300인 이상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다른 사회복지생활시설과 비교할 때 평균생활자 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특히 300인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도 전체의 21.6%에 이르러 시설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남을 알 수 있다.

<표 7> 부랑인 시설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항 목 / 규 모	시설수 (개소)	비중 (%)
1,000인 이상	2	5.4
500인 이상 - 1,000인 미만	2	5.4
300인 이상 - 500인 미만	4	10.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15	40.5
50인 이상 - 100인 미만	11	29.8
50인 미만	3	8.1
계	37	100.0

자료 :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주최, 부랑인복지세미나 자료집 (2002. 10)

그 밖에도 부랑인 시설을 설립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과반수에 가까운 시설이 80년대에 설립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 유치를 앞두고 부랑인을 대대적으로 수용하는 데 비중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8> 부랑인 시설의 설립연도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설립연도	시설수
~69년	8
70~79년	5
80~89년	16
90~99년	4
2000~	4
계	37

자료 :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자체 자료

한편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형편없이 저조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의 생활보조교사는 10명당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부랑인 시설의 생활보조원은 50명당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2002년 9월말 현재 부랑인시설 종사자는 766명이고, 생활보조원은 136명으로 1인당 75명의 시설생활자를 돌보아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존 장애인 시설의 지원 체계의 1/4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예산 또한 일시보호의 예산 지원 개념으로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9> 전문시설별 관리인원 현황

직종별 / 시설별		간 호 사	생 활 지도원 (보 조 원)	조리원 (취사원)	위생원 (세탁원)	관리원 (경비원)	사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시설당1인	성인 : 10인당1인	50인당 1 인	50인당 1 인	200인당 1 인	100인당 1 인
			아동정박 : 5인당1인				
			시각장애 : 4인당1인				
			중증장애 : 3인당1인				
노인복지 시 설	양로	50인당1인	20인당1인	50인당 1 인	50인당 1 인		100인당 1 인
	요양	25인당1인	7인당1인	50인당 1 인	50인당 1 인		100인당 1 인
정신질환 요양시설		40인당1인	25인당1인	시설당 2 인	시설당 1 인	시설당 2 인	시설당 1 인
부랑인복지시설		200인당1 인	50인당1인			시설당 1 인	시설당 1 인

자료 :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개혁 방안'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자체 자료. 2002.2)

<표 10> 시설별(성인) 예산지원 비교표

구 분 / 시설별	시설수 (개 소)	연말수용 인원(명)	시설당 연평균 수용인원(명)	입소자1인당 관리비 지원액 (원/년)	순수운영비 (인/년/원)
장애인복지시설	200	17,331	87	7,153,669	797,200
노인복지시설	206 유료58	12,300 유료 포함14,750	60 유료 포함56	양로:3,041,000 요양:5,012,000 전문:8,076,000	563,800 714,920 948,870
정신질환요양시설	55	16,047	292	1,678,000	380,000
노숙자 쉼터	149	4,099	28		
부랑인복지시설	36	10,843	301	1,690,319	490,870

자료 :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개혁 방안'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자체 자료. 2002.2)

(3) 부랑인 시설 서비스 지원 실태

부랑인 복지시설은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을 대신하여 보호해주는 기능과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 치료, 재활 등 일반 가정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능을 수행한다. 부랑인 시설 입소 기준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의 '2000년 생활보호사업안내'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부랑인 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기준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정신질환 또는 심신장애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보호기관인 시장, 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부랑인으로서 본인이 시설에의 보호를 원하고 시장, 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이 있는 자'이다. 입소 기준에서도 드러나지만 부랑인 시설은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정상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생활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시설로서, 그 자체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기존 복지체계의 틀로 포괄할 수 없는 자들을 수용하는 완충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랑인 시설에 입소한 시설 생활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부랑인은 19%에 불과하고 장애인(26%), 정신질환(40%), 노인(8%), 신체질환(7%)으로 나타나 부랑인 시설 생활자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재활을 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43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없는 시설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랑인 시설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부랑인 시설에 촉탁의나 공중보건의로서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거나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과 치료 및 투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보아 정신질환자의 수용·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 시설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1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정신과 의사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부랑인 보호 예산에서 정신과 촉탁의 비용 및 약제비를 해당시설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랑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실태를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평

가분석결과(2000년)를 통해 살펴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운영관리 영역도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시설의 개방성, 투명성, 시설운영의 체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거주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랑인들의 배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그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 친지 등 의지할 혈연 관계망이 없거나, 있더라도 버림받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그 자체가 욕구의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는 외부 환경과 기본시설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었으나 지원 시설의 경우 낮게 평가된 시설이 많았다. 지원시설 분야에서는 심사대기실, 프로그램실, 도서실과 오락실, 옥외 운동장 혹은 체육공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시설들이 창문에 과다한 보호망을 설치하고 층별 입구에 사무실을 두고 생활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으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시설 생활을 할 수 없는 등 폐쇄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자의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운영 관리면은 부랑인복지시설 전체가 가장 취약한 영역이었다. 먼저 법인 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 시설의 운영 목표의 수립, 운영 계획의 구체성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직원을 위한 자체교육의 실시, 사회복지사의 배치 정도, 정원 대비 직원 확보율, 직원의 만족도 분야 등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인 지원금의 비율, 일반회원의 후원금,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 등 재정 관리 영역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러 개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로 운영, 결정되어 시설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법인에 대한 기관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 유지가 취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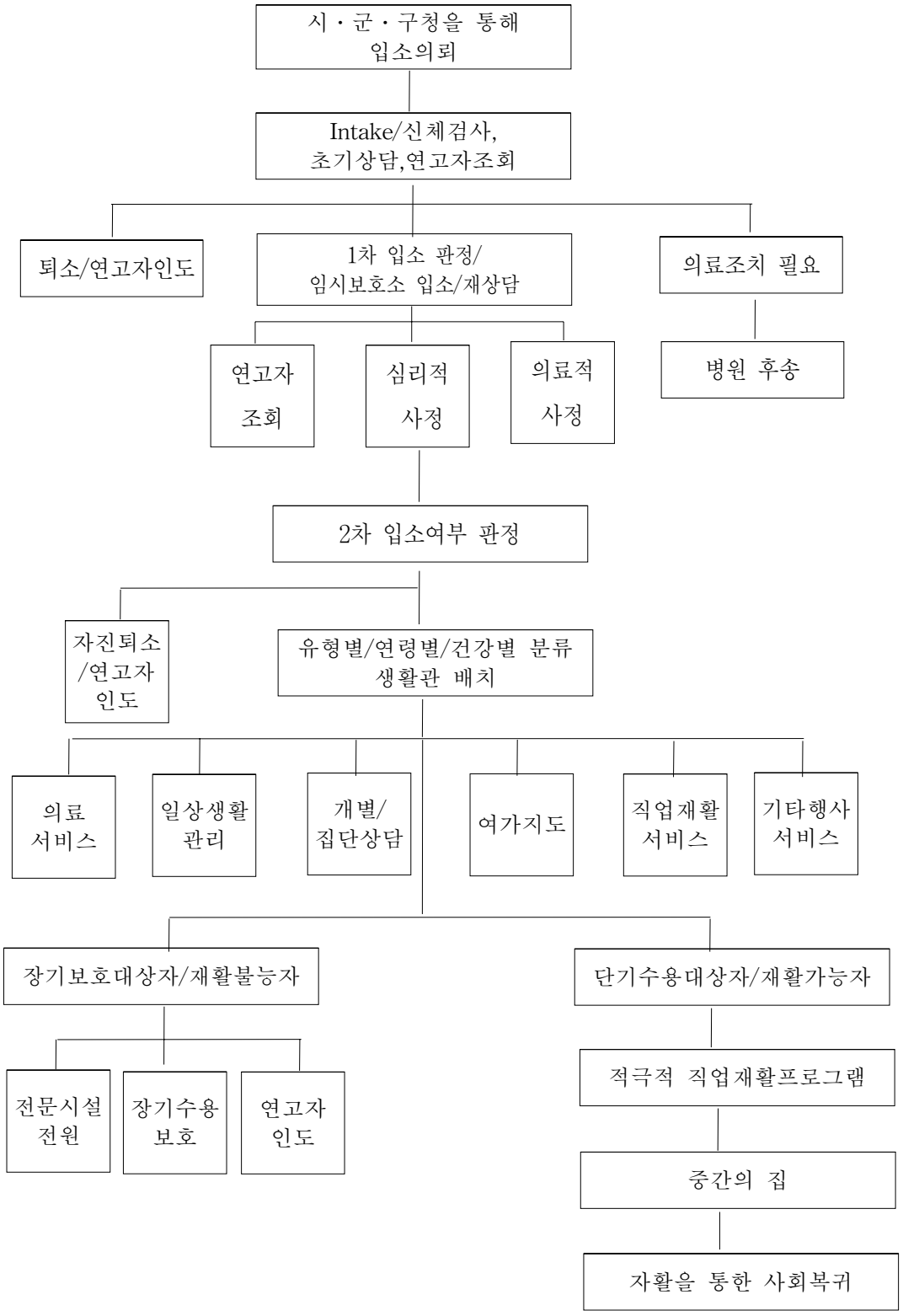
한편 인권 보호 및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는 입소 시 초기 면접, 초기 연고자 조회, 거주자 권리 공지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시설 거주자의 자유로운 외출 및 외박, 시설 운영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견 수렴 등은 취약하였다. 특히 외출 경험자들 중 월 1회 이상 빈번한 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전체의 2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재활 및 전문 서비스 분야의 취약함이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사례 검토 회의 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랑인 복지사업의 목적이 부랑인의 사회복귀라고 할 때 부랑인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도 결국 시설이 사회복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재활에 대한 시설의 기여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랑인 시설 입소자의 60~70%는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고 있으며 신체장애 및 복합장애를 가진 인원도 20% 내외에 이르고, 와상(臥床)노인이나 치매환자, 심지어 결핵환자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는 거의 모두 별도 전문시설(정신요양, 노인, 장애인시설, 병원 등)로 전원(轉院) 조치된 후 부랑인 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 전문시설들은 '시설 부족'을 이유로, 또는 부랑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입소하면 규칙을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은 법규상, '일시 보호시설'임에도 실제로는 무의탁, 무연고 노인들이 여생을 마치는 장기 생활시설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시설의 대규모화와 과다한 수용 인원으로 인해 입소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종사자 부족의 문제는 부랑인 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랑인 시설의 경우 입소자 수에 비하여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수준이 낮고 종사자 일인이 담당해야 하는 입소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랑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랑인들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폐쇄적인 운영으로 시설 입소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부랑인 시설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복귀라고 하지만, 현 상태에서 입소자들의 상당수는 빠른 시일 안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랑인 시설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재활 중심의 일시보호시설, 사회복귀가 가능하나 지지(支持)체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그룹홈, 장기적인 수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 생활시설 등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로 복귀한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입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입소 의뢰 후 초기 상담 및 신체검사, 연

고자 조회를 실시하여 즉시 퇴소자와 의료조치자를 분리한 후, 1차 입소 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리고 입소대상자는 임시보호소에 입소시켜 사정(assessment)을 실시한다. 사정을 통해 2차 입소 판정을 내려 퇴소자를 선별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소 판정된 자에 대하여 시설에 정식으로 배치하고 입소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설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림 2> 부랑인시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모형

(출처 : 이태수, “부랑인복지시설의 나아갈 방향”,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주최, 부랑인복지세미나, 2002. 10)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의 생애와 생활실태

1.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의 생애사

1) 설문분석 결과

전국 10개의 부랑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총 158명의 부랑 노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성격 (n=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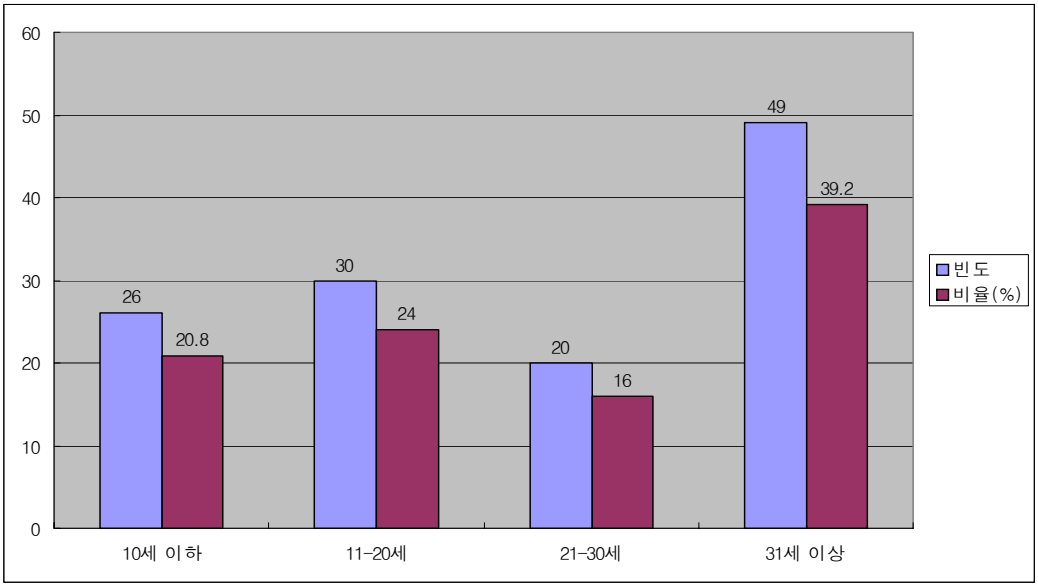
변인	범주	빈도	비율(%)
성	남	124	82.1
	여	27	17.9
연령	60-64세	64	42.4
	65-69세	51	33.8
	70-74세	19	12.6
	75-80세	13	8.6
	80세 이상	4	2.6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82	54.7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26	17.3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9	19.3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11	7.3
	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	2	1.3
출신지역	대도시	35	23.2
	중소도시	40	26.5
	농어촌	76	50.3
	대도시	35	23.2
	중소도시	40	26.5
	농어촌	76	50.3

(1) 성장기에 대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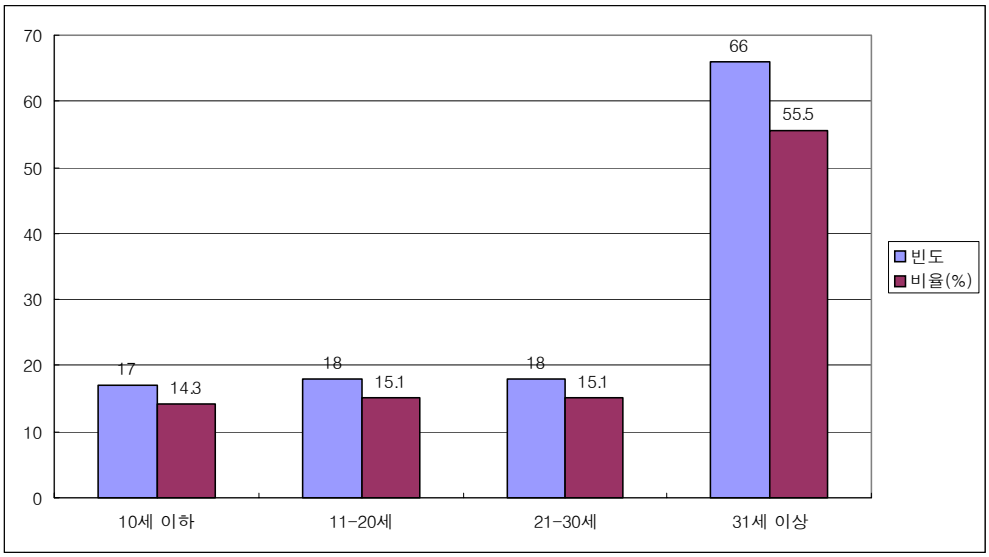
먼저 부모의 사망시기를 살펴보면 부의 사망 시기는 응답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44.8%, 모의 사망 시기는 응답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29.4%로 나타났다.

부의 사망 시기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44.8%로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반 정도가 성장기에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존재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이어지고 응답자가 일찍 노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을 낳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모의 사망 시기는 응답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29.4%로 나타났는데, 부의 사망이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면 모의 사망은 정서적 지지관계의 상실로 볼 수 있다.



<그림> 부의 사망시기



<그림 3> 모의 사망 시기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부의 직업은 농업(38.9%), 영세자영업(13.2%), 단순사무직(11.1%), 단순노무직(10.4%) 순으로 나타났고 모의 직업은 농업(42.4%), 단순노무직(36.1%), 영세자영업(9.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1900년대 중반에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시기가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부모의 직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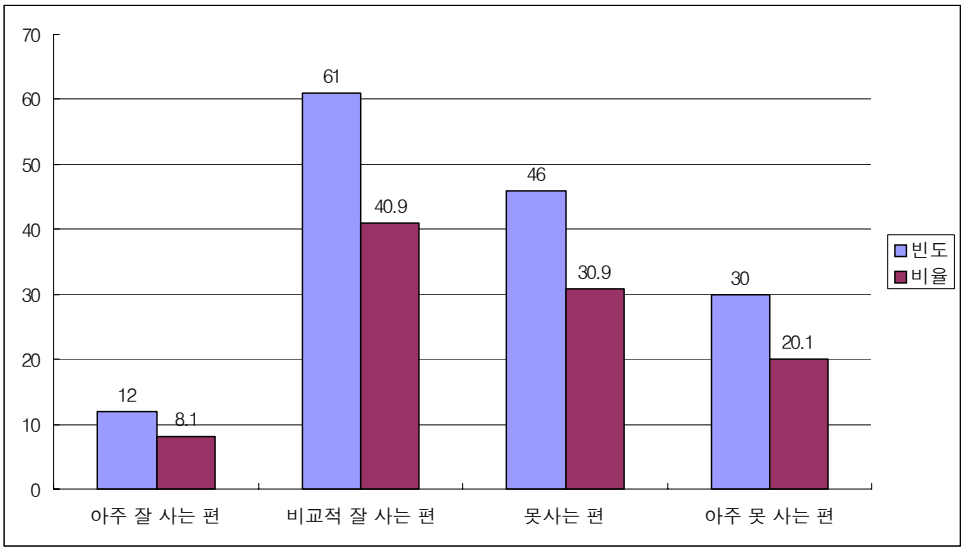
<표 12> 부의 직업

	빈도	비율(%)
무직	10	6.9
농업	56	38.9
단순노무직	15	10.4
단순사무직	16	11.1
기능기술직	10	6.9
영세자영업	19	13.2
전문직	7	4.9
개인사업	7	4.9
기타	4	2.8
계	144	100.0

<표 13> 모의 직업

	빈도	비율(%)
무직	2	1.4
농업	61	42.4
단순노무직	52	36.1
단순사무직	6	4.2
기능기술직	1	.7
영세자영업	13	9.0
전문직	1	.7
개인사업	1	.7
기타	7	4.9
계	144	100.0

성장기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잘 살았다'는 응답이 49.0%, '못 살았다'는 응답이 51.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판단은 유년기 당시(1900년대 초중반) 지역사회 내에서의 '상대적'인 평가이고 또한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오늘날의 계층 구분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랑인의 다수가 빈곤 가정 출신일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4> 성장기 가정형편

한편 부의 직업과 성장기 가정형편을 교차분석한 결과 부의 직업이 전문직이나 개인사업, 영세자영업인 경우는 '잘 살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무직, 농업, 단순노무직은 '못 살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즉, 전문직, 개인사업 등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이나 농업에 비해 안정되고 소득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의 직업과 성장기 가정형편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부의 직업×성장기 가정형편

	무직	농업	단순 노무직	단순 사무직	기능 기술직	영세 자영업	전문직	개인 사업	기타	
아주 잘 사는 편	0	2 (3.6%)	0	1 (6.3%)	1 (10.0%)	1 (5.3%)	3 (42.9%)	3 (42.9%)	0	11 (7.7%)
비교적 잘 사는 편	3 (30.0%)	22 (40.0%)	4 (26.7%)	12 (75.0%)	3 (30.0%)	9 (47.4%)	4 (57.1%)	3 (42.9%)	0	60 (42.0%)
못 사는 편	3 (30.0%)	20 (36.4%)	6 (40.0%)	3 (18.8%)	3 (30.0%)	6 (31.6%)	0	1 (14.3%)	1 (25.0%)	43 (30.1%)
아주 못 사는 편	4 (40.0%)	11 (20.0%)	5 (33.3%)	0	3 (30.0%)	3 (15.8%)	0	0	3 (75.0%)	29 (20.3%)
계	10 (100.0%)	55 (100.0%)	15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7 (100.0%)	7 (100.0%)	4 (100.0%)	143 (100.0%)

χ^2=.000

성장기의 주 양육자는 '부모'(59.6%), '모'(15.2%), '자립'(7.3%)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기에 양부모가 생존해 있었을 경우에는, 조사시 대개 '부모'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서, 60.0%의 부모들이 모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표 15> 10대까지 주 양육자

	빈도	비율(%)
부모	90	59.6
부	3	2.0
모	23	15.2
조부모	9	6.0
형제자매	3	2.0
친척	2	1.3
고아원	7	4.6
자립	11	7.3
기타	3	2.0
계	151	100.0

한편 '부가 2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주 양육자'는 '부모'(30.4%), '모'(28.6%)의 비율이 높고 '자립'(10.7%)의 비율은 낮은데 반하여, '모가 2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부'가 주 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불과하고 '자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3%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10대까지의 생활사에 있어 부가 사망한 경우는 모에 의해 양육되어 주 양육자의 교체가 별반 일어나지 않지만, 모가 사망한 경우는 자립 등의 비율이 높아 주 양육자의 교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6> 20세 이전 부모 사망시 주 양육자

		부가 20세 이전 사망한 경우	모가 20세 이전 사망한 경우
20세 이전 주 양육자	부모	17 (30.4%)	9 (25.7%)
	부	1 (1.8%)	3 (8.6%)
	모	16 (28.6%)	6 (17.1%)
	조부모	7 (12.5%)	5 (14.3%)
	형제자매	2 (3.6%)	1 (2.9%)
	친척	1 (1.8%)	1 (2.9%)
	고아원	3 (5.4%)	2 (5.7%)
	자립	6 (10.7%)	5 (14.3%)
	기타	3 (5.4%)	3 (8.6%)
계		56 (100.0%)	35 (100.0%)

주 양육자와의 교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부랑노인이므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돌아가심'(73.6%)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 양육자와의 교류여부'와 '20세 이전 주 양육자'를 교차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의 생사여부를 알고 있거나 간혹 만나기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양육자가 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로 나타났지만 '주 양육자의 생사를 아예 모르거나 거의 만나지 않는 경우'는 고아원에서 성장했거나 자립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7> 주 양육자와의 교류 여부

	빈도	비율(%)
간혹 만나 대화	8	5.6
살아있지만 거의 만나지 않음	15	10.4
돌아가심	106	73.6
생사를 알 수 없음	15	10.4
계	144	100.0

<표 18> 20세 이전 주 양육자 × 주 양육자와의 교류 여부

	거의 만나지 않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음	돌아가시거나 간혹 만나 대화	
부모	12 (40.0%)	77 (67.5%)	89 (61.8%)
부	1 (3.3%)	2 (1.8%)	3 (2.1%)
모	3 (10.0%)	20 (17.5%)	23 (16.0%)
조부모	3 (10.0%)	6 (5.3%)	9 (6.3%)
형제자매	1 (3.3%)	2 (1.8%)	3 (2.1%)
친척	1 (3.3%)	1 (.9%)	2 (1.4%)
고아원	2 (6.7%)	2 (1.8%)	4 (2.8%)
자립	5 (16.7%)	3 (2.6%)	8 (5.6%)
기타	2 (6.7%)	1 (.9%)	3 (2.1%)
계	30 (100.0%)	114 (100.0%)	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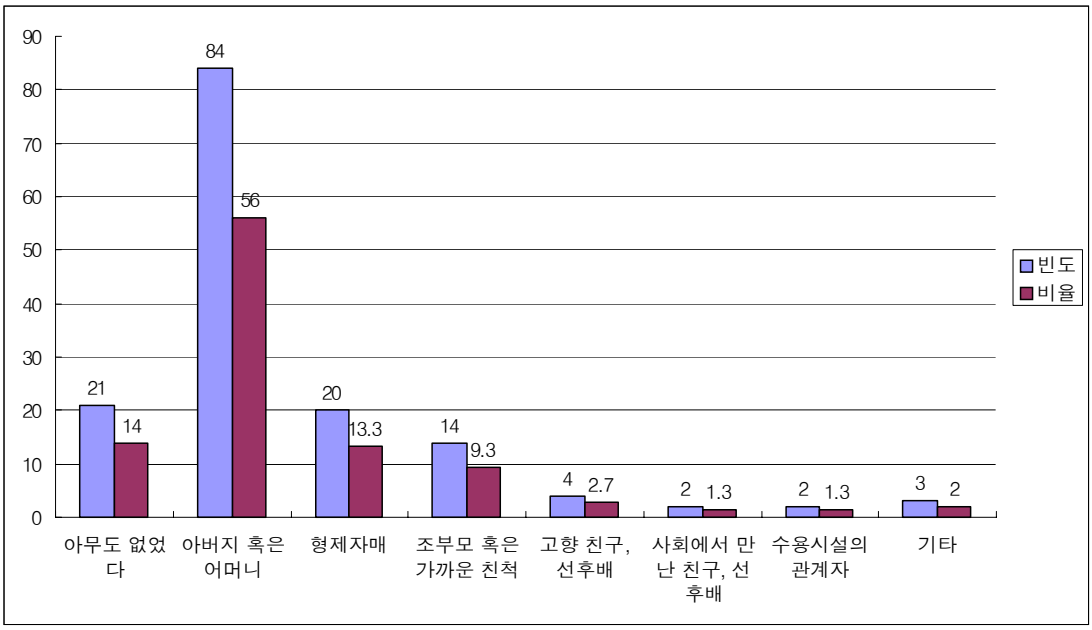
χ^2=.009

‘성장기에 명절을 누구와 보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85.4%로 나타난 반면, ‘혼자 보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이 질문은 우리사회에서 명절은 적어도 가족이나 친척,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의 10대까지 사회적 지지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족, 친척 등의 사회적 지지망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9> 성장기에 명절을 누구와 보냈는가

	빈도	비율(%)
가족이나 친척	129	85.4
고향 친구, 선후배	5	3.3
사회에서 만난 동료나 선후배	3	2.0
혼자 보냈음	12	7.9
수용시설에서 보냈음	1	.7
기타	1	.7
계	151	100.0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응답이 56.0%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나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도 14.0%에 이르렀다.



<그림 5>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

한편 이를 '20세 이전 주 양육자'와 교차 분석한 결과 '20세 이전 주 양육자'가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아원에서 성장했거나 일찍 자립한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세 이전 주 양육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으로 '형제자매'(66.7%), '아버지 또는 어머니'(33.3%), 순으로 꼽았으나, '20세 이전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으로 '아버지나 어머니'(59.1%), '형제자매'(18.2%)를 꼽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20> 20세 이전 주 양육자×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

	부모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고아원	자립	기타	
아무도 없었다	7 (7.8%)	0	3 (13.6%)	2 (22.2%)			3 (42.9%)	3 (27.3%)	3 (100.0%)	21 (14.0%)
아버지 혹은 어머니	68 (75.6%)	1 (33.3%)	13 (59.1%)					2 (18.2%)		84 (56.0%)
형제자매	8 (8.9%)	2 (66.7%)	4 (18.2%)		3 (100.0%)	1 (50.0%)		2 (18.2%)		20 (13.3%)
조부모 혹은 가까운 친척	4 (4.4%)		2 (9.1%)	6 (66.7%)		1 (50.0%)		1 (9.1%)		14 (9.3%)
고향 친구, 선후배	2 (2.2%)						2 (28.6%)			4 (2.7%)
사회에서 만난 친구, 선후배								2 (18.2%)		2 (1.3%)
수용시설의 관계자							2 (28.6%)			2 (1.3%)
기타	1 (1.1%)			1 (11.1%)				1 (9.1%)		3 (2.0%)
	90 (100.0%)	3 (100.0%)	22 (100.0%)	9 (100.0%)	3 (100.0%)	2 (100.0%)	7 (100.0%)	11 (100.0%)	3 (100.0%)	150 (100.0%)

χ^2=.000

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은 '부모 사망'(32.4%), '자신의 결혼'(19.0), '자신의 취업이

나 학업'(1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

	빈도	비율(%)
부 또는 모의 사망	46	32.4
부 또는 모의 가출	3	2.1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1	.7
부 또는 모의 재혼	2	1.4
자신의 결혼	27	19.0
자신의 취업이나 학업	25	17.6
자신의 가출	17	12.0
기타	21	14.8
계	142	100.0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남성은 '부모 사망'(36.2%), '자신의 취업이나 학업'(21.6%), '자신의 가출'(14.7%)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자신의 결혼'(69.2%), '부모 사망'(15.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 가족을 떠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반면 남성은 취업이나 학업 등 자신의 성취를 목적으로 떠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 성별×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

	남성	여성	
부모 사망	42 (36.2%)	4(15.4%)	46 (32.4%)
부모 가출	3 (2.6%)	0	3 (2.1%)
부모 이혼 또는 별거	1 (.9%)	0	1 (.7%)
부모 재혼	1 (.9%)	1 (3.8%)	2 (1.4%)
자신의 결혼	9 (7.8%)	18 (69.2%)	27 (19.0%)
자신의 취업이나 학업	25 (21.6%)	0	25 (17.6%)
자신의 가출	17 (14.7%)	0	17 (12.0%)
기타	18 (15.5%)	3 (11.5%)	21 (14.8%)
계	116 (100.0%)	26 (100.0%)	142 (100.0%)

χ^2=.000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는 ‘20대’(32.9%), ‘10대’(26.2%), ‘30대’(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과 교차분석한 결과,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가 ‘10세 미만’과 ‘10대’라고 응답한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또는 ‘부 또는 모의 가출’ 등 가정환경의 변화 및 ‘자신의 가출’을 가족을 떠나게 된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별로 ‘성장기 관심과 보호’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28>과 같이 일찍 가족을 떠난 경우 성장기에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가 ‘20세 이전인 경우’는 부모의 사망, 가출 등 가정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자신이 가족을 떠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겪었으며, 이는 성장기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어졌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표 23>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

	빈도	비율(%)
10세 미만	13	8.7
10-19세	39	26.2
20-29	49	32.9
30-39	24	16.1
40세 이상	24	16.1
계	149	100.0

<표 24>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가족을 떠나게 된 원인

	10세 미만	10-19세	20-29	30-39	40세 이상	
부모 사망	2 (20.0%)	10 (28.6%)	9 (18.8%)	10 (43.5%)	13 (54.2%)	44 (31.4%)
부모 가출	2 (20.0%)	0	0	0	1 (4.2%)	3 (2.1%)
부모 이혼 또는 별거	0	0	0	0	1 (4.2%)	1 (.7%)
부모 재혼	1 (10.0%)	1(2.9%)	0	0	0	21.4%
자신의 결혼	0	5 (14.3%)	16 (33.3%)	5 (21.7%)	1 (4.2%)	27 (19.3%)
자신의 취업이나 학업	0	8 (22.9%)	13 (27.1%)	2 (8.7%)	2 (8.3%)	25 (17.9%)
자신의 가출	2 (20.0%)	7 (20.0%)	6 (12.5%)	1 (4.3%)	1 (4.2%)	1 (12.1%)
기타	3 (30.0%)	4 (11.4%)	4 (8.3%)	5 (21.7%)	5 (20.8%)	21 (15.0%)
	10 (100.0%)	35 (100.0%)	48 (100.0%)	23 (100.0%)	24 (100.0%)	140 (100.0%)

χ^2= .000

<표 25>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성장기 관심과 보호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		성장기 관심과 보호
10세 미만	평균	3.6667
	N	12
	표준편차	.65134
10-19세	평균	2.5641
	N	39
	표준편차	.96777
20-29	평균	2.0612
	N	49
	표준편차	.96627
30-39	평균	1.7083
	N	24
	표준편차	.80645
40세 이상	평균	1.4348
	N	23
	표준편차	.58977
합계	평균	2.1701
	N	147
	표준편차	1.04274
F-값		16.835

p< .001

1(매우 그럼) - 4(전혀 그렇지 않음)

부모형제의 관심을 받은 정도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69.1%), 교차분석 결과 부모가 존재한 경우는 대부분 관심을 받았다고 답변하여 부모의 존재 여부와 부모형제의 관심 정도를 등치시켜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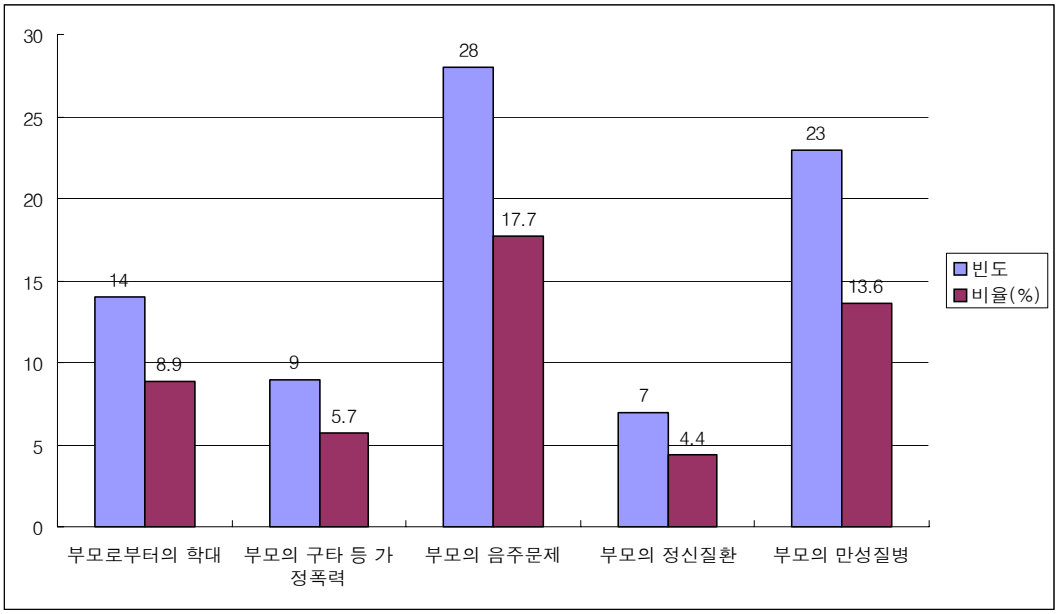
<표 26 > 20세 이전 주양육자 × 성장기 관심과 보호

20세 이전 주 양육자		성장기 관심과 보호
부모	평균	1.8315
	N	89
	표준편차	.86912
부	평균	1.3333
	N	3
	표준편차	.57735
모	평균	1.9130
	N	23
	표준편차	.84816
조부모	평균	3.1111
	N	9
	표준편차	.78174
형제자매	평균	2.6667
	N	3
	표준편차	1.52753
친척	평균	3.0000
	N	2
	표준편차	.00000
고아원	평균	3.5000
	N	6
	표준편차	1.22474
자립	평균	3.4545
	N	11
	표준편차	.82020
기타	평균	3.0000
	N	3
	표준편차	.00000
합계	평균	2.1544
	N	149
	표준편차	1.04445
F-값		8.968

p< .001
1(매우 그럼) - 4(전혀 그렇지 않음)

한편 가정폭력, 부모의 음주, 질병 등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17.7%, '부모의 만성질병 여부'에 대해서는 13.6%, '부모로부터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8.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5.9%가 학대, 가정폭력, 부모의 음주, 부모의 정신질환, 부모의 만성질병 중 한 가지 이상을 겪었으며, 5.7%는 두 가지 이상을 중복 경험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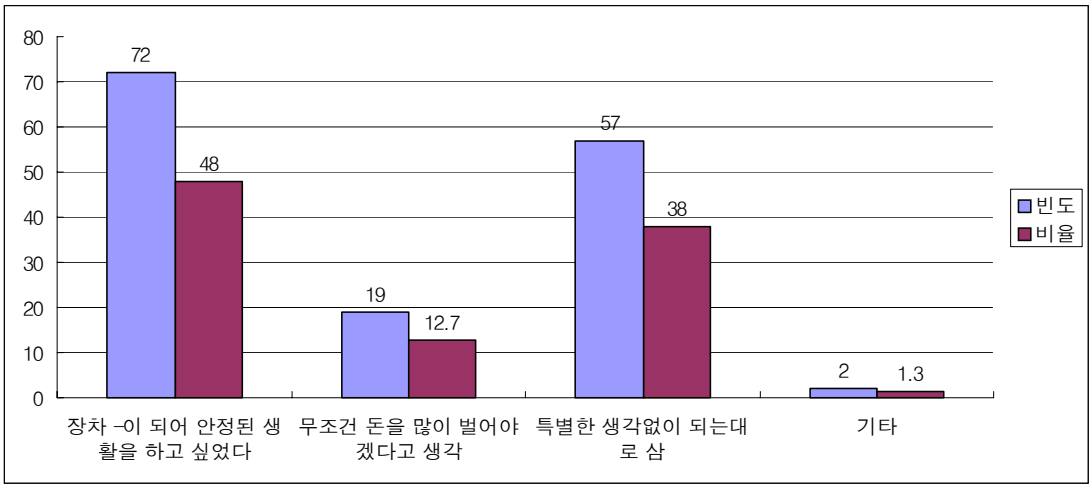


<그림 6>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 여부

<표 27> 경험의 중복정도

	빈도	비율 (%)
없음	117	74.1
한 가지	32	20.3
두 가지	6	3.8
세 가지	3	1.9
계	158	100.0

'성장기 장래에 대한 꿈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48%정도가 '장차 ___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별한 생각없이 되는대로 살았다'는 응답도 38%에 이르렀다.



<그림 7> 성장기 장래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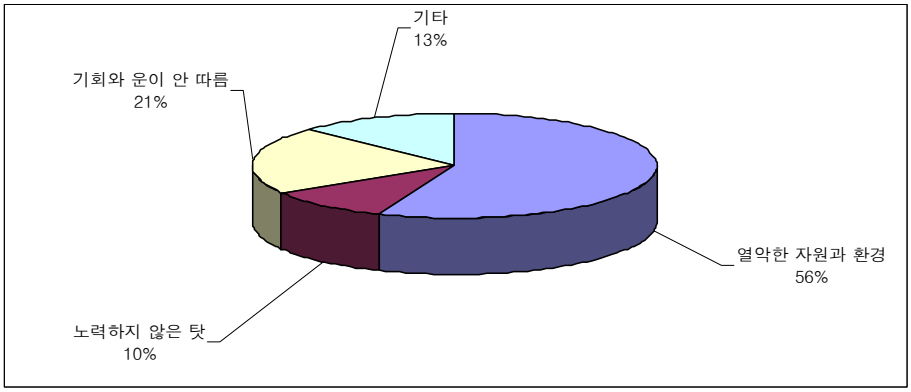
이를 '성장기 가정형편'과 교차분석한 결과 '잘 살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안정된 꿈을 품었으며, '못 살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되는대로 살았다'고 응답했다.

<표 28> 성장기 가정형편×성장기 장래희망

	아주 잘 사는 편	비교적 잘 사는 편	비교적 못 사는 편	아주 못 사는 편	
장차 ( )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다	8 (72.7%)	39 (63.9%)	18 (39.1%)	7 (23.3%)	72 (48.6%)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0	3 (4.9%)	11 (23.9%)	5 (16.7%)	19 (12.8%)
특별한 생각없이 되는대로 살았다	3 (27.3%)	18 (29.5%)	17 (37.0%)	17 (56.7%)	55 (37.2%)
기타	0	1 (1.6%)	0	1 (3.3%)	2 (1.4%)
계	11 (100.0%)	61 (100.0%)	46 (100.0%)	30 (100.0%)	148 (100.0%)

χ^2= .004

한편 ‘성장기에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로는 ‘열악한 환경’(56%), ‘노력 부족’(10%), ‘기회와 운의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성장기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

이를 다시 학력과 교차분석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열악한 환경과 자원을 탓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력 부족이나 기회와 운이 안 따랐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성장기 가정형편에 따라 학력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가정형편은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열악한 자원과 환경에 의해 꿈이 좌절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9> 교육년수×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	
열악한 환경과 자원	46 (71.9%)	16 (66.7%)	7 (28.0%)	0	1 (50.0%)	70 (56.0%)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탓	5 (7.8%)	2 (8.3%)	3 (12.0%)	3 (30.0%)	0	13 (10.4%)
기회와 운이 안 따름	8 (12.5%)	5 (20.8%)	10 (40.0%)	3 (30.0%)	0	26 (20.8%)
기타	5 (7.8%)	1 (4.2%)	5 (20.0%)	4 (40.0%)	1 (50.0%)	16 (12.8%0
계	64 (100.0%)	24 (100.0%)	25 (100.0%)	10 (100.0%)	2 (100.0%)	125 (100.0%)

x^2= .000

(2) 결혼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

결혼 또는 동거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결혼(77.6%), 동거(9.8%), 결혼과 동거 모두(4.2%), 무경험(8.4%)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결혼 또는 동거의 경험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0> 결혼 또는 동거 경험 유무

	빈도	비율(%)
결혼	111	77.6
동거	14	9.8
무경험	12	8.4
결혼과 동거 모두	6	4.2
계	143	100.0

결혼이나 동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수는 91.4%가 1명 또는 2명으로 응답하였다. 즉 결혼생활의 안정 및 지속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를 자주 교체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 배우자 수

	빈도	비율(%)
1명	96	69.1
2명	31	22.3
3명	7	5.0
4명	4	2.9
5명	1	.7
계	139	100.0

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기는 여성의 경우 92.0%가 '29세 이전'이라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일찍 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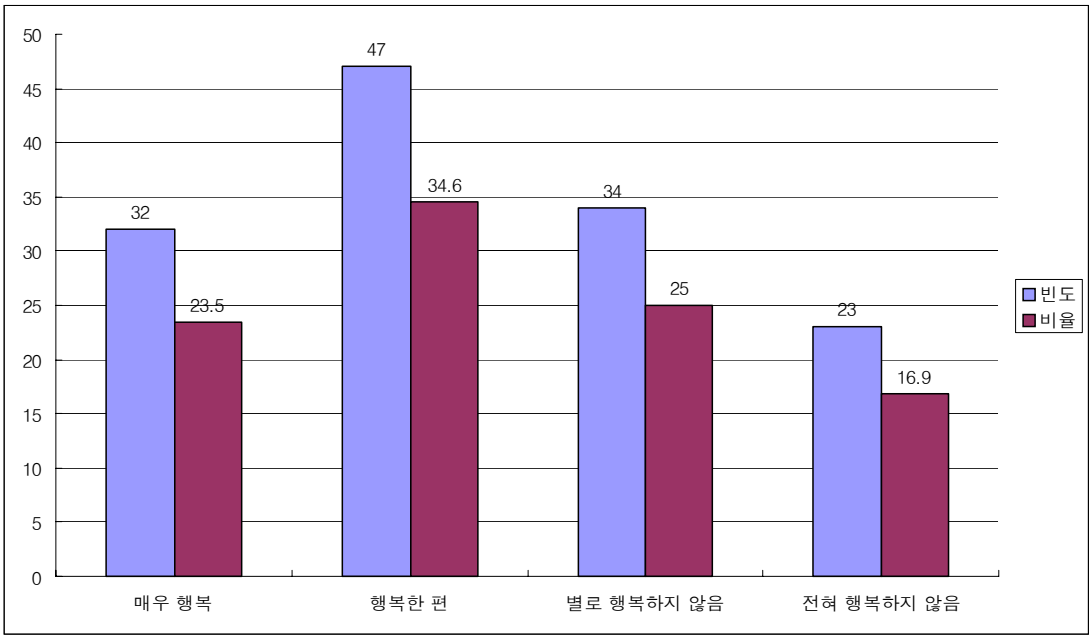
<표 32> 성별×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기

	남성	여성	
19세 이하	5 (4.5%)	8 (32.0%)	13 (9.5%)
20-29	66 (58.9%)	15 (60.0%)	81 (59.1%)
30-39	37 (33.0%)	2 (8.0%)	39 (28.5%)
40세 이상	4 (3.6%)	0	4 (2.9%)
계	112 (100.0%)	25 (100.0%)	137 (100.0%)

χ^2=.000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58.1%가 '행복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남성은 행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데 반하여 여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면서 '군림하는' 입장에 서는 반면,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은 남성의 음주, 외도, 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결혼생활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

<표 33> 성별×결혼생활의 행복 정도

	남성	여성	
매우 행복	30 (26.5%)	2 (8.7%)	32 (23.5%)
행복한 편	39 (34.5%)	8 (34.8%)	47 (34.6%)
별로 행복하지 않음	29 (25.7%)	5 (21.7%)	34 (25.0%)
전혀 행복하지 않음	15 (13.3%)	8 (34.8%)	23 (16.9%)
계	113 (100.0%)	23 (100.0%)	136 (100.0%)

χ^2=.047

결혼생활이 중단된 이유를 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남성은 '합의이혼 또는 별거'(24.8%), '배우자의 가출'(22.9%), '배우자의 사망'(22.9%)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본인의 가출'(38.1%), '합의이혼 또는 별거'(28.6%), '배우자의 사망'(28.6%)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배우자나 본인의 가출에 의한 결혼생활의 중단비율이 전체의 40.0%에 이르고, 가출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 쪽에서 행해지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보인다.

<표 34> 성별×결혼(동거)생활이 중단된 이유

	남성	여성	
시설입소전까지 함께 살았음	10 (9.%)	0	10 (7.7%)
배우자의 사망	25 (22.%)	6 (28.6%)	31 (23.8%)
합의이혼 또는 별거	27 (24.8%)	6 (28.6%)	33 (25.4%)
배우자의 가출	25 (22.9%)	0	25 (19.2%)
본인의 가출	19 (17.%)	8 (38.1%)	27 (20.8%)
기타	3 (2.8%)	1 (4.8%)	4 (3.1%)
계	109 (100.0%)	21 (100.0%)	130 (100.0%)

x2=.053

한편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에 따라 '결혼생활이 중단된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결혼생활이 '행복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시설입소 전까지 함께 살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높은데 반하여, '행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본인의 가출', '이혼 또는 별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인위적으로 결혼생활을 중단한 비율이 높다고 해석된다.

<표 35>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결혼생활이 중단된 이유

	행복했음	행복하지 않았음	
시설입소 전까지 함께 살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1 (419%)	10 (20.%)	41 (331%)
합의이혼 또는 별거	16 (21.%)	16 (32.0)	32 (258%)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출	27 (36.%)	24 (48.0)	51 (41.%)
계	74 (1000%)	50 (100.0)	124 (100.0%)

x^2=.038

한편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게 된 이유를 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남성은 '실직으로 인한 만성적 빈곤'(24.7%), '본인 혹은 배우자의 중대한 과오'(불륜 등..)(22.4%)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질환이나 장애'(31.6%)가 제일 많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오래된 습관'(알콜중독 등)과 '본인 혹은 배우자의 중대한 과오'가 같은 비율(26.3%)로 나타났다. 이 때 습관이나 과오란, 대개 남성측의 알콜 중독, 폭력, 도박벽과 외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이 결혼생활을 먼저 파기하는 경우 그 원인이 대부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외도, 음주 등 외부적인 것으로서 가능하면 참고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가출 등의 방법을 통해 가족을 떠났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 36> 성별×배우자와 살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남성	여성	
실직으로 인한 만성적 빈곤	21(24.7%)	0	21 (20.2%)
사업의 실패	9 (10.6%)	0	9 (8.7%)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질환이나 장애	8 (9.4%)	6 (31.6%)	14 (13.5%)
자녀의 질병 혹은 사망	0	1 (5.3%)	1 (1.0%)
본인 혹은 배우자의 오래된 습관 (알콜 중독, 구타, 도박 등)	11 (12.9%)	5 (26.3%)	16 (15.4%)
성격 차이	8 (9.4%)	0	8 (7.7%)
본인 혹은 배우자의 중대한 과오 (불륜, 범법행위 등)	19 (22.4%)	5 (26.3%)	24 (23.1%)
기타	9 (10.6%)	2 (10.5%)	11 (10.6%)
계	85 (100.0%)	19 (100.0%)	104 (100.0%)

χ^2=.005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남성은 결혼생활이 단절된 중요한 원인을 실직 등 경제적 원인에서 찾는 반면, 여성은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하고 결혼생활이 단절된 원인을 경제외적인 고단함에서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7> 성별×결혼생활의 행복 정도

	남성	여성	
매우 행복	30 (26.5%)	2 (8.7%)	32 (23.5%)
행복한 편	39 (34.5%)	8 (34.8%)	47 (34.6%)
별로 행복하지 않음	29 (25.7)	5 (21.7%)	34 (25.0%)
전혀 행복하지 않음	15 (13.3%)	8 (34.8%)	23 (16.9%)
계	113 (100.0%)	23 (100.0%)	136 (100.0%)

χ^2=.047

또한 '결혼이나 동거를 지속한 기간'별로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결혼이나 동거가 지속된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즉 결혼 지속기간이 짧은 것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결혼생활 대한 기억이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8> 결혼기간×결혼생활 행복 정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행복했음	18 (43.9%)	36 (70.6%)	15 (51.7%)	10(71.4%)	79 (58.5%)
행복하지 않았음	23 (56.1%)	15 (29.4%)	14 (48.3%)	428.6%)	56 (41.5%)
계	41 (100.0%)	51 (100.0%)	29 (100.0%)	14 (100.0%)	135 (100.0%)

χ^2=.042

한편 결혼과 동거의 경험이 전혀 없이 단신으로 생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자의 79.6%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할 상대가 있겠나 싶어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응답하여 자신감의 결여에 따른 체념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9> 결혼하지 않은 이유

	빈도	비율(%)
'나같은 사람과 결혼할 상대가 있겠나' 싶어서 처음부터 포기	10	76.9
상대를 구하지 못해	1	7.7
어릴 때 경험한 가정생활의 환멸 때문	1	7.7
기타	1	7.7
계	13	100.0

(3) 직업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는 '20세 이하'가 20.7%, '21-30세'가 32.9%로 나타났다. 50~60년 전의 시대적 상황이 지금과 비교해 교육 연한이 짧고 노동 진입 연령이 낮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어린 시절을 고단하게 보낸 사람의 비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40> 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

	빈도	비율(%)	누적비율(%)
10세 이하	5	3.6	3.6
11-20세	24	17.1	20.7
21-30세	46	32.9	53.6
31-40	29	20.7	74.3
41-50세	25	17.9	92.1
60세 이상	11	7.9	100.0
계	140	100.0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별로 ‘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를 분석한 결과,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가 빠를수록, ‘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도 빠르게 나타났다. 이를 앞의 분석 결과와 종합해볼 때,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가 20세 이전인 경우 부모의 사망, 가출 등 가정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가족을 떠나거나 가족해체의 경험을 겪었으며, 이는 성장기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일찍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고단하게 삶을 살아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된 시기		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
10세 미만	평균	2.4545
	N	11
	표준편차	1.21356
10-19세	평균	3.1081
	N	37
	표준편차	.73725
20-29	평균	3.5333
	N	45
	표준편차	.66058
30-39	평균	3.1667
	N	24
	표준편차	.91683
40세 이상	평균	3.1905
	N	21
	표준편차	.92839
합계	평균	3.2174
	N	138
	표준편차	.86065
F-값		4.213

p<.01

1(10대 이전) - 5(40세 이상)

20살 이전 주요 직업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단순노무직’이 44.3%, ’단순사무직과 영세자영업’이 8.2%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전업주부’와 ’단순노무직’이 42.9%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직업의 평균 근로기

간은 4.4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살 이전 일찍 가족을 떠나 노동을 시작한 경우 대부분 별다른 기술이나 교육자본을 갖추지 못했기에 당연히 단순노무직이나 영세자영업 등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2> 성별×20살 이전 주요 직업

	남성	여성	
전업주부	0	3 (42.9%)	3 (4.4%)
단순노무직	27 (44.3%)	3 (42.9%)	30 (44.1%)
공장노동자	1 (1.6%)	0	1 (1.5%)
단순사무직	5 (8.2%)	0	5 (7.4%)
단순사무직 보조	4 (6.6%)	0	4 (5.9%)
영세자영업	5 (8.2%)	0	5 (7.4%)
단순사무직	1 (1.6%)	0	1 (1.5%)
기능기술직	3 (4.9%)	0	3 (4.4%)
개인사업	1 (1.6%)	0	1 (1.5%)
소매치기, 절도	1 (1.6%)	0	1 (1.5%)
농업	6 (9.8%)	0	6 (8.8%)
기타	7 (11.5%)	1(14.3%)	8 (11.8%)
계	61 (100.0%)	7(100.0%)	68 (100.0%)

χ^2=.002

한편 20세 이후의 주요 직업도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직'(42.9%), '단순사무직'(16.0%), '영세자영업'(10.9%), 여성의 경우 '단순노무직'(30.8%), '영세자영업'(19.2%), '서비스업 고용원'(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는 사실은 첫째, 20세 이전의 직업, 즉 첫 직업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둘째, 조사대상자인 부랑노인이 주로 1920년대와 30년대 출생했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시기가 1950-60년대 이후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는 농촌이 해체되어가긴 하지만 산업화는 막 시작단계에 불과

하여 개인의 직업선택의 폭 자체가 제한되었다는 점, 셋째, 부랑노인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고, 이는 다시 직업 전선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이다.

<표 43> 성별×20세 이후 주요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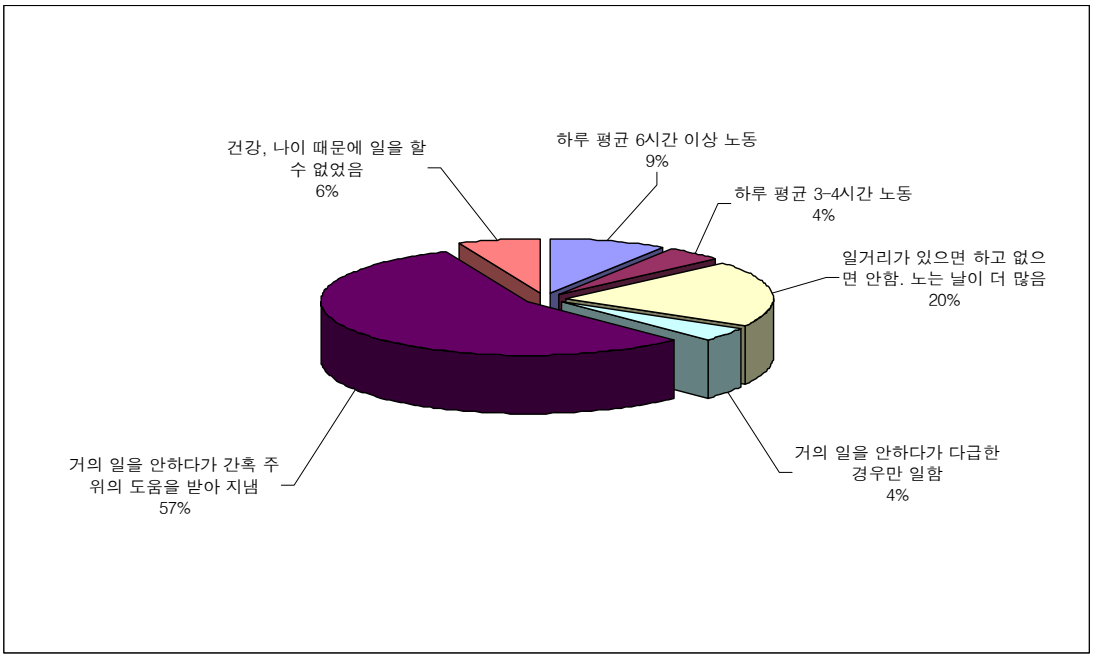
	남성	여성	
전업주부	0	6 (23.1%)	6 (4.1%)
단순노무직	51 (42.9%)	8 (30.8%)	59 (40.7%)
공장노동자	4 (3.4%)	1 (3.8%)	5 (3.4%)
서비스업 고용원	5 (4.2%)	4 (15.4%)	9 (6.2%)
단순사무직 보조	1 (.8%)	0	1 (.7%)
영세자영업	13 (10.9%)	5 (19.2%)	18 (12.4%)
단순사무직	19 (16.0%)	1 (3.8%)	20 (13.8%)
기능기술직	9 (7.6%)	1 (3.8%)	10 (6.9%)
전문관리직	2 (1.7%)	0	2 (1.4%)
개인사업	3 (2.5%)	0	3 (2.1%)
소매치기, 절도	1 (.8%)	0	1 (.7%)
농업	5 (4.2%)	0	5 (3.4%)
기타	6 (5.0%)	0	6 (4.1%)
계	119 (100.0%)	26 (100.0%)	145 (100.0%)

χ^2=.000

현재의 시설에 들어오기 전 근로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지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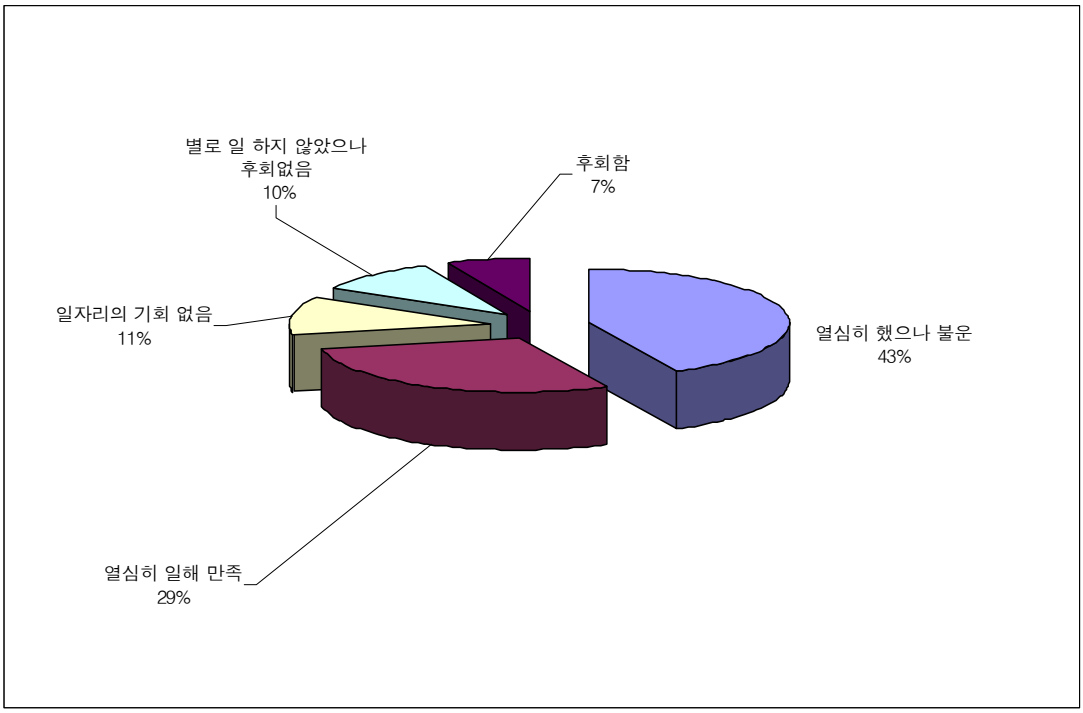
간혹 주위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57%, '일거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함, 노는 날이 더 많음' 20%,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노동' 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응답은 부랑인시설에 들어오기 직전의 근로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평생동안 이처럼 적은 시간을 일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부랑인시설에 들어갈 만큼 이미 노동 의욕이 꺾이고 삶이 불규칙해진 이후의 근로 정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시설에 들어오기 전 근로 정도

지나온 생애에 대한 평가는, '열심히 일했으나 불운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43%), '열심히 일했고 후회도 없다'(29%), '열심히 일하려 했지만 일자리의 기회가 없었다' (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는 스스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고 지금의 처지가 된 것이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11> 지나온 생애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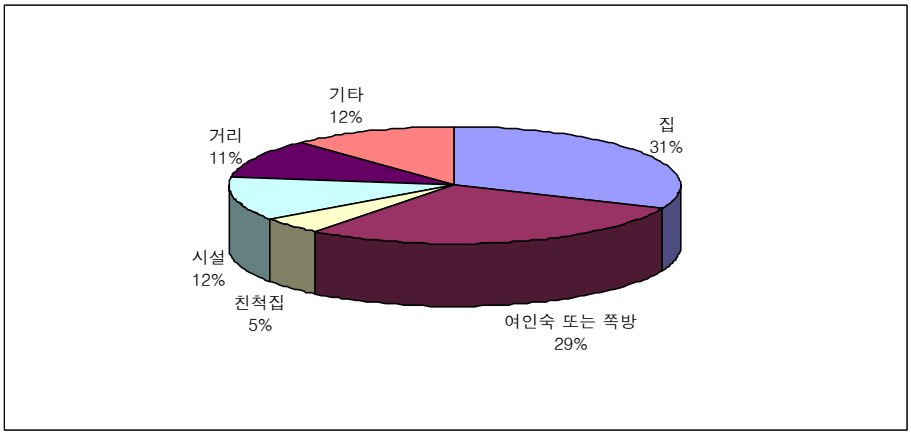
(4) 주거에 대한 분석

생애 기간의 주거 불안정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집', 29.3%가 '여인숙이나 쪽방'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형제나 자매의 집'인 경우도 있고, '월세방'에서 혼자 기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기타'에는 공사현장이나 가게에 딸린 숙소, 가정부의 경우 주인집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거리에서 노숙하다 들어오는 경우는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여인숙이나 쪽방과 같이 극도로 저렴한 주택이 노숙으로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여인숙이나 쪽방은 역 주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여인숙이나 쪽방'에 거주했다는 응답자들이 실제로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시간을 역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로서의 노숙'에 노출된 경우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별로는 노숙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노숙이나 부랑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질환으로 인해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노숙이나 부랑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현재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

<표 44>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성별

	남성	여성	
집	32 (26.0%)	15 (55.6%)	47 (31.3%)
여인숙 또는 쪽방	39 (31.7%)	5 (18.5%)	44 (29.3%)
친척집	6 (4.9%)	1 (3.7%)	7 (4.7%)
시설	18 (14.6%)	0	18 (12.0%)
거리	15 (12.2%)	1 (3.7%)	16 (10.7%)
기타	13 (10.6%)	5 (18.5%)	18 (12.0%)
계	123 (100.0%)	27 (100.0%)	150 (100.0%)

χ^2= .015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은 '1년 이하'가 76.9%로 대부분이나 '10년 이상'된 경우도 9.8%에 이르러 만성부랑화된 경우도 적잖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

	빈도	비율(%)	누적비율(%)
1년 이하	110	76.9	76.9
2-5년	10	7.0	83.9
6-10년	9	6.3	90.2
11-20년	2	1.4	91.6
21-30년	1	.7	92.3
31년 이상	11	7.7	100.0
계	143	100.0	

한편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의 평균값은 6.8년인데 반하여 시설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떨어져 산 것은 평균 21.2년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부랑노인들은 시설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족과 떨어진 후 십 수년 동안을 여인숙, 쪽방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외롭게 살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가족해체 등 부랑을 유발한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부랑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인숙이나 쪽방 생활 등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책적 개입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부랑화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이 시기에 부랑의 만성화,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 입소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을 '1년 이하'와 '2년 이상'으로 구분한 후 이를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와 교차분석한 결과 '1년 이하'의 경우 '집'(36.7%), '여인숙 또는 쪽방'(26.6%) 순으로 나타나고 '거리노숙'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입소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집'의 비율이 6.1%에 불과하고 '거리노숙'이 2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볼 때 시설입소자의 대부분은 '시설 입소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이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부랑의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시설 입소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주지

	시설 입소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시설 입소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집	40 (36.7%)	2 (6.1%)	42 (29.6%)
여인숙 또는 쪽방	29 (26.6%)	13 (39.4%)	42 (29.6%)
친척집	6 (5.5%)	1 (3.0%)	7 (4.9%)
시설	14 (12.8%)	4 (12.1%)	18 (12.7%)
거리	7 (6.4%)	9 (27.3%)	16 (11.3%)
기타	13 (11.9%)	4 (12.1%)	17 (12.0%)
계	109 (100.0%)	33 (100.0%)	142 (100.0%)

χ^2=.002

한편 '현재 시설에 거주한 기간'은 '1년 이하'가 64.7%, '11년 이상'도 8.7%에 이른다. 이렇듯 거주 기간이 장기화하는 원인으로 가족 결합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현실적 조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랑노인들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돌봄을 받기 위해서라도 시설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시설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결혼이나 동거가 지속된 기간'별로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없이 생활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나 동거가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생활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높을수록 부랑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결혼기간×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

결혼기간		시설에 들어오기전 거처없이 생활한 기간
10년 이하	평균	1.9756
	N	41
	표준편차	1.50811
11-20년	평균	1.4082
	N	49
	표준편차	.95565
21-30년	평균	1.1852
	N	27
	표준편차	.78628
31년 이상	평균	1.0000
	N	14
	표준편차	.00000
합계	평균	1.4962
	N	131
	표준편차	1.13255
F-값		4.450

p<.01

1(1년 이하) - 6(31년 이상)

한편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살았던 편인가, 아니면 이곳 저곳을 자주 이동하며 살았던 편인가를 질문한 결과 63.1%가 '한 곳에 오래 정착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랑인들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인 기질이나 가족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부랑이 잦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표 48> 정착 여부

	빈도	비율(%)
한 곳에 오래 정착한 편	94	63.1
이곳 저곳을 자주 이동	55	36.9
계	149	100.0

(5) 설문분석이 주는 시사점

성장기의 가족 경험 즉, 가정형편, 양육자로서 부모의 존재 및 역할 수행 여부 등

은 조사대상자의 학력 및 직업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 설문분석 결과,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가 '20세 이전인 경우', 즉 일찍 가족원과의 이별이나 가족해체의 경험을 겪은 경우, 부모의 사망, 가출 등 가정환경의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는 성장기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기 가정형편'은 '성장기의 장래희망'과 연관을 가지는데, '잘 살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안정된 꿈을 품었으며, '못 살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되는대로 살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열악한 환경과 자원을 탓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력 부족이나 기회와 운이 안 따랐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 차이는 성장기 가정형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기 가정형편은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열악한 자원과 환경에 의해 꿈이 좌절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생활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는 결혼 또는 동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행복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행복했다'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하여 여성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생활이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면 배우자나 본인의 가출에 의한 결혼생활의 중단 비율이 전체의 40.0%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주로 여성의 가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여성이 결혼생활을 먼저 파기하는 경우 그 원인이 대부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외도, 음주 등 외부적인 것으로서, 가능하면 참고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가출 등의 방법을 통해 가족을 떠났던 것으로 해석된다.

부랑노인의 직업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처음 노동을 시작한 시기, 즉 노동 진입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음 가족을 떠나 살게 된 시기'가 이를수록, 노동 진입 연령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업은 20세 이전이나 20세 이후나 큰 차이 없이 단순노무직과 영세자영업 등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이들이 일을 시작한 시기가 1900년 대 중반으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상당수의 부랑노인들은 가족과 헤어진 후 곧장 부랑화되지 않고 시설에 들

어오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여인숙, 쪽방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외롭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여인숙이나 쪽방 생활 등이 가족해체→부랑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나 동거가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시설에 들어오기 전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높을수록 부랑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심층분석 결과

(1) 남성 부랑인의 생활력(生活歷)

① 생애의 굴절시점

생애사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각 사례마다 생활의 패턴이 크게 굴절되는 시점이 발견된다. 즉, 비교적 평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삶의 의욕과 노동의 의지를 상실하면서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삶의 방식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굴절시점'은,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부랑의 길로 들어선 사람의 경우에는 매우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삶이 굴절된다는 의미는 곧바로 거리로 나가 노숙을 하고 구걸을 한다든지, 부랑인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후에 노숙이나 떠돌이 생활로의 전락을 확연하게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심리상태와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활방식(주로 노동의 종류나 주기, 일상생활의 규칙성, 정주성(定住性) 등)이 크게 바뀌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각 사례의 생애 주기 전반을 살펴보면, 이 같은 '굴절시점'은 개인에 따라, 10세 이전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사례마다 다르다. 따라서 의욕을 상실하고 이전에 비해 불규칙한 노동과 생활패턴으로 떨어지는 과정, 즉 삶이 굴절되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서부터 매우 급격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보통 생애의 굴절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1)부모로부터의 지지관계 상실

(부모의 사망, 모의 가출 등), (2)배우자(특히 아내)의 상실(사망, 이혼, 가출, 별거 등), (3)실직, (4)경제적 실패 (사업 실패, 증권투자 실패, 빚 보증, 사기 등), (4)건강의 상실 (질환이나 장애의 발생) 등이다. 이들 직접적인 동기들은 각기 독립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사례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해 건강을 상실함으로써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실직을 해서 이혼을 당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한편, 알콜 중독의 문제는 술이 일차적인 동기가 되기보다는, 위의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차 탐닉하다가 다른 동기를 유발하는 이차적 원인이 되거나 (실직에 따른 좌절⇒알콜 탐닉⇒가정 불화⇒부부관계 해체), 심리적 좌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배우자의 사망⇒알콜 탐닉)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흔히, 가족 부양의 의무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과 직업 활동상의 좌절, 결혼생활의 실패에 따른 상실감을 잊기 위해 알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고 중독의 정도가 심해지면 인생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여성의 생애사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과 사회관습상의 남녀간 성 역할의 차이 때문에 남성이 알콜에 많이 노출되고 의존하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

② 굴절시점 이전까지의 생활력의 유형

아동기부터 생애의 굴절이 일어나는 시점까지의 생활력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사례간의 공통된 특징 및 경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음 다섯 개의 항목을 선정해서 각기 세 가지로 척도를 나누었다.

a. 직업의 안정성

1) 중간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을 유지하면서, ①한두 곳의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혹은 ②사회적 수요가 높은 기술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같은 업종의 일에 꾸준히 종사한 경우. (예: 공무원, 공기업이나 민간 대기업에 근무한 경우 등)
2) 중하 정도의 수입이 유지되고 사회적 수요가 꾸준한 기술을 이용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도 업종을 바꾸지 않고 간헐적이지만 비교적 지속적

으로 종사한 경우. (예: 운전기사, 제화공, 양복재단사 등)

3) 비정규직 업종이나 비공식부문에 취업해서 수입이 낮고 불안정하며, 노동 주기가 단속적(斷續的)이고 업종 변경이 잦은 경우. (예: 고물 수거, 건축인부, 행상 등)

b. 성장기의 경제 형편

1) 경제수준 중상
2) 경제수준 보통
3) 경제수준 빈곤

c. 성장기의 애정 및 보호 정도

1) 높았음
2) 보통
3) 방임 / 학대

d. 배우자와의 결합도

1) 한두 명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헤어지기(혹은 사망하기) 전까지 큰 갈등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
2) 한두 명의 배우자와 결혼 생활은 지속했으나 갈등이 잦고 정서적 친밀도가 낮았던 경우.
3) 이혼과 재혼, 혹은 동거를 반복하여 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동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경우.

e. 친족의 지지관계

1) 형제자매 혹은 부모가 생존해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작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우.
2) 형제자매 혹은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관계가 소원한 경우.
3) 형제자매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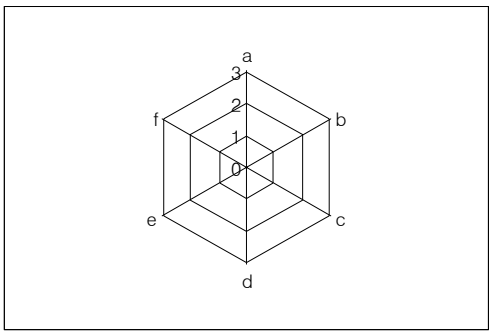
이에 덧붙여 (1)에서 언급한 '굴절시점'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f. 굴절시점

1) 46세 이상

2) 20세~45세

3) 19세 이하로 척도화 하였다. 이상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생활력의 특징 비교 모형

A. 20세 이전의 가정환경이 양호했던 경우

A-1. 경제적 실패로 중년 이후에 일시에 몰락한 유형

(A-1-가) 심현복(64세)씨[18] 사례

『1938년 강원도 양구에서 5남2녀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당시 이북지역이었는데, 해방 후(9살)에 춘천으로 이사를 왔다. 춘천으로 이사한 뒤 아버지는 춘천사범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집안 형편은 당시 다른 집들에 비해 매우 좋았고 박씨는 막내아들이라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심씨의 어렸을 적 꿈은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춘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청소년기 역시 부족함이 없었다. 서울로 상경해 가톨릭신학대학 철학부를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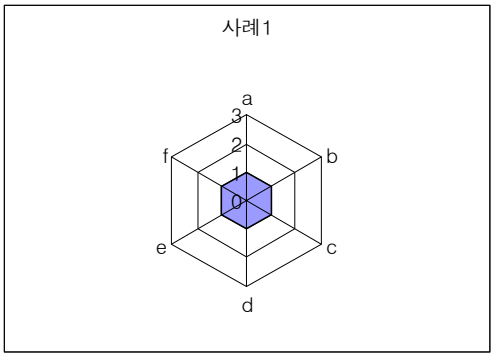
30살에 대한석유공사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살았다. 33살에 결혼해서 3년 후 첫 딸을 낳았다. 딸이 2살 되던 해에 울산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온 식구들이 울산으로 이사했다. 거기서 아들과 둘째 딸을 낳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결혼생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면서 50대까지 줄곧 울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심씨가 57살이던 1994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울산에는 심씨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 때부터 그는 증권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부채가

18) 이하의 사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명은 가명(假名)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직장도 그만두고 부인과도 이혼하게 되었다. 61살 때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어서 이혼한 뒤 심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서울 이 곳 저 곳을 떠돌아다니며 지냈다. 가족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다. 62살에 노숙자상담센터를 통해 영등포 '자유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2개월 정도 지내다가 '희망의 집'으로 옮겼다. '희망의 집'에서는 계속 공공근로 일을 하였다. 일주일마다 공공근로 임금을 타면 술을 마셨다. 어느 날 아침, 목이 너무 잠겨 보건소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후두암'이라고 했다. 수술을 받기 위해 2000년 현재의 시설로 오게 되었고 '보라매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로는 건강한 상태다. 심씨는 현재 시설의 요양동에서 도서실 사서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공기업에 25년간 근무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과 소득을 유지했고(a=1), 성장기의 가정형편이 중간 이상이었으며(b=1), 부모로부터 받은 애정과 보호의 정도도 높았고(c=1), 굴절시점까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결합도도 높은 편이었고(d=1), 유일한 혈족인 여동생과 현재도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미루어 굴절시점 이전까지는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e=1). 그리고 인생의 굴절시점은 투자 실패로 가산을 날리는 57세이다(f=1). 그의 일생은 전반적으로 매우 평탄하고 순조로왔으나 50대 후반에 경제적 실패로 해체된 경우이다.

심현복씨 생활력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심현복씨 사례

(A-1-나) 송봉환(67세)씨 사례

『1935년 충남 예산에서 3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향 마을 입구에 있는 충신문, 효자문, 열녀문은 모두 우리 집안의 조상들을 기려서 세워진

것이다. 우리 집안이 뼈대있는 가문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많지 않은 농사를 지었으나 부모님의 교육열은 대단해서 6남매를 모두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다. 부모님은 엄격하셨으나 자식들을 정말 아끼는 분들이었다. 또한 가족 간의 의리와 화목을 무엇보다 중시하셨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남다른 애정을 받고 자랐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본 적도 없고, 나름대로 가정의 한 부분을 책임지려고 노력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산에 올라가 솔방울을 모아, 다음날 새벽같이 지게를 지고 시장에 나가 솔방울을 팔아서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며 중학교를 마쳤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열심히 공부한 덕에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농고를 마치고 군에 입대해서 24살에 제대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재건최고위원회」에서 간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국회의원, 군수 등 지역유지들의 추천서를 받아 무난히 채용됐다. 1961년 11월부터 만 2년 넘게 간사로 일하다가, 국가재건위원회가 민간기구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1964년부터 전매청 예산지역 담당 공무원으로 발령이 났다.

국가재건위원회에서 일할 때 위원장 비서로 일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도 공무원이 되는 쪽을 택해, 같은 해에 예산군 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30살에 결혼하고 맞벌이 직장생활을 계속했다.

직장생활은 순조로웠고 상도 많이 탔다. 자녀들도 문제없이 잘 컸고, 중년에 이르러 직급이 높아지고부터는 지역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로타리클럽 회장직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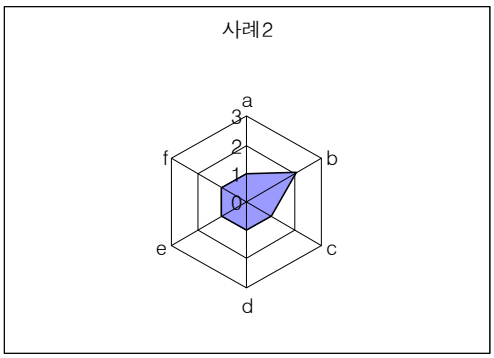
1995년, 60살의 나이로 정년 퇴직하기까지 인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부인도 함께 퇴직을 해서 넉넉한 노후자금이 있었다. 그러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친하다고 빌려주고, 친척이라고 보증 서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꾸어주었다. 1999년 드디어 금융사고가 터졌다.

책임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섰던 보증이 잘못된 것이다. 결국 집은 경매로 처분이 되고, 남아있던 모든 재산도 보증을 섰던 곳으로 빠져 나가버렸다.

부인은 친구집으로 가서 얹혀 지내고, 아들 둘은 직장을 찾아 떠나고, 송씨는 친구집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1년여를 보냈다. 더 이상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기가 어려워 고물상을 하는 사촌을 찾아갔다. 고물 야적장에서 나무판으로 바람만 막고 잠을 자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당뇨병을 무릅쓰고 힘들게 리어카를 끌었지만 담배 값 정도 밖에 벌 수 없었다. 일생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복지관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의 노숙자 쉼터를 찾아왔다.』

중농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화목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해서(b=2, c=1) 학교를 마치고 전매청 공무원으로 근무, 정년퇴직했다(a=1).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퇴직금, 연금 등을 친척들에게 빌려주고 빚 보증을 섰다가 3년 전 금융사고가 터져 가족이 흩어진 경우이다. 굴절시점은 정년퇴직을 하고 난 64살이고(f=1), 그

때까지는 부부관계도 튼실했다(d=1).



<그림 22> 송봉환씨 사례

(A-1-다) 문국주(71세)씨 사례

『1932년 경기도 양평에서 3남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는 면장 일도 보았다. 뿐만 아니라 학부형회 회장이기도 해서 학교에 자주 오는 바람에, 어린 시절의 문씨는 학교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아버지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평탄하게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의 「조선방직」에 취직했다. 군대는 면제받았다.

아버지는 그가 27살 되던 해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하더니 3년 후 돌아가셨다.

이듬해, 6살 아래의 여성과 결혼하여 1남3녀를 두었다. 직장생활은 안정적이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다. 36살에 공장이 변두리로 이전한다 하여, 「국제상사」로 직장을 옮겼다.

성품이 성실했던 그는 정년퇴직 시기가 거의 다 되어 「국제상사」를 퇴직했다.

퇴직 후 곧바로 「국제상사」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 하나를 할애 받아서, 그것을 생산할 조그마한 전세공장을 차렸다. 기계도 구하고 시설도 했지만 원래 넉넉한 자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시작 단계부터 자금이 모자랐다. 다달이 수입은 있었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 어음 할인도 받고 사채시장에서 돈도 빌려 빡빡하게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이듬해에 「국제상사」가 부도 나고, 납품한 물품대금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났다. 부도액은 약 1억원 정도였다. 공장의 자재와 기계에 압류가 들어왔고, 직장생활하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방 3칸짜리 집마저도 압류딱지가 붙었다. 심지어 딸아이의 피아노도 압류되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도, 감당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채무도 있지만 채권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작은 단칸방 하나를 구해 가족들을 모이게 하였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바람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던 그는 결국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왔다. 큰딸은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었고 둘째딸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였으며, 아들은 중학교를 중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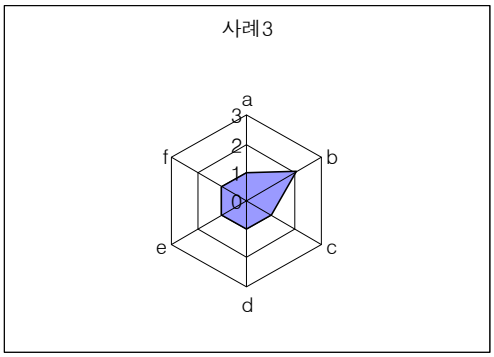
집을 나온 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일정액을 송금하였고, 부인은 파출부 생활을 시작했으며, 큰딸 또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우울한 환갑잔치를 하고 난 며칠 후, 서민금고 직원들과 채권자들이 또 다시 찾아왔다.

예전에 그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대구 칠성시장에서 신발가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받으러 대구로 내려갔다. 부인에게는 '대구에 내려가서 빚 받으면 보내 줄께'라고 말하고 나왔다.

*그러나 칠성시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 가지고 간 돈마저 다 쓰게 되자 동대구역을 서성이게 되었다. 술을 마시며 그 곳의 노숙자들과 어울려 생활하다가 어느 날 순찰차에 실려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시설 내 자활센터에서 회전의자 부품을 조립하며 5년간 생활했다. 가족을 찾으려고 전에 살던 집에 연락하였으나 이사를 해서 찾을 수가 없었다. 추운 겨울날 가족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외출증을 끊어 퇴소했다. 부산에서 헤매던 중 발을 헛디뎌 눈바닥에 넘어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 갔다. 그 곳에서 옛날 주민등록증을 보고 경찰들이 수소문 끝에 가족을 찾아주었다. 놀란 부인과 큰딸, 사위가 찾아왔다. 그 때까지 가족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퇴원했지만, 그가 마음 편히 있을 자리가 없었다. "내가 누울 자리가 없더라……. 딸하고 사위가 방 하나 딸린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손녀도 둘이나 되니 있을 곳이 아니더라…. 집사람은 아들이 중국 간 후 며느리와 단칸방에 살면서, 며느리가 돈 벌고 마누라는 손주 봐 주는 기라예. 그 곳도 누워 잘 자리가 없더라." 그는 다시 집을 나와야 했다. 결국 그는 서울로 올라와 노숙을 하게 되었다. 술 마시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구급차에 실려 부랑인시설에 들어갔다. 그는 신체가 건강한 편이어서 한 정신질환 입소자의 간병 임무가 맡겨졌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 가족들한테로 가겠다고 말하고 나왔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또 다시 서울역에서 1주일 정도 노숙하다가 상담센터 소개로 경기도 산중의 쉼터에 가게 되었는데, 할 일이 없고 무료해서 또 나왔다. 상담센터를 다시 찾아가 일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시설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해, 현재의 양로원에 오게 되었다. 가족들한테서는 가끔씩 연락이 온다. "집사람은 합치자는 얘기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더라…. 아들이 2~3년만 좀더 고생하라고 얘기하더란다. 아들이 중국에서 생활비 보내고 있고 며느리도 법원에서 타이프 치며 돈을 버니 조만간 작은 아파트 하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만……" 』

앞의 사례와 똑같은 유형이다. 중류의 가정에서 성장해서(b=2), 부모로부터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c=1), 정년퇴직 무렵까지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a=1) 부인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했으며(d=1), 형제들도 있었다.(e=1) 50대 후반에 벌인 개인사업의 실패가 굴절의 동기이다.(f=1)



<그림 23> 문국주씨 사례

(A-1-라) 홍기훈(76세)씨 사례

『제주도에서 7남매 중 넷째로, 아들로서는 장남으로 귀하게 성장했다. 집안은 부농으로 잘 사는 편이었다. 누나들과는 내내 사이가 좋았으나, 부모님은 남녀를 차별해 주로 재산을 아들인 자기에게만 상속해주었다. 오늘날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 과정을 제주도에서 나오고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다녔다. 같은 시기에 누나들은 돈 벌러 일본에 들어갔다.

20대에 접어들면서 4·3사태로 제주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많이 죽고 시체가 넘쳐났다. 많이 배운 사람은 좌익 성향이 있다며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1947년에 군에 입대했다. 헌병대에 근무한 덕에 친척들의 목숨도 많이 구했다. 6·25 전쟁 때 북진해서 이북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15살~17살 먹은 전쟁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보호하기도 했다. 1·4 후퇴 때 그들을 다 데려올 수 없어서 몇 명만 군복을 입혀 간신히 데려왔는데, 그 중 중강진 출신의 한 소녀가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자살소동을 벌였다. 성격이 사나울 정도로 강했지만 무척 예쁜 소녀였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홍씨가 27살 되던 해에, 20살이 된 그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님과 재산이 모두 제주도에 있었지만, 그녀가 내려가기를 거부해서 주로 서울에서 생활했다. 결혼생활은 행복했다. 전쟁이 끝나고도 직업군인으로 전환해서, 대위로 예편할 때까지 18년 넘게 군에 있었다. 군에 있으면서 밀수를 했다. 일본에서 사업하는 누님한테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형식이었다. 예편한 뒤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군용트럭을 불법으로 빌려 탄광에서 생산된 탄을 운반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군부대에 일정액을 떼어주고 나도 꽤 괜찮은 벌이가 되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한편으로 다방을 경영했다. 다방은 서울로 이주해와서도 계속했는데, 정동, 충무로 등지에서 부인이 직접 운영했다. 생활력이 강하고 똑똑한 부인은 자식들을 중국학교에 보낼 정도로 교육에 특별한 신경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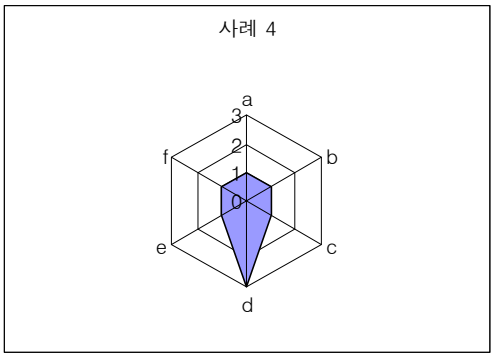
부인이 다방을 하는 동안 홍씨는 일본에서 사업하는 누님들의 일을 도왔다. 홍씨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 부적절한 관계도 여러 차례 있었다.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누님들과 동생들이 있는 일본에 가서 2년을 살다 왔다. 일본에서는 누님들이 모두 사업으로 성공했고, 동생들도 살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홍씨 자신도 몇 년 후에는 일본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님들의 사업도 도울 겸, 이주 준비도 할 겸, 2년을 지내다 온 것인데, 돌아와 보니 일방적으로 이혼처리가 되어 있었다. 깜짝 놀라 온갖 사정과 설득을 다 해보았지만 부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이혼 후에도 꿋꿋이 혼자 사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19] 손발이 닳도록 빌고 사정했지만 끝내 설득을 못하고 42살에 이혼했다. 부인은 자녀들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여 그녀가 키우기로 하고, 홍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었다.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혼자가 된 후로는, 제주도로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 고향에는 아직 땅이며 재산이 남아 있어 동장 일을 보면서 8년을 홀로 살았다. 60살 넘어서, 7년 연하의 대구 여자를 소개받아 동거를 시작했다. 3년을 같이 살면서 그녀는 사업을 한답시고 큰 술집을 운영했는데, 홍씨의 토지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잠적해 버렸다. 집 문서며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는 줄을 홍씨는 모르고 있었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그는 그녀를 찾아 3년여 동안 대구, 부산 등지를 헤매고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여관을 전전하면서 험한 생활을 하다보니 나중에는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 갔다. 창피해서 형제들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어서 구청의 주선으로 현재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 곳에 온 후로 일절 연락을 안 했다. 자식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직업군인으로, 다방을 경영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직업의 안정성, 성장기의 가정형편 및 보호 정도, 친족의 지지관계 등은 양호했다. 다만, 이혼 이후에 노년에 만난 동거녀가 경제적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19) 편집자 주 : 이북 출신인 부인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혼 직후 제주도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유사시에 귀향에 불리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우려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렇다면 일본으로의 이주는 부인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림 24> 홍기훈씨 사례

A-2. 실직으로 인해 굴절된 유형

(A-2-가) 염종호(70세)씨 사례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3살 때 부모님과 일본으로 건너가 11년 동안 살다가 해방 후, 다시 돌아왔다. 가정형편은 좋은 편이었고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매우 밝고 긍정적이다. 친척들과도 왕래가 잦았다.

16살에 광주농업학교에 진학했다. 당시 농업학교는 6년제였는데, 4학년인 19살 때 학도병에 입대했다가 그 해 제대하고 21살에 졸업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건축 사업을 하는 이모부의 권유로 현장감독 일을 하셨다. 직접 노동은 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그런 영향인지 오씨도 나중에 술에 탐닉하게 된다.

21살에 광주 한국전력 내연발전소에 들어가 3년간 일하다가, 근무지를 서울로 옮겨 마장동 발전소에서 기계를 담당하며 17년 정도 근무했다. 발전소에 근무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2년 차이를 두고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발전소에 근무한 지 17년째 되던 어느 날, 전기 감전 사고로 팔을 다쳐서 부득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 때가 30대 말이었다. 그 후 오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대전의 과실주 공장으로 내려갔다. 사과주 담그는 일을 시작했다. 이 무렵 결혼을 했다. 결혼 생활은 양쪽 모두에게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과실주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주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 전에는 술을 별로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발전소를 그만 둔 후로는, 모든 기분 나쁜 일을 술로 풀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아무 데서나 자는 버릇이 생겼다. 술 때문에 가정불화가 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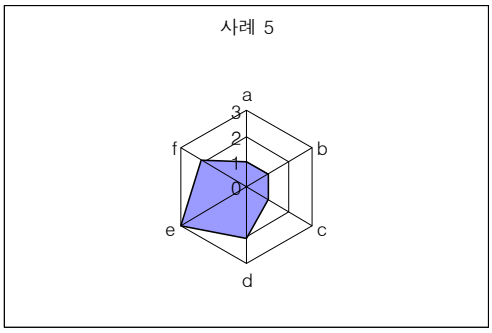
과실주 공장에서 일한 지 약 3년 만에 공장이 부도나면서 오씨는 다시 실직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벽돌공장에서 리어카를 끄는 등, 갖가지 노동일을 하게 되었다. 결국 실직과 잦은 음주로

인해 부부간의 다툼이 빈번하던 끝에 40대 중반에 별거를 하게 된다. 처는 아들 3형제를 데리고 전농동 아파트로 이사가 버렸다. 이러한 별거 상태는 5년 후 처가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처가 죽자 김제 사는 처형이 아이들을 데려 갔다. 오씨는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감히 데려올 엄두를 못 냈다. (그 후로 자녀들을 단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큰아들만 자신을 기억할 뿐, 다른 자녀들은 알아보지도 못했다) 자녀들을 보낸 후 계속 술을 마셨다.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살면 얼마나 산다고?'하는 생각에 자제를 할 수 없었다.

친구집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얹혀 지냈다. 이모가 운영하는 여관에서도 며칠 지냈다. 일은 손에 닿는대로 '노가다' 일을 했다. 40대 중반부터 15년여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 68살 때 청량리 역전에서 술을 마시다가 현재의 시설로 보내져 2년째 생활하고 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자식들과 함께 살고픈 생각이 든다. 아들들과 함께 살다 죽는 게 소원이다.』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평온한 유년시절을 보내고(b=1, c=1) 6년제 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전력의 발전소에서 17년간 근무했다(a=1). 감전 사고로 팔을 다쳐 38살에 직장을 잃고 친구가 운영하는 과실주 공장에 취직했으나 이마저 부도가 나서 43살 때부터 공사판 잡부 등 막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전력을 그만 둔 후로 술이 늘어 알콜 문제로 부인과 다툼이 잦아졌고 마침내 40대 중반에 헤어졌다. 이후 60대까지 불안정한 노동과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다 노숙에 이르렀다. 염씨의 경우, 생애의 굴절시점은 실직을 거듭한 끝에 공사판 일을 시작하는 43살 때였다. 이 이전까지는 A-1 유형처럼, 여유 있는 집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서 안정된 직장을 유지한 경우이다. 그러나 그는 독자(獨子)로서, 위기가 닥쳤을 때 의지할 수평적 지지망이 없었다는 사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3)



<그림 25> 염종호씨 사례

A-3. 20대에 직업능력을 성취하지 못한 유형

이 유형은 성장기의 가정환경이 유복하고 교육도 웬만큼 받았으나, 위기 대처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20대 초반에 갖추지 못함으로써 앞의 A-1, A-2의 유형과 달리, 매우 불안정한 노동으로 일생을 일관한 경우이다.

(A-3-가) 구백민(68세)씨 사례

『강원도 태백에서 5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내내 이 곳에서 보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부모 및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특히 막내였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 큰형과는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서 형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 50리 떨어진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마을 어귀의 내(川)를 건너야 했는데, 형수가 업어서 건너주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장을 맡아 동네 경조사에 찾아가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 장례식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난 뒤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사망 당시, 형과 누나들은 다 출가한 상태였고, 그래서 어머니와 김씨 단둘이 살게 되었다. 집안의 재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후에도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둘째와 셋째 누나가 김씨의 청소년기에 사망했으나, 그 외의 형제들은 (통나무를 어깨에 매고 옮기는) 목두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둘째형을 제외하고 다들 건장하게 잘 살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편이었다. 큰형은 경찰서 형사과장이었고, 셋째 형은 광산을 운영했다. 고등학교를 무난히 마쳤고 교우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24살에 학병으로 군대에 가, 논산훈련소 정훈참모부에 있었다. 당시 정훈참모부의 경우, 대학에 다니는 것이 허락돼서 전북대학교 이리 분교로 화물차를 타고 다녔다. 3년 2개월 만인 27살에 제대하고 집에 얼마 있다가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다. 김씨가 서울로 올라온 후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혼자 사셨다. 서울에서는 이런 저런 궂은 일들을 했다. 세탁공장에서도 일했고, 농장에서 닭이며 돼지도 길러보았다.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형제들은 이미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리는 데 여념이 없어서, 김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는 없었다. 김씨는 돈을 모을 줄 몰랐고, 돈에 대한 욕심도 크게 없었다.

서울 올라오던 해에 최씨 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다. 딸 둘을 낳았는데, 7년만에 헤어졌다. 결혼생활 내내 부부간 불화가 깊었는데, '회사에 갔다오면 아내가 밥도 제때 안 해주고, 바깥 외출도 너무 잦아서'였다. 그러나 이혼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실직 때문이었다.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내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경비원으로 취직해 있을 때는 살만 했고 집도 장만했었다. 이혼할 때 자녀는 김씨가 맡았고, 서울을 떠나 고향인 강원도 일대를 떠돌며 살았다. 통리에 있는 둘째 형수님 댁이나 도계에 있는 셋째 형수님 댁에도 잠깐씩 머물렀고, 기차 터널 파는 현장에서 막일을 하기도 했다.

강원도에서 37살 때, 두 번 째 결혼을 했다. 두 번째 처는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눈도 온전치 않았지만 결혼생활에 불만은 없었다. 워낙 '장모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재혼할 때 김씨는 전처 소생의 딸들을 둘째 형수님에게 보내고, 자신만 처가에 들어가 살았다. (이후 김씨는 한번도 딸들을 만난 적이 없다. 형수가 사망한 후에는 행방을 모른다)

재혼 3년 만에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의 두 번 째 결혼생활도 끝이 났다. 그 후로는 여자와 살아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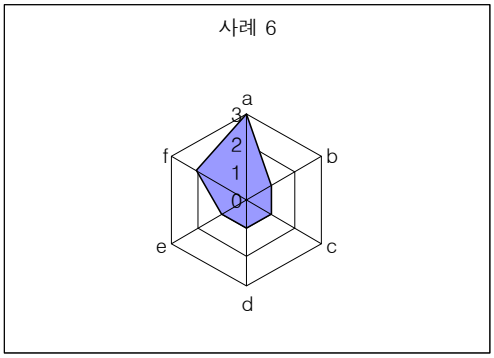
두 번째 처가 사망한 후 김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여러 곳을 전전하며, 경비원, 양계장(양돈장) 잡부로 일하면서 살았다. 60살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일이 힘들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62살 무렵, 월 15만원에 청량리 여인숙에서 생활하면서 그 근처 한양빌딩에서 경비원 생활(월급 75만원)을 하고 있었는데, 가스총 오발 사고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 다음부터 '탈선'했다.

술 마시고 싸우다 젊은 사람을 폭행한 죄로 3년간 교도소를 다녀왔다.

출감 후 돈도, 집도 없어서 시청을 찾아가 갱생원에 보내달라고 청했다. 현재 시설에서의 생활은 불편한 게 없지만, 나가서 경비원 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

구씨는 지방대학을 나왔음에도, 처음 직업을 갖게 된 20대부터 경비원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에 진입함으로써 평생동안 유사한 직업력을 갖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경우이다. 다른 조건은 A-1과 유사하다.



<그림 26> 구백민씨 사례

(A-3-나) 오경훈(66세)씨 사례

『부농 집안의 4남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7살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오씨에 대해 이해심이 넓은 아버지셨지만, 그림에 빠지는 것만큼은 상당히 못마땅해 하였다. 아버지는 오씨가 법조인이나 한의사가 되길 바랬다. 그러나 오씨는 그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지방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25살 무렵 서울로 상경했다. 한 차

원 높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서울에서 허병련, 김종철 선생 등 밑에서 그림을 배웠다. 자식을 말려보려던 부모님도 결국은 그의 뜻에 굴복했고, 마침내 오씨는 국전에도 등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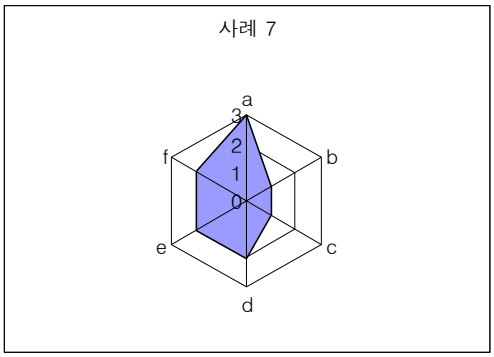
27살에 결혼을 해서 그 이듬해 아들도 낳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는 작품활동을 한다며 집에는 별반 들어가지 않은 채, 방랑생활을 계속 했다. 그는 동양화를 그렸는데, 이를 위해 절에 들어가 상당기간 있기도 했고, 30대에는 영화 단역생활을 한동안 하기도 했으며, 부산에 내려가 주먹세계에 몸을 담근 적도 있다. 아버지는 그가 30살 무렵에 돌아가셨다.

거의 처자를 내팽겨둔 채 떠나고 싶은 대로 떠나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연이 얽히는 대로 여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돈을 아쉬워하지도 않으면서 살았다. '돈을 쓸 줄은 알았지만 벌 줄은 모르며' 살았다. 40대 말쯤, 1985년 서울미전에서 대상으로 입상하였고, 3년 후에는 "오○○"이라는 예명으로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떠돌며 살아가던 중, 오씨가 57살 되던 해에, 갑작스런 사고로 아내와 아들(당시 31살)이 한날 한시에 사망했다. 처자를 단번에 잃고 난 후 그제서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결혼 후 계속 된 자신의 방랑생활과 여자 문제 등으로 처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살았던 자신의 과거가 뼈저리게 후회스러웠다. 처자를 잃은 후 한 6개월 동안은 밀려오는 회한으로 술에 빠져 살았다. 술 마시고 그림만 그리다 죽겠다며 17일 동안을 방 안에 박혀있기도 했다. 그러다 마비증세가 시작되었고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는 차라리 죽자 싶어 방 안에 누워 며칠 간을 그대로 있었는데, 마침 근처 다방주인이 들렀다가 그가 실신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라매병원으로 옮겼다. 5일 후 현재의 시설로 오게 되었다. 57살 때였다. 지금은 그래도 건강이 많이 회복돼 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다. 손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시설 내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었는데, 최근에 그 공간이 없어져 섭섭해하고 있다.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통해 뒤늦게 그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의 생애 굴절시점은 가족이 사망한 57살 때이지만, 이미 20대부터 직업다운 직업을 갖지 않고 계속 떠도는 생활을 해온 셈이다.



<그림 27> 오경훈씨 사례

B. 불우한 환경에서 조기에 부랑아가 된 유형

앞에서 본 (A-1-가)의 유형과 정반대 되는 유형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고 방임되거나 학대받다가 가출해서 일찍이 떠돌이 생활을 한 경우이다. 대부분 직업의 안정성이 낮고 부정기적인 근로 형태를 보인다.

(B-가) 남충일(62세)씨 사례

『부산에서 1남1녀 중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2살에 가출했고 남씨는 이 사실을 6살에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진 어머니의 존재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5살이 될 때까지 일본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때까지 그는 할머니, 누나와 셋이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무척 엄한 존재로 가까이 하기 어려웠다. 부산 안에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으나, 경제적인 형편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7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이 때부터 누나는 고모집에 보내져 식모살이를 했고, 그 후론 누나와 함께 산 적이 없다. 남씨는 계모에게 한 번도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그의 상습적인 가출이 시작되었다. 집을 나가서 깡통을 들고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다 몇 번씩 아버지에게 붙들려 집으로 갔다가 다시 가출하곤 했다. 그의 성격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다.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면서도 누구에게 무얼 달란 소리를 제대로 못 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사흘 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다.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가출을 반복하는 생활이 이어지던 중에, 9살 때 계모가 집안 재산을 다 빼돌리고 사라졌다. 가산을 그렇게 날린 후로 그의 가족은 이불 한 채 달랑 들고 이 곳 저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

10살 때쯤이었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이제는 아버지하고 너하고 할머니밖에 없는데 다시 네가 또 집을 나가면 그 때는 이 아버지하고 영영 안 보는 것으로 생각해라. 나도 널 다시는 안

찾을테니 그리 알아라'고 했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재혼하는 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했다. 그는 구두통 하나를 만들어 집을 나와버렸다. 그것이 가족과 맺은 인연의 끝이다. 그 후 한 번도 가족을 만난 적도, 찾아본 적도 없었다.

그 후로 거리를 떠돌아다니다 아동보호소에도 잡혀가고, 농예학원이라는 곳에도 갔다. 고아원에서는 배가 고파서 오래 못 있고 한 2~3년 있다가 튀어나가 거리에서 '오야붕'들에게 밥이나 얻어다 주고 지내다, 다시 아동보호소 잡혀가기를 반복했다. 당시에는 고아원 원장들이 배급을 받기 위해 머리 수 채우는 데 혈안이 돼서, 인원이 필요한 곳으로 '배차'하는 (팔아치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해서 배차된 곳이 성지유아원이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곳에서도 또 도망 나왔다. 7살 이후 시작된 상습적인 부랑으로 '한 군데 꾸준히 붙어있질 못했다'. 돌아다니다가 15살 때쯤 수영대생보육원에 또 잡혀갔다. 그 보육원에서는 소화도 안 되는, 밀밥에 버터인지 치즈인지를 비빈 밥을 주었다. 거기서 2년쯤 있다가 18살 무렵 다른 고아원으로 '배차' 되었는데 그 곳에서 두 눈이 퉁퉁 부어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심한 눈병이 걸린 적이 있었다. 1961년 거리생활 중에 그 눈병이 또 심하게 재발했다. 거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곳의 '개비짱'이라 불리던 어른이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다. 남씨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그렇게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그 사람 잊지를 못해요. 약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부모, 그런 부모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 정말 고마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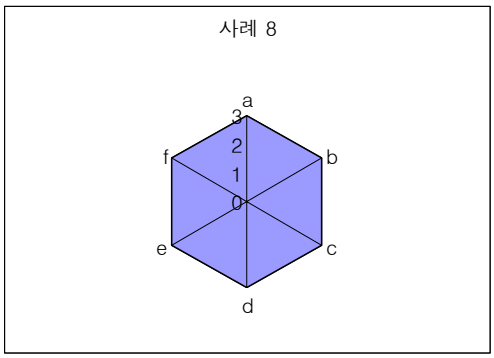
부산 서부경찰서에 잡혀 그 당시 부산에 생긴 '자활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부랑아들을 전부 잡아서 자활대에 보내고 있었다. 그의 나이 20살 때였다.

그 때부터 줄곧 망태 지고 종이 줍는 일을 했다. 어려서부터 소심한 성격이라 도둑질이나 남을 속이는 짓은 못했다. 자활대를 나온 후 자신과 같은 '거지들'이 사는 (움)막에서 생활했다. 물론 한 막에서 오래 눌러 붙어있지는 않았다. 이 막 저 막을 계속 옮겨가며 살았다. 같은 막에 있는 사람과 맘이 안 맞으면, 괜히 싸우고 그러느니 막을 옮겨버리곤 했다. 1977년, 37살에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무적자였던 그는 6만원의 비용을 들여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서울에 온 후에도 그런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다. 중곡동에서 재건대 생활을 했다. 재건대를 떠돌며 지내다 44살에 난지도로 갔다. 쓰레기 파서 고물 고르는 일을 했다. 51살에 김포로 이동했고, 경기도 이천을 거쳐, 여주의 코카콜라 쓰레기 나오는 곳에도 있어 봤다. 상암동의 공사판에서 일당 2만6천원을 받고 잡부로 일한 적도 있다. 그러다 54살에 당뇨에 걸렸다. 당뇨로 인해 약간씩 있던 풍도 함께 덮쳤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목을 맸으나 미수에 그쳤다. 월세 5만원짜리 방을 유지할 수 없어 마지막 남은 재산 6만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서부이촌동 다리 밑에서 노숙을 했고 술을 많이 마셨다. 다리 밑에 살면서 먹을 게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천주교회에 가서 밥을 얻어먹곤 했다. 그 즈음 천주교회에서 청소일을 하던 노인 한 분이 그에게 현재의 시설을 알려줬다. 그 길로 57살에 입소했다.』

2살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7살 때 아버지가 재혼한 후, 집에 있기가 싫어 상습적으로 가출과 귀환을 반복하다 10살 때 완전히 가출해버렸다(b=3, c=3). 여동생과는

이 때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e=3). 아동보호소와 고아원을 전전하다 넝마를 줍는 재건대에 들어가 살았다. 44살 때 난지도로 옮겨와 쓰레기 파는 일을 했는데(a=3) 50대 중반에 당뇨와 중풍이 엄습했고, 자살기도가 미수에 그친 후 57살에 거리로 나왔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에 평생 여성을 미워하고 불신하면서 독신으로 살았다(d=4). 그의 인생은 10살 무렵 굴절이 이루어진 후, 한 번도 안정된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면적이 앞의 사례들에 비해 가장 넓다.



<그림 28> 남충일씨 사례

(B-나) 천성휘(65세)씨 사례

『전북 순창에서 7남매의 맏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천성휘씨가 15살 무렵, 동생을 낳다 돌아가셨다. 유년기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살 정도로 부유했다. 많은 토지에 일꾼을 시켜 농사를 짓는 부농이었다.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셔서 집에는 늘 술 항아리가 몇 개씩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 역시 모주꾼이었는데, 집에는 할아버지가 계시니 주막에 가 살다시피 했다. 매일 아버지를 찾아 주막에 가는 것이 어린 천씨의 일과였다. 아버지는 도박에도 손을 대, 집안 재산을 많이 축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곧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는 결혼 경력이 있는 여성으로 전 남편 소생의 딸들이 항상 집에 와 있었다. 그들이 갈 때 이것 저 것 들려보내고 재산을 뒤로 빼돌린다고 결국 할아버지는 그녀를 쫓아냈다. 아버지는 천씨가 19살 때, 예전에 주막을 하던 여인과 서울로 떠나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천씨는 가출 버릇이 생겼다. 집에 있기가 답답하고 농사일은 신물이 나서, 읍내에 나가 가게의 심부름이나 잡일을 해주고 밥 얻어먹고 자다가, 2~3개월만에 돌아오곤

했다. 간혹 나무로 허름하게 지은 기차역사에서 자기도 했다. 처음 가출했을 때, 보리밭에서 보리를 눞혀 깔고 자던 날 밤은 평생 잊지 못 할, 불행한 기억이다. 이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밤새 눈물지었다. 이 시기 동생들도 비슷한 생활을 했다.

19살 때 무작정 상경했다가 청량리 근처에서 군기피자 단속에 걸려 강제징집을 당했다.

제대 후 잠시 고향에 들렀다가 무작정 광주로 갔다. 비포장 자갈길 100리를 걸어서 갔다. 가는 길에 분유통에 손잡이를 달아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를 만나, 천장이 없는 돼지 막사 모양의 콘크리트 건조물에서 반년을 같이 생활하고 또 무작정 부산으로 떠났다. 가다가 사람을 만나 '어디 뭐가 있다더라' 하면 죽 따라가는 식이었다. 부산에서 얼마동안 걸인처럼 지내다 강원도로 향했다. 역시 길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이 강원도 탄광에 친구가 있다고 해서 따라나선 길이었다.

어려서부터 한 노동은 주로 심부름의 수준이었다. 2년 남짓 탄광에서 한 일도 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캐온 탄을 선별하는 작업이었다. 삼척, 묵호, 주문진 등에서 배를 타고 싶었지만 허약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오징어 건조장의 허드렛일 밖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32살에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한다. 그냥 저냥 의지하며 살만한 여자였다. 혼인 신고까지 하고 아이 둘을 낳았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 갑갑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자 천씨는 가출하는 버릇이 생겼다. 두세 달 집에 있다가 훌쩍 떠나 7~8개월 후에 돌아오는 식이었다. 결혼상태가 유지된 것은 12~3년 정도지만, 결혼한 지 6개월부터 시작한 가출이 계속 반복돼서, 실제 같이 산 기간은 모두 2~3년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나가서는 노숙하며 떠돌았고 집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변변한 일을 한 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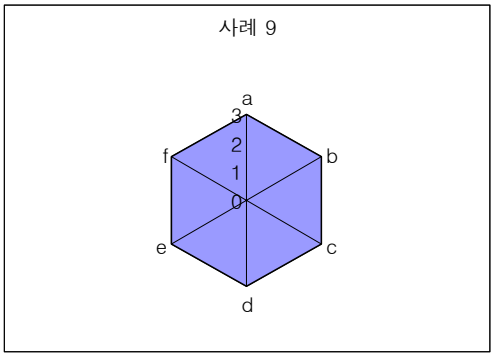
둘째 아이 낳을 때는 난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부인이 임신중독증이었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았다. 가족이며 친구가 없으니 보증도 세울 수가 없었고, 결국 동네 이장이 이웃 사람들에게 갹출해서 병원비를 치렀다.

가출을 반복하다가, 20여년 전 마지막 가출 때 행려병자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경찰에 넘겨지고, 갱생원이었던 현재 시설로 다시 보내졌다. 40대 중반 무렵이었다. 그 후 7~8년 있다가 가족을 찾아갔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현재까지 생사를 모른다. 시설에 들어와서도 수없이 들락날락 했다. 답답하면 나가고 노숙생활을 하다 다시 경찰차에 실려 들어오는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 했다.

현재 생활은 답답하다. 더 늙기 전에 나가서 경비원이라도 하면서 지내고 싶다.』

15살 때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는 두 번 더 재혼을 했고, 천씨는 집을 나가 2-3개월씩 방랑하다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b=3, c=3). 제대해서 고향에 잠깐 들른 후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 방랑 중 만난 사람을 따라 강원도 탄광에 가서 탄 선별작업을 했고 기술은 못 배운 채 허드렛일만 계속했다(a=3). 32살에 친구 소개로 결혼했으나 6개월 뒤부터 '답답해서' 가출했다가 7-8개월 후에 돌아오곤 했다

(d=3). 45살 때 행려병자로 처리되어 갱생원에 입소한 후 여러 시설을 전전하고 입·퇴소도 거듭했다. 천씨는 15살 때 생애의 굴절이 일어났고, 정착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일찍부터 방랑벽이 만성화된 경우이다. 앞의 (B-가)와 같은 유형이다.



<그림 29> 천성휘씨 사례

(B-다) 고영국(64세)씨 사례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함께 컸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어머니는 육군 부대에서 군복을 재봉질하는 피복 담당 군속으로 일했다. 그러다 불미스러운 일로 군에서 쫓겨 나와 부산의 한 보육원의 보모로 일하면서 고씨 남매를 키웠다. 고씨는 초등학교만을 졸업했다. 어렸을 때는 병치레를 많이 해 어머니가 고생했다.

23살쯤 되었을 때 군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병대에 지원, 입대를 했다. 처음 포항에서 6개월 근무하다가 백령도로 발령 받아 갔는데, 그 곳 선임하사관과 사이가 나빴다. 결국 선임하사관을 때려 대구교도소에서 3년 간 복역하고 1974년에 출소했다. 출소 후 부산역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못된 짓을 했다. 상습적으로 휘발유를 훔쳐 팔았는데, 그렇게 4~5년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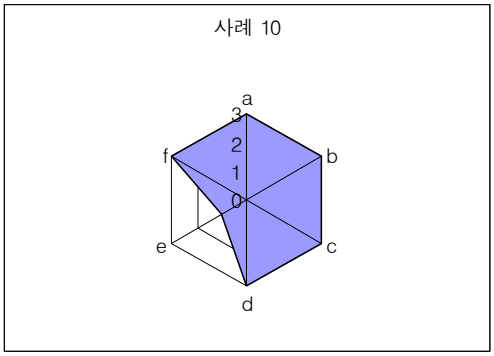
29살에 결혼을 해 아들을 낳았다. 부인은 고아 출신으로 일가붙이가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부인이 직장을 다니고, 그녀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다. 그러나 젊은 기운에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과 싸우는 일이 잦았고, 결국 2년 만에 쉽게 헤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가 된다. 갓난쟁이 아들은 누나한테 갖다 맡겼다. 그동안 술 마시고 다니느라 아이에게 깊은 정이 들 사이도 없었지만, 아이를 떼어놓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가슴이 아팠다.

31살 때, 금성라디오의 기판에 부품을 납땜하는 일을 했다. 2년 정도 하청을 받아다가 했다. 당시에는 벌이도 괜찮았고 술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다 친구가 섬유공장의 청원경찰(경비)로 취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하던 일도 그만둔 채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렸지만 결국 취직은 성사되지 않았다.

40대에는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누나한테 신세를 지곤 했다. 그러던 중 역전에서 노숙을 하다가 '형제원'에 들어가게 됐다. '형제원'에서 3년 간 지냈는데, '경비지도'라는 역할을 맡아 완장 차고 밖을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형제원'에는 3,650명이 수용돼 있었고, 고씨와 같은 감시인원만 약 50여 명이었다.

1988년 부산 '형제원'에서 현재의 시설로 오게 됐다. 술 마시고 퇴소를 했다가 삼랑진의 다른 시설에서 7개월을 지내고 현재의 시설로 재입소 했다. 1995년에는 이 곳에서 두 번째 퇴소를 했는데, 이 때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나가 영등포역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받아주면서, 그들과 같이 노숙생활을 했다. 그러다 역사에서 돈을 도둑 맞고 무일푼이 되자 다시 시설로 돌아왔다. '이제는 나가면 내 목숨 내가 끊는 것을 아니까' 나가지 않는다.』

성장기에 어머니가 있었으나 고씨가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것으로 미루어 충분한 보호자 노릇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을 키우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보내고 이후에도 극히 불안정한 노동으로 일관한다. 일찍이 가출해 부랑아로 떠돌게 된 앞의 사례들과 거의 유사한 유형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누나가 아들의 양육을 맡아줄 정도로 약간의 지지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림 30> 고영국씨 사례

(B-라) 설기범(65세)씨 사례

『1938년 일본에서 도요타 엔진 공장의 공장장으로 계셨던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3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다고 한다. 설기범씨가 6살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후 어머니는 3남매를 데리고 경상북도 고향으로 왔다가 다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있는 만주로 건너갔다. 8·

15 해방이 있기 1개월 전, 일본 경찰의 정보과 형사였던 큰아버지를 통해 조선이 곧 해방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전 가족이 경상북도로 돌아왔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들을 조부모께 맡기고 집을 나갔다.

설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돈이 없어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녔다.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배우며 아동기를 보냈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곧 포기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자신이 모셔야겠다는 생각으로 큰집에서 마련해준 조그만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20살 때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금 농사일에 전념했다. 26살 때 매파가 한 여자를 중신했는데, 그 여인이 '성당에 다녀야만 결혼하겠다' 하여 영세 받고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알고 보니 그녀는 간질 환자였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 동안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설씨는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았으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대구에서 건축일을 배우게 되었다. 도면 읽기, 설계 등을 배우면서 28살에 월급이라는 것을 처음 받았다. 그러나 돈은 벌어도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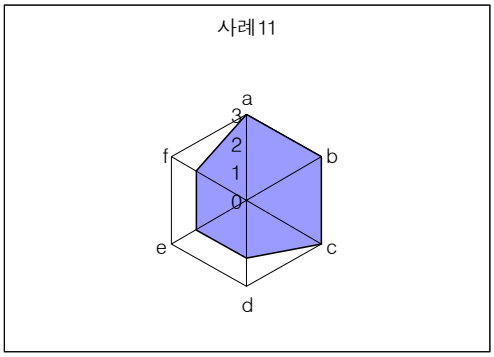
33살에, 8살 차이가 나는 부인을 얻어 새살림을 차렸다. 건축일은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생활이 좀 힘들었지만 부인과의 관계는 원만해서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살았다. 이 때가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42살에 장모님이 사망하자 처가에 살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득이 그의 가족은 장인과 처남만 있는 처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했던 설씨는 일감이 없어 쉬는 날이 있었고, 특히 겨울철에는 노는 날이 많았는데 이 때부터 처가식구들의 구박이 시작됐다. 영하 12~13도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에 냉방에서 4개월 정도를 혼자 지내야 했고,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 "그 여자가 그렇게 독한 여자라요" 설씨는 당시의 부인을 그렇게 회상했다. 장인은 딸의 그러한 행동을 야단치기보다는, "밥 주지 마라. 돈도 못 버는데 뭐하로 밥을 주노."라며 한 술 더 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해동한 후 일주일 동안 막일을 해서 번 돈으로 부산의 오촌 당숙을 찾아갔다. 44살 때였다. 발이 넓은 당숙의 주선으로 어떤 학교의 임시 서기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오래 근무하지 못했다. 6개월 후 다시 대구로 올라와 목수일을 시작했다. 10년 넘게 목수로 일하면서 혼자 지냈다. 일감이 많은 한철이 지나면 노는 날이 많아서 별로 돈을 모으지 못했다. 여자들을 볼 때마다 자기 부인 모습이 떠오르고, '여자는 모두 독한 것'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 늘 여자를 멀리하게 됐다.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어 방세가 다 떨어졌고, 결국 거리로 나와 6개월 동안 구걸을 하며 살았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56살 때)에 자살할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달성공원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중 어느 날, 건축일을 같이 하던 친구가 경찰에 연락해서 의료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당뇨라

는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해 있다가 현재의 시설로 들어왔다. 입소한 지 7년째이다. 4년 전에, 하나 남은 남동생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았으나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여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데, 자연스레 큰집, 작은집에 가서 작은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을 만나곤 한다. 가끔 자식들 (큰아들이 무슨 회사 다닌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음) 생각이 나지만, 지난 날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자식한테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런 편이나 동료들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컸으나 설씨가 일찍이 부랑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것은 조부모와의 관계 때문이다. 조부모가 성장기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으므로, 완전한 가정 해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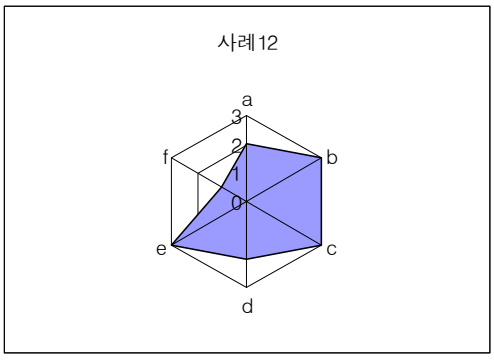


<그림 31> 설기범씨 사례

그러나 비슷한 성장환경을 거쳤어도 20대 이전에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요가 있는 기술을 습득한 경우는, 중간 수준일망정 소득이 꾸준히 확보되고 단속적(斷續的)일 수는 있으나 한 가지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약간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애의 굴절시점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다음 두 사례는 (B-가), (B-나)와 유사한 환경을 가졌으나 운전기술과 제화기술이 있어 위기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우이다.

(B-마) 이천호(64세)씨 사례

『독자로 태어나 형제가 없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8살 무렵 외가에 맡겨졌다. 외가에 맡겨지고 난 뒤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중풍이 발병하여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외가에서는 21살에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살았다. 외가에는 이모 두 분과 그 자녀들 7~8명이 다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대가족이었다. 그 안에서 형제가 없던 이씨는 외로움을 많이 탔다. 특히 사촌들은 부모와 함께 있어 그렇지 않았는데, 이씨는 작은 잘못에도 외조부에게 심한 질타를 받아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교육이란 마땅히 그렇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외조부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자녀를 낳으면 절대 혼내지 않고 귀하게 키우겠다'고 결심했다(b=3, c=3, e=3). 뭔가 한 가지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4살 때부터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처음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일이었고, 이후로도 평생동안 구두일을 했다. 21살에 결혼하여 상경한 후 남매를 낳았다. 부인과는 38년을 같이 살았지만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d=2). 동네에서 작은 구두방을 운영했는데(a=2), 일의 스트레스도 풀고 부인과의 불화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며칠씩 낚시를 다녀오면, 부인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속 편하게 낚시나 한다'고 더욱 화를 냈다. 이씨의 가정은 스스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의 권위도, 식구간의 애정도 없는 집'이었다. 자녀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그렇게 후회될 수 없다. 아들을 방임해서 키운 탓에 무분별한 생활을 일삼는 망나니가 되었고, 아들은 결국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두 다리를 절단해 불구가 되었다. 조그만 가게를 내주었지만 그것마저 안 하겠다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전혀 자립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이씨는 50대 말에 중풍에 걸린 후 집을 나와 천주교회 소개로 시설에 입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그림 32> 이천호씨 사례

(B-바) 남종근(62세)씨 사례

『1941년 전남 광주에서 5남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노점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꼭 어머니와 싸움이 일어났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커서 아버지가 되면, 내 자식을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항상 장사에 지쳐있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었다. 남씨는 공부를 잘 해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집안이 워낙 어려워 1학년 때 중퇴하였다.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선배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남대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 곳에서 선배를 따라 다니면서 구두닦이, 신문팔이를 했고 파출소에서 청소도 했다. 그 때까지는 짬짬이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해 볼 생각이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주로 미아리, 길음동, 돈암동 하숙집에서 생활하였는데 방 2개에서 10명 정도가 함께 기거했다. 종로 3가와 4가에 창녀촌이 있었는데 그 곳의 창녀인 한 누나로부터 귀여움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 봐도 참으로 예쁜 누나였다.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별로 모으지 못했다. 여자애들이 많이 따랐는데, 한참 멋 내는 것을 좋아해서 씀씀이가 헤펐다. 별 생각 없이 그 날 그 날에 만족하며 살았다. 술과 여자, 낚시를 좋아하던 시기였다. 18살 이후에는 구두닦이를 그만 두고, 선배가 운영하는 평화신문 보급소에서 일했다. 하지만 숙소는 여전히 돈암동의 쪽방 같은 하숙집이었다.

1960년 4·19때, 조금 배운 권투 기술로 호기를 부리다 남을 때린 것이 잘못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도망가는 심정으로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 고생스러운 군대 생활을 3년 만에 끝내고 운전기술을 배웠다.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시발택시를 운전했다.

27살 때 여자를 만나 아들을 낳았으나 곧 헤어졌다. 그 후 또 다른 여인과 동거하다가 결혼을 하고, 전처 소생 아들까지 2남1녀를 데리고 오순도순 살았다. 부인은 택시기사 월급이 적다고 술장사를 시작했는데, 부인의 발언권이 세지고 다툼이 잦아지면서 마침내 39살 때 이혼했다. 직접적인 동기는 남씨의 외도였다. (남씨의 여성관계는 복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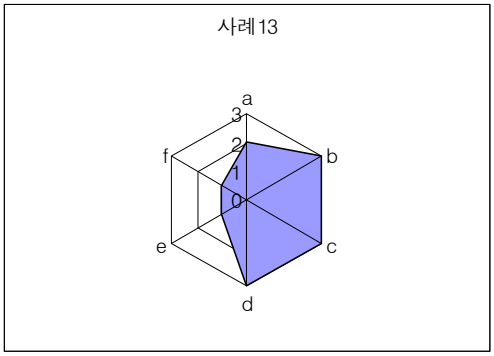
40살에, 남편과 사별한 이발소의 면도사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 때까지 남씨는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러 그녀의 고향(전남 순천)에 함께 내려갔다가 말다툼을 하고 남씨가 먼저 올라왔다. 버스 회사를 오래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곧 따라올 줄 알았던 동거녀는 그 길로 소식이 끊겼다. 같이 산지 7년만이었다. 이제나저제나 그녀를 기다리면서 남씨는 버스 운전도 작파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 전세방을 사글세로 옮기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다. 그러다 손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돈암동 어머니 집으로 옮겨 4년 간 침으로 치료했다. 이 때 어머니와 막내동생이 많이 도와주었다.

50살 때 우유 배달하던 여인을 소개받아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다시 몸을 추슬러 대학교 스쿨버스를 운전했고 생활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에게는 5남매가 있었는데 동거하는 동안 남씨의 저축한 돈으로 딸 셋을 시집 보냈다. 그녀와 8년을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전세금 7천만을 빼내 두 아이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여자와 남자는 100년을 같이 살아도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녀가 '나는 언젠가는 당신과 헤어져 자식들과 살아야 한다'고 되뇌이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 여인과 헤어진 후 남씨는 스쿨버스 운전을 그만 두고 친구와 함께 마을버스 2대를 구입해서 동업을 하기로 했다. 남아 있던 전재산 1천5백만원을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 뒤로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알콜 중독이 심해지고 몸이 아파, 대구에서 다방을 하는 큰아들(첫째 부인 소생)을 불렀는데,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는 행방을 감추었다. 병원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 기도원에 들어가 3개월쯤 있다가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노숙자취업센터가 알선하는 공공근로도 하고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다 1998년 겨울, 수녀님을 따라 시설에 들어갔다. 4개월쯤 시설에서 식당 봉사일을 하다가 답답해서, 마을버스라고 운전할 요량으로 퇴소를 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아 다시 노숙하다 재입소했다. 이후로도 3번 더 퇴소와 입소를 반복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자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답답하다.』

남씨의 생애가 (B-가)와 같은 조기 부랑의 유형과 다를 수 있었던 점은, 운전기술이 있음으로 해서 막노동자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약간은 확보될 수 있었고, 따라서 굴절시점도 상대적으로 늦게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3)



<그림 33> 남종근씨 사례

C. 배우자 상실의 충격으로 굴절된 유형

이 유형은 주로, 성장기에 어려운 환경을 거쳤지만 다행히 직업의 안정성(a)이 2정도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한 명의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하게 됨으로써 그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계획한 생활에 빠지게 된 경우이다. 대개 이 유형은 성장기의 가정형편이 빈곤하긴

했지만, 부모, 특히 어머니가 없이 방치되거나 다른 부양자로부터 학대받았던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로부터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정서적 고립감은 느끼지 않을 만큼 적어도 어머니가 버팀목 구실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C-가) 주명신(69세)씨 사례

『1934년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 밑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집안이 몹시 어려워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고 그래서 지금도 글을 못 읽는다. 형제들끼리 먹을 것을 가지고 다퉜다. 그는 일을 잘 안 하고 꾀를 부리는 편이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다. 벼 심을 때 소로 논을 갈거나 나락을 벨 때는 간혹 칭찬도 들었지만, 일이 힘들면 다른 동네로 뺑소니를 쳐서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곤 했다. 그럴 때면 늘 옆에서 바로 위 누나가 '몸이 고달프더라도 도망가지는 마라'며 다독거려 주었다.

철 들면서 시작한 농사일은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해야 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지만, 잘못 하더라도 때리는 법은 없었고, 말로 엄하게 꾸짖으셨다. 그 때마다 어머니는 측은한 눈빛으로 지켜보셨다.

21살 때 군에 입대하여 5년 후 제대했다. 당시는 휴전 상태여서 제대 순서가 한참 밀린 까닭이다. 최전방에서의 군대 생활은 참 재미있었다. 후배들의 실수를 주씨의 기지로 무사히 넘긴 적도 있었다. 군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26살에, 4살 연하의 예쁜 처녀와 결혼해서 1남3녀를 두었다.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았다. 부인이 '당신은 마음씨는 고운데 너무 재미없다'고 무뚝뚝한 성격을 나무라면 그는 '남자가 다 그렇지 뭐!'라며 응수하곤 했다.

30대 중반쯤 일꾼을 두고 농사일을 부인에게 맡긴 채, 그는 정미소에 취직했다. 쌀을 일일이 검사하고 차에까지 실어주는 중노동이었지만, 7년을 하루 같이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사장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다. 그 때 돈도 좀 모으게 돼, 생활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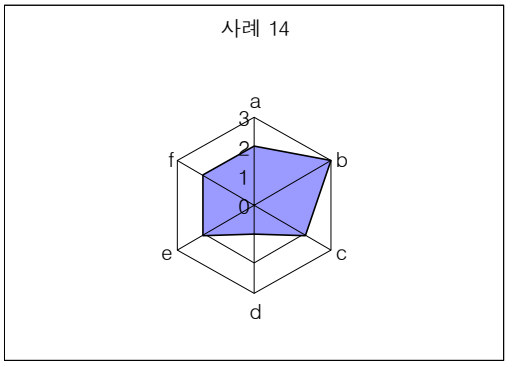
그러나 그가 44살 때, 부인이 황달로 시름시름 앓더니 사망하였다. 부인이 죽은 후 그는 모든 일을 놓고 3개월 뒤부터 객지로 떠돌기 시작했다.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세상이 귀찮았다. 이 세상에 혼자 남은 느낌이었고 자식에게도 정이 가지 않았다. 부인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자살은 비굴한 것 같아 그저 떠돌기 시작했다.

이후 가끔 마음에 드는 여성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명대로 살리지 못했는데 내가 고생이 된다고 새 사람과 사는 것은 죄'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도 접근 할 수가 없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일이 있으면 좀 하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돈 떨어지

면 경북 지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남의 일을 해주다가 그 곳에서 하룻밤을 자곤 하였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술만 마시게 됐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 몸 상태가 나빠졌다. 어느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일어서려는 순간 양쪽 하체 마비가 왔다. 바로 시립 의료원으로 실려와 치료를 했다. 이 곳에서 치료를 마치고 58살에 시설에 입소했다. 3년 후 시설에서 나와 친구의 소개로 경상북도의 어느 소(牛)농장에 막일꾼으로 취직했다. 성실히 일한 덕에 젊은 농장주인 부부의 신임을 받았는데, 98년 IMF 경제위기로 농장의 사정이 안 좋아져 그만두고 다시 원래의 시설로 자진 입소했다. 이듬해 농장주인이 그를 데리러 왔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주씨를 친부모처럼 대했다. 그러나 2000년 광우병 파동이 찾아왔을 때 농장은 결국 도산해 버렸다. 농장을 완전히 비워주어야 했으므로 주씨는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가끔 외출을 나가면 농장주인 내외를 찾아간다. 이제는 69살이니 용기도 안 생기고 밖에 나가 살 수 없을 것만 같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결혼하고 그런 대로 살만해졌을 때, 부인의 사망을 겪고 나서 '아내를 따라 죽고 싶은 생각만 들' 정도로 좌절해서,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객지를 떠돌게 된 경우이다. 그는 '내가 떠돌아다닌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 식구 죽고 내 마음을 잡지 못했으니까. 세상이 귀찮았어. … 집사람 생각만 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느낌이고, 자식한테는 정이 없어서 아이들 생각은 안 났어'라고 말한다. (사례 14)



<그림 34> 주명신씨 사례

(C-나) 김선길(66세)씨 사례

『*전남 광산에서 10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바로 위의 누나와는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난*

다. 아버지가 45살에 본 첫아들이었지만 어려운 살림 탓에 그리 귀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술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밥상을 둘러엎는 일이 잦았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마늘, 고추 등 양념을 파는 가게를 했는데 살림은 늘 궁색했다.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은 엄두를 낼 수 없어, 양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라 더 힘들었다.

양복 만드는 일은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도제식으로 배웠다. 자유당 시절 부산의 양복 경기는 서울보다 좋아서 서울에서도 취직하러 올 정도였으나, 5·16 쿠데타가 난 뒤부터 경기가 얼어붙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면서 주 고객층인 공무원이 물갈이되고 외상 월부값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여름에는 주문이 없는 비수기여서 수입이 불규칙했다. 그 때문에 양복 기술을 배우면서도 간간히 노동일을 해야 했다. 노부모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늘 힘겨웠다.

그래서 선뜻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33살에 늦장가를 들었다. 부인은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다. 동네에서는 '똥도 버리기 아까운 여자'라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다. 김씨가 직장 다니기 힘들다고 푸념하면, '쉬세요. 무슨 수가 나겠죠'라며 푸근하게 위로하는 여자였다. 그런데도 평소에 잘 해주지를 못했다. 밤늦게 술친구들을 집에 끌고 들어오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도 싫은 내색 한번 비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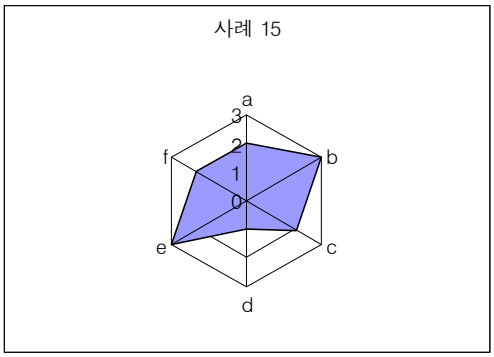
그런 부인이 갑자기 죽었다. 심장과 신장이 모두 안 좋았던 모양이다. 친정 다녀온다고 가더니 입원한 후 며칠 후에 세상을 떴다. 아들이 5살, 딸이 3살 때였다.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부인이 죽고 나서 3년 후, 기차간에서 남매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3년 후에 어떤 고아원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려와 살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국 찾아오지 못했다.

후배를 만나 술 한잔 하고 오던 길에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 버스에 뛰어들었다. 보호자 없는 천덕꾸러기 환자 취급을 받다 병원을 뛰쳐나와, 여인숙,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누나집 근처에 셋방을 얻고 양복점에 취직했다. 그러나 술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동네 가게에서는 김씨에게 술을 안 팔 정도였고, 나중에는 환청까지 들렸다. 심신이 모두 망가져 있었다. 각혈을 했고 결핵 판정이 났다. 보건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자 57살 때 시설에 입소했다.』

김씨 생애의 굴절시점은 부인이 사망한 30대 말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가 심해지고 삶이 극도로 불규칙해졌다. 부인이 죽었을 때, 그는 '아,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고 생각했다. 아버지나 가족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한다.



<그림 35> 김선길씨 사례

(C-다) 배종만(66세)씨 사례

『인천 화수동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용노동자였고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나이 40살에 배씨를 낳아 연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부모님 모두 인자한 편이었다. 아버지는 일할 때 한 잔씩 주는 술을 제외하곤 거의 술을 드시지 않았다. 돈을 아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14살,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을 맞아, 먹을 것이 없어 무척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형제가 없어서 외로웠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당시의 친구들은 젊은 시절까지도 친하게 지냈는데, 50대가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

월사금을 못 내, 학교에서 여러 번 쫓겨오면서도 중학교를 마쳤다. 고등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마쳤다. 14살 무렵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7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다. 초기에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며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그깟 병원놈들이 뭘 아느냐'며 열심히 한약을 지어오고 손수 달이시는 등 정성을 다 했다. 그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 더 축났다.

고등학교 다니던 18살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2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막막해서 아버지와 둘이 붙들고 많이 울었다.

고교 졸업 후, 육촌형이 하는 자동차 부품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다. 당시는 국산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라 자동차 조립용으로 쓰이는 부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잘 되었다. 변변한 취직자리도 없고 해서 시작한 이 일을, 군대 갈 때까지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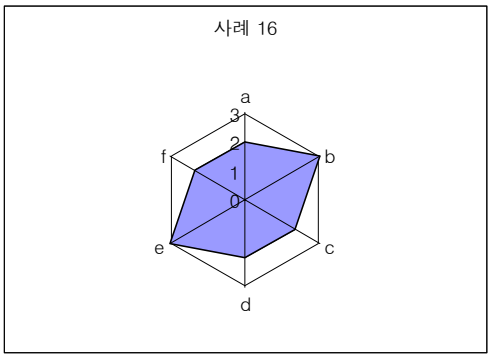
기술대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26살에 결혼했다. 육촌형이, 아는 사람을 통해 중신을 서고 '늦게 하면 뭐 할 거냐'고 윽박지르다시피 추진한 결혼이었다. 좋다, 싫다, 느낌도 없이 맺어졌다. 아버지는 결혼 직후에 돌아가셨고, 곧 육촌형한테서 독립해 부품가게를 따로 차렸다. GMC군용차를 가지고 버스를 만들던 시절이라, 장사는 잘 됐고 수입이 좋았다.

1남2녀를 낳고 결혼생활은 그럭저럭 평탄하게 유지됐으나, 부인과 마음이 잘 맞았던 것은 아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었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결혼 초기부터, 친구들과 술 마시며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했다. 자연히 가정을 등한시했다. 마침내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배씨의 잦은 음주와 외도가 원인이었다. 부인이 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해 왔다. 사정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다. '자식도 보이지 않았'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이 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생계는 계속 부품가게로 이어갔고, 집안 살림은 당시 중학생이던 큰딸이 했다. 의욕이 없어서인지 장사가 잘 안 돼, 가게를 처분하고 부품 행상으로 전환했다. 서울에서 주문을 받아 물건을 갖다주는 일이었다. 그렇게 4년을 지내다 부산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내려가게 됐다. 아이들은 학교문제가 있어 인천에 두고 갔다. 현장 일이 끝나고도 계속 부산을 떠돌며 지냈다. 길거리에서 자거나 쪽방 신세를 졌다. 이러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다. 알코올성 간염으로 거의 죽게 된 것을 시설에 입소해서 치료했다. 시설에는 56살에 들어왔다. 자녀들과는 연락이 안 된다. (시설의 카드기록에는 딸이 포기각서를 썼다 함)』

배씨의 경우는 부인과 마음이 잘 맞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본인이 잦은 음주와 외도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혼자가 된 이후에는 몹시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 때'라고 응답했고, 가장 불행했던 순간을 '이혼할 때'라고 기억했다.



<그림 36> 배종만씨 사례

(C-라) 길옥윤(70세)씨 사례

『1932년 일본에서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4살 되던 해까지 일본에서 살았다. 당시 길씨의 집은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다. 가족간의 관계도 좋았고, 부모님은 장남인 길씨를 무

척이나 아꼈다. 해방이 되면서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김천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셨는데, 비교적 부농에 속했다. 그는 이 곳에서 32살까지 18년 동안 살았다. 부모님은 장남인 자신을 위해 그가 18살 되던 해에 공장 한 채를 챙겨주셨다. 20살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공장에서 일을 익혔고, 군에 입대하던 22살까지 일을 계속하며 돈을 벌었다. 군에서 제대한 길씨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28살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다. 그러나 농사 일이 싫어서 32살에 처자와 함께 부모님 집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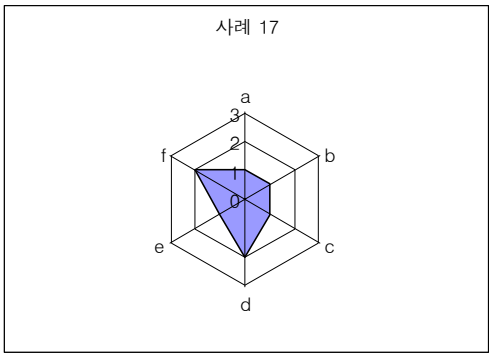
부산에서 그는 야채조합에서 경매하고 낙찰하는 일을, 40살 때까지 약 6~7년간 계속했는데, 이 일은 상당한 돈벌이가 되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기를 바랬던 길씨는 7년이 넘도록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30대 후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37살 되던 해에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부인은 이 과정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결국 길씨가 동거를 시작한 2년 후에 인 집을 나가버렸다. 부인과는 그렇게 헤어져 다시는 보지 못했다. 아내가 가출하고 설상가상으로 빚마저 쌓였던 터라 (큰 돈을 주고 물건을 떼다가 경매에 붙이는 일이어서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었음), 그는 집을 팔고 딸을 김천에 있는 고향집으로 보냈다.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 야채조합 일도 그만두었고, 답답한 심경을 술로 풀며 살았다. 그 때부터 그는 '술로 살았다'.

39살에 부인이 가출하고, 집을 팔고 일을 그만둔 그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인이 가출하고 난 2년 뒤에 동거녀와도 헤어졌다. 도저히 마음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었다. 그 후 약 4년 동안 집조차도 없었던 김씨는 부산에 있는 사촌형들 집을 전전하여 더부살이 삶을 살았다. 그러다 45살 때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공사장을 쫓아다니며 노가다 일을 했고, 그렇게 일을 따라 다니며 먹고 자는 방랑생활을 했다.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던 길씨는 급기야 죽기를 결심하고 자살시도도 하게 된다.

"안 되겠더라고요. 술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서너 번..."

죽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54살 되던 1985년에 시청 사회과를 직접 찾아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 어디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현재의 시설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도 자신의 외도로 부인을 떠나보냈으면서도, 부인의 가출 이후 심리적으로 크게 좌절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다. 만약 그가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A-1-가)의 유형처럼 굴절시점을 더 늦추면서 순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림 37> 길옥윤씨 사례

(C-마) 김영진(67세)씨 사례

이 경우는 앞의 네 사례처럼 굴절시점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비정규적인 일거리를 자주 바꿔가며 빈곤한 생활을 했지만, 순간의 실수로 아내를 잃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띤다.

『전북 고부라는 시골에서 1936년, 3남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가진 땅이 없어 농사는 짓지 못하고 아버지는 건축 현장을 전전하며 일했고, 어머니는 정읍에서 옷을 사다가 돌아다니며 파는 봇짐장사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집안은 가난했다. 태평양전쟁 등 어수선한 와중에, 제 때에 학교를 못 다니다가 16살에서야 초등학교를 마쳤다. 직업상 아버지는 집에 자주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도 장사하다 늦게 들어오기 마련이어서, 집안 일은 자연히 형제들이 나눠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다지 화목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고향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울을 동경하게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4 후퇴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서울로 올라가 인촌 김성수 선생 집에서 식물원 관리를 하고 있던 친구를 찾아갔다. 그의 주선으로 인촌 선생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1년여를 지냈다. 명절 때 시골집에 내려갔다가 제때 상경을 못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놓치고, 처음 시작한 일이 남산 밑에서 연탄배달을 하는 것이었다. 수입도 일정치 않고 너무 힘이 들어 염색공장에서 몇 달 일하다가, 역시 체질에 맞지 않아, 종로 5가에서 지게를 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종로 5가에 있어서 그럭저럭 일감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다 활달한 성격을 이용해서, 하숙 치는 집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하숙 손님을 유치해주는 일을 했다. 20살 때까지 이 일을 했는데, 이 때 하숙집에서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남원 출신의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마음이 끌려 20살에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다. 김씨는 그간의 무계획한 삶을 청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야간에는 하숙집에 손님 불러오는 일을 계속하고, 낮에는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어다가 노점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등,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시골 친정으로 보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 행복하게 살았다.

서울에서 거처를 자주 옮겨 군대영장이 나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군 기피자로 몰려 1967년부터 2년 5개월 간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출옥하고도 동거하던 부인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아들을 낳고서,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봤다. 007가방에 잡동사니 소품을 넣고 다방을 다니며 팔기도 하고, 철철이 과일 노점을 했으며, 일감이 없을 때는 고물장수나 건설현장 잡부를 하는 등,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했지만 돈은 잘 모이지 않았다.

용모가 웬만해서인지 젊을 때는 주변에서 유혹하는 여자들도 많았다. 어쩌다 가게 된 술집에서 별 생각 없이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음에도 잠시 한눈을 판 것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김씨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버렸다. 사랑하는 아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당시 7살인 아들만 겨우 데려왔다. 도저히 혼자서 키울 수 없어 작은형님 댁에 맡겨놓고 이 때부터 동가숙 서가식(東家宿 西家食) 하게 되었다.

40살에 혼자가 되어 정착하지 못하고 이 곳 저 곳을 떠돌며 일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부인과 헤어진 후로는 술만 많이 늘고 일도 성실하게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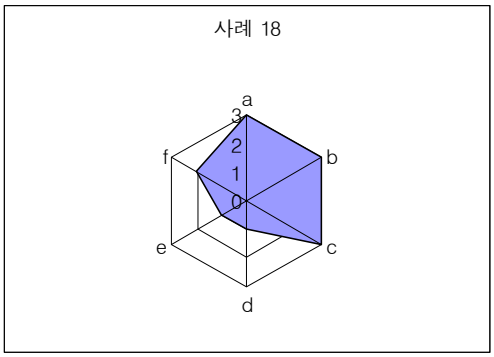
아들이 작은형님 댁에서 가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을 헤매다 한참 후에 찾아냈다. 25살의 아들은 제주도 출신의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얼마 후 아들은 며느리 앞으로 된 귤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제주도로 내려갔다. 몇 년 뒤 아들이 3명의 손자들을 남기고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 배를 탔던 모양이다.

김씨는 52살 때 골반뼈를 다친 이후로 힘쓰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매일 술만 마시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동네 통장의 신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결핵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 골반뼈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했다.

퇴원 후 61살의 나이로 현재의 시설에 자진 입소했다. 』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다, 실수로 외도를 하는 바람에 부부관계가 해체되어 인생이 굴절된 경우이다. 사례 17의 경우와는 달리 성장기의 환경은 척박했으나 성실함과 애정으로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경우이다.



<그림 38> 김영진씨 사례

(C-바) 김원봉(61세)씨 사례

이 사례는 한 사람의 배우자와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동거와 이별을 반복하다가, 노년에 이르러 의지할 곳이 없자 시설에 들어온 경우이다. 따라서 앞의 사례들과는 달리, 특정 배우자의 상실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굴절되었다기보다, 연속적인 결혼의 실패로 나중에는 '여자관계로 얽히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혼인을 포기한 경우이다.

『1942년 인천에서 1남1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장사할 물건만 준비해 주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술타령만 했고, 어머니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야채, 조개류 등을 소매로 팔면서 살림을 혼자 꾸려 나가다시피 하였다.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불쌍했다.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은 강한 애착을 심어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다지 정이 없었고, 남매에게만 정을 쏟았다. 어머니는 김씨에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니 애비처럼만 살지 마라. 술 많이 먹지 말고 생활에 충실해라. 깨끗하게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늘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술을 취해 집에 안 들어오면 그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모셔 오곤 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인생을 똑바로 살겠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학창시절은 평범했다. 다만 집안이 어수선하다는 생각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았다. 늘 혼자 고민하는 편이었고,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였다. 어머니의 억척스러움 덕분에 그는 공고 기계과를 졸업했고, 여동생도 여상을 마쳤다. 그는 장차 공장 하나를 차려서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싶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대 가기 전까지 극장에서 영사기를 돌렸다. 군대를 갔다 와서도 자신한테 충실하려고 애썼으며, 술, 담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27살 되던 해 어느 날, 극장에

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놓고 간 우산을 쫓아가 건네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술 한잔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인천 사람 한 번 사귀어 보자'며 적극적으로 나왔고 이듬해 동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일수놀이(사채업)를 하면서도 글자를 모르는 여자였다. 학원에 보내 글을 가르치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싹이 아주 노란, 멋대로 사는 여자'였다. 몇 달 후 외항선을 타보고 싶은 생각에 선원인 이모부를 통해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덜컥 취업이 되었다. 동거녀는 극구 말렸다.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 5년 동안 노르웨이 배를 탔다. 월급을 타면 어머니에게 좀 보내고 동거녀에게는 100불씩 세 번 보냈다. 그녀가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5년 후 돌아와 보니 떠나간 뒤였다. 수중에 2만불 정도 있었는데, 매일 술 먹자는 친구들 등쌀에 5년 만에 다 까먹었다. 큼직한 집도 한 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야금야금 들어먹고 말았다.

33살 되던 해에 친구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그 후 병원 보일러공으로 일하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부인을 만났다. 친구는 몇 해 전에 암으로 죽고 부인 혼자 3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김씨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져 동거에 들어갔다. 어머니의 반대와 노여움은 대단했다. 같이 분식가게를 하면서 배달도 하고 주방일도 보면서 4년 간 동거를 했다. 사우디 건축현장에 용접공으로 1년간 다녀왔다. 그 사이 동거녀는 장사도 안 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 결국 그녀의 부정 때문에 그의 2차 동거생활도 끝이 났다.

40대에는 일이 생기면 하고, 일이 없으면 그냥 놀며 지냈다. 다시금 배를 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하도 '아들하고 살아야 된다'고 만류하셔서 엄두를 못 냈다. 나이 40에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와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괴로웠다. 어머니와 주변에서 늘 '장가 가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53살 때 어머니가 뇌진탕으로 8개월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사망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다. 술 마시며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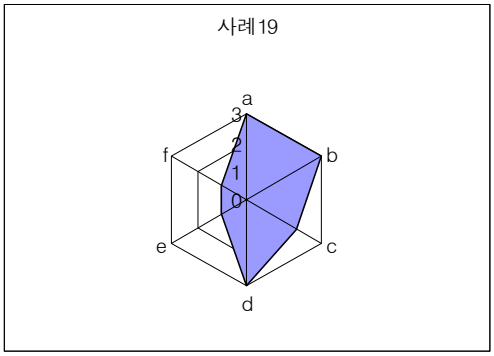
55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이듬해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4년간 생활하였다. 그 때 당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심부름조차 힘이 들어 자진 퇴소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인 그는 구청을 찾아가 시설에 보내줄 것을 부탁해 자진 입소했다.

현재 당뇨와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일주일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

성장기에 아버지의 불성실한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가장과 남편으로서의 올바른 성 역할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늘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자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었다. 여자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혹시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닌가하고 불안했던 적이 많다'고 말할 정도로 피해의식이 있었다. 유일한 의지처였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자연히 그 충격과 심리적 공황이 그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었다. 직업의 안정성이나 성장기의 가정환경은 B의 유형 정도로 열악했으나 그의 굴절시점이 다른 사례에 비해 늦은 것은 어머니의 존재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9> 김원봉씨 사례

D. 빈곤으로부터 자수성가했으나 경제적 실패로 몰락한 유형.

이 유형은 가난한 집안에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경험적 기술을 쌓았거나 안정된 직장을 잡아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다가 중년 이후에 경제적 실패를 겪은 경우이다.

(D-가) 이주종(63세)씨 사례

『1940년 부산 교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4남3녀 중 다섯 째였던 이주종씨는 영리하고 성격이 쾌활해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

6·25 전쟁 이전에는 농사만으로 대가족이 근근히 살아갔는데,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살림이 매우 궁색해져 두 형님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부터 농사일을 도왔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였지만, 가난하고 자식들이 많아 일일이 신경을 써주지는 못했다.

공부를 잘해 가족 중에 처음으로 중학교까지 나왔지만, 더 이상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고학을 할 생각으로 16살에 서울로 상경했다.

친구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송월타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2년 간 일했다.

그러다가 주간에 학교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요정의 웨이터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부는 여의치 않았다. 월급을 부산집으로 송금하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거

니와, 일하는 재미에 학교 생각은 잊어버렸다.

웨이터 생활은 공장일보다 수월하고 수입도 많았으며 적성에도 맞았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기생아가씨들도 잘 대해주어 즐거웠다.

24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타워호텔 식당의 웨이터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학원에 다니며 영어공부도 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외국 국빈의 시중을 들기도 했는데, 좋은 조건으로 부산극동호텔에 스카웃되어 갔다가 다시 타워호텔의 부름을 받고 돌아왔다.

이 때 집 근처에서 사는 아주머니한테서 중매가 들어왔다. 젊은 사람이 항상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걸 보면서 부자로 착각했던지, 여고생이던 자기 딸을 주겠다고 나서 29살에 10살 연하의 여자애와 결혼했다. 그러나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고 처가쪽에서는 서운한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영향으로 부인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당시 한국 최고의 요정인 삼청각에서 웨이터를 하며 아가씨들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수입도 많고 개인차량까지 지급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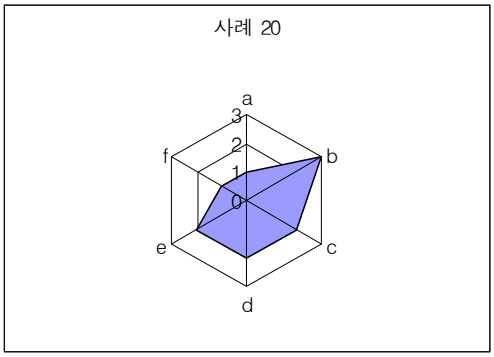
아가씨들은 배치되는 방에 따라 자신들의 수입이 좌우됐으므로 이씨를 상전 모시듯 했고, 이씨 자신에게도 부수입이 많이 생겼다. 자연히 투정이나 일삼는 부인이 있는 집에는 가기가 귀찮아졌다. 부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고 집안 일에도 무관심했다. 아들 둘을 낳았지만, 생활비만 줄 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부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40대 초반에 별거를 하다 재결합이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지면서 16년간 지배인으로 일하던 삼청각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좋지 않은 일이 계속 터지더니 결국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자신을 은인으로 여기는, 전북에 사는 후배 집에 내려가 2년간 쉬면서 일자리를 찾던 끝에, 뉴코아백화점 안의 갈비집 지배인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독특한 직원 교육과 영업방식으로 3년 7개월만에 4배의 매출 신장을 가져왔다. 식당 사장은 자신의 또 다른 사업체인 대형 맥주집의 상무 역할을 맡겼고 그 곳에서도 수완을 발휘했다. 56살에 압구정동의 유명 음식점에서 초빙 제안이 들어와 1년 7개월 정도 그 곳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자신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사업 장소를 물색했다.

이제까지 번 돈은 동생들 결혼할 때, 집 장만할 때, 시골 가족들 생활비, 이혼할 때 위자료 등으로 나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해 과천 경마장 근처에 식당 자리를 계약했다. 열심히 개업준비를 하던 중 식당 분양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에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고령인데다 IMF 한파로 사람을 충원하려 들지 않았다.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조금씩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 이혼한 부인과 아들들을 수소문해 봤지만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으니 찾지 말라는 전갈만 돌아왔다. 아는 사람을 만나 돈이 생기면 여인숙에서 자고, 없으면 24시간 영업 목욕탕, 만화방 등을 전전했다. 밥을 굶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서울역 앞에서 상담을 거쳐 노숙자 쉼터에 입소했다. 59살의 일이다.』

통상,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에서는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 삶의 패턴이 급격히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씨의 경우는 부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굴절시점이 늦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의 직업이 경험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고, 따라서 웬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라는 데 이유가 있다.



<그림 40> 이주종씨 사례

(D-나) 전수권(65세)씨 사례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나 7살까지 만주에서 살았다. 원래 집안 형편이 그다지 궁핍한 편은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술과 도박을 좋아해서 재산이 서서히 축나기 시작했다. 6살 때, 술을 그토록 좋아하던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1년 후에, 어머니를 따라 형제들과 경북 안동으로 이주했다. 당시, 안동에는 큰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땅도 제법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큰집에서 내어준 땅에 농사를 지어야 했던 전수권씨 집의 살림은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렸다. 어린 시절 전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의 농사일을 돕고, 땔감을 구하러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형은 안동에서 목재소를 다녔다.

전씨는 중학교까지 마쳤다. 학교를 다닐 때, 장날이 되면 동네 뒷산에서, 사상범들이라 하여 잡혀온 사람들을 공개처형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다. 버려진 시체들이 마을 뒷산, 개울 등에 널려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1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21살 때 군에 지원하여 직업군인 생활을 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중사 진급 시험에 합격했을 때 무척 기뻤던 기억이 난다. 군대에서는 표창도 여러 번 받았고, 자랑스럽고 보람 있었던 일화도 많았다. 군 생활 중 휴가 나왔다가 친척의 소개로 예쁜 처녀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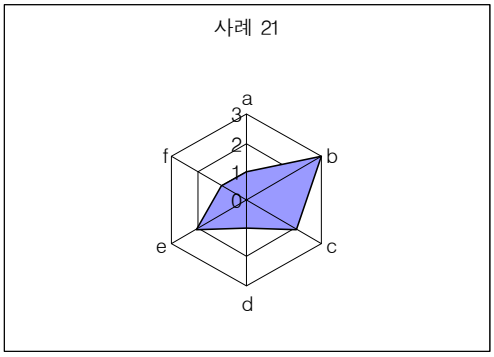
나 결혼했다. 결혼생활은 그럭저럭 행복한 편이었고, 전씨의 생활은 술, 담배를 일체 하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것이었다.

40대에 군에서 전역한 후, 태백시의 광산에서 기계 만지는 일을 하다가,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부산의 신발공장에서 품질검사 계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공장에서는 검사 라인이 일도 가장 편하고 깨끗했고, 월급도 괜찮았다. 직장생활은 그런 대로 만족스러웠다.

55살을 넘기고 서울로 올라와서 과학기술원의 경비조장으로 취직했다. 그러던 중 57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이 사망했다. 그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경비 일을 하면서 평탄하게 살았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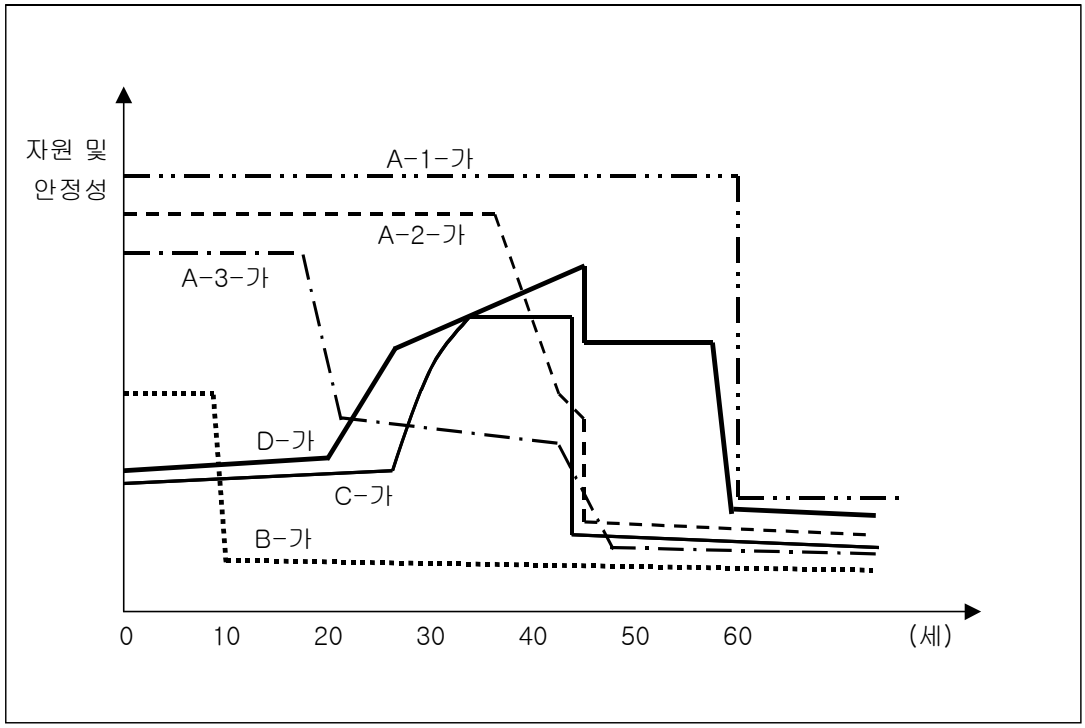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느라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그러다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어머니의 식당일을 돕고 있던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교통사고 보상금이 살림 밑천이었고 일부는 중고자동차 중개업을 시작하는 데 썼다. 처음에 사업은 잘 되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망하고 말았다. 자연히 동거녀와의 사이도 멀어졌다. 동거녀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와 종묘공원으로 갔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한동안 함께 생활했다. 그나마도 사정이 어려워지자 파출소를 찾아갔고 거기서 시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입소하게 되었다.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이동이 잦기 때문에 같이 살기가 힘들고, 출가한 딸들은 모두 살림이 어려워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낼 수 없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게 싫어서 면회도 오지 말라고 한다. 나이 들어서 해놓은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어서 후회스러울 뿐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학력도 낮았지만, 직업군인이 되어 30대를 안정되게 보내고 이후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중년을 맞아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는데, 부인의 사망으로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굴절의 계기는 늦게 시작한 사업의 실패였다. 사업이 유지되었다면 동거녀와의 관계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 전수권씨 사례

이상 각 유형의 대표 사례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는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삶의 안정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 과정과 굴절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35> 사례별 생애의 굴절변화선

③ 남성 부랑인의 생활력의 특징

a. 직업력(職業歷)

- 일반적으로 20대에 처음 시작한 직업이 굴절시점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30대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해서 직업을 바꾸는 예는 거의 없었다. 젊은 시절에 특별한 기술 없이 막노동을 시작하거나 허드렛일 수준의 일감을 자주 바꾸게 되면 이후에도 그러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위기 대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업의 안정성으로, 50대 이후에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를 맞아 일시에 몰락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20대 이전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안정된 직장에서 지속적인 봉급생활을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했거나 공기업(한국전력, 대한석유공사 등), 민간 대기업(조선방직, 국제상사)에서 봉급자로 오래 근무한 가장의 경우는 장년기를 비교적 안정되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경우는 부부관계에도 큰 위기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이성관계가 덜 복잡한 편이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과 배우자와의 결합도 사이에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하여 표에서 보듯이, 직업의 안정성이 1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굴절시점이 늦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도 사고를 당해 건강을 상실하면 곧바로 실직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위기가 뒤따른다. (A-2-가)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비교적 평탄한 30대를 보냈으나, 감전사고로 직장을 잃으면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다. 친구 공장에 취직했지만 또 다시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고 갖가지 노동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알콜에 탐닉하고 이는 가정불화와 해체로 이어진다. 염씨의 경우는 사고에 의한 실직이 빈곤으로의 하강, 불규칙한 삶의 패턴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고졸 정도의 상대적 고학력이나 중상류 정도의 재산 정도는 빈곤화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김원봉, 배종만씨의 경우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구백민(대졸), 오경훈씨의 경우는 집안 형편이 부유한 편이었지만, 20대 때까지 이렇다할 기술을 습득하지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해,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경비원, 극장 직원, 가게 종업원 등)로서 직업 전선에 발을 내딛게 된다.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서도 사회적 수요가 꾸준한 기술(예: 운전 등)이나 경험적 능력(예: 경매중개인, 유흥업소 관리자 등)을 습득한 경우가 이후에 생활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높여준다.

b. 성장기의 보호 정도와 배우자와의 결합도

- 생애의 굴절시점이 15세 이전으로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부모, 특히 어

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대리보호자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아 일찍이 홀로 떠돌기 시작한 경우이다. 이런 유형은 이후에 성장해서도, 한 명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혼과 새로운 동거를 반복하거나, 아예 혼인을 기피하기도 한다.또 가정을 이루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는 예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부부 결합도는 매우 취약해서 가정생활 자체가 불안정하며, 이는 결국 부랑의 만성화를 낳는 원인이 된다. 이는 성장기 정서의 불안정한 형성이 인간관계 맺기 능력의 발달을 저해한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표에서도 (c)성장기의 애정 및 보호 정도와 (d)배우자와의 결합도, (f)굴절시점은 대략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 성장기의 보호 정도와 직업력

- 성장기의 보호 정도는 직업능력의 형성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지 않았더라도, 극도의 방임이나 학대를 경험하지 않고

어머니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평범한 유년기를 보낸 경우는, 직업의 안정성이 1~2에 해당하는 직업능력을 가짐으로써 빈곤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15세 이전에 부랑의 길로 들어선 유형에 비해서 삶의 태도의 적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형은 5개의 사례 가운데 3사례에서, 부인과의 관계가 해체(사망이나 이혼) 되었을 때,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여성 부랑인의 생활력

여성 부랑인의 경우는 우선,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사례의 수가 적어서 유형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6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남성의 경우와 달리, 한결같이 결혼생활의 실패가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관습적인 성 역할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은 혼자되기 전까지는 외부의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직업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

는 교육이나 기술의 습득 여부가 생활력(生活歷)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오직 남편과의 관계가 생애의 굴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배어있는 가부장적 문화의 폐해가 여성의 부랑화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A. 성장기의 환경이 불우했던 경우

(A-가) 이옥자(68세)씨 사례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울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야간에 종로 거리에서 옷 장사를 하기도 하고 두부공장을 한 적도 있으며, 늙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멍가게를 하셨다. 이옥자씨의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할머니에게 쫓겨나 그 이후로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다. 계모가 들어와 *5*남매를 낳았는데, 이씨에 대한 계모의 학대는 극심했다. 그러나 계모에게 맞는 매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배고픔이었다. 한번은 너무 배가 고파 잠을 들 수 없어 밤에 컴컴한 부엌에서 손으로 찬밥을 우겨 넣다가 체한 적도 있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서러움에 목이 메인다.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겨우 마쳤다. *10*살 때부터 남의 집의 애보기, 설거지·빨래 해주기 등 식모살이를 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고모 등 친척은 *6·25*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명절이었다. 주인집 식구들이 방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자신은 혼자 추운 부엌에 서서 주인의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했던 신세가 참으로 서글펐다. 한 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있던 집의 형편이 몰락하면 다른 집을 소개받아 옮겨가는 식의 이동이 계속됐다. 가정부 생활과 식당 일이 청소년기의 전부였다. 그래도 식당 일을 하면서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어쩌다 주인이 보내주는 영화구경이 외출의 전부였고 대화를 나눌 친구도 없었다. 식당에서 일하던 *28*살 때 주위 소개로 동갑의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을 하면 그래도 남의 집 살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남편은 고물상을 했는데, 술도 안 마시고 자상한 편이었으나 춤바람이 나서 몇 달씩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았다. 생계는 이씨가 구멍가게, 포장마차 등을 하면서 꾸렸다. 몇 달만에 들어온 남편은 이씨가 모아 놓은 돈을 몰래 훔쳐가거나 그녀를 꼬드겨 빼앗아갔다. 그러나 폭력을 쓰는 일은 없었다. 결혼 *8*년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의 심한 바람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45*살에 가출을 하고 *5*년 후에 이혼했다. 아들은 남편이 맡았다. 이혼 직후에는 남의 집 김장을 도와주는 등, 비정기적인 파출부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며 월세방을 얻어 살았다. *40*대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주방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지자 주로 설거지를 맡게 되었다. 식당은

약 반 년에 한 번 꼴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몇 달이 지나면 주인이 (고의로) 체불을 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돈을 모아 1천5백만원 짜리 전세방에 살았으나 빚 보증을 잘못 서서 그나마 날렸다. 식당에서 일하고 오다 길에서 쓰러져 심장수술을 받고 시설로 옮겨졌다. 아들과는 간혹 만나고 결혼식에도 참석했으나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8년째다. 동두천으로 돼지를 기르러 떠나간다고 하고는 소식이 없다. 』

(A-나) 조화순(63세)씨 사례

『일용노동자였던 아버지는 술과 노름을 좋아했고 가끔씩 어머니를 구타했다.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 초등학교 3년을 마치고 남의 집에 가정부로 보내졌다가 밤에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바람에 되돌아온 적도 있다. 어머니는 양담배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미군헌병들이 양담배를 모두 빼앗아간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나이부터 남의 집에 가서 아이 봐주고 허드렛일을 해주었다.

19살에 미장일을 하는 남자와 결혼해 2남2녀를 낳았다. 나무를 해다가 팔아야할 만큼 가난했지만 처음 5~6년 간은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러다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는 바람에 형편이 극도로 힘들어졌다. 조화순씨는 5년 동안 공장을 다니며 식구를 부양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욕하고 밤새도록 주사를 부렸다. 그럴 때면 맞을까봐 옆집으로 도망가서 숨기 일쑤였다. 39살 되던 해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 때부터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과일 장수, 옥수수 장수 등 행상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남편이 죽던 해부터 정신질환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 40살 무렵 우유 배달하는 남자를 만나 조씨의 자녀들과 같이 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따로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때의 충격으로 또 병원 신세를 졌다.

43살에 정신병이 심해져서 자녀들이 서울의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으나 조씨가 워낙 강하게 반발해서 다시 대구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집 안에 물을 붓고, 난데없이 욕을 하고, 베개를 아이라며 딸에게 건네주는 등 조씨의 이상행동이 심해지자 아들이 현재의 시설로 입소시켰다. 이 때가 47살이었다. 2년 후 아들(27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째 아들 역시,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가 재발하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다가, 마침내 조씨가 있는 시설에 입소했었다. 그러나 20년 전, 그 아들이 시설을 탈출해서 나간 후 소식이 끊겼는데, 나중에 들으니 시설을 나간 후 얼마 안 있어 사망했다고 한다.

두 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다니다가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다. 일 년에 두 번 명절 때 찾아온다.』

(A-다) 정영금(64세)씨 사례

『빈농 집안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성격은 자상한 편이었다. 15살 때, 어머니가 45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당시는 철이 없어 친구들과 쏘다니며 노느라 바빴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미처 마치지 못했다. 18살 때 결혼하겠다고 집을 나왔다. 그 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실제로 18살에 첫 남편을 만났다. 그러나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편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나 정씨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집안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심한 반대를 받으면서 결혼했다.

남편이 군에 간 상태에서 정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썼다. 결국 남편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7년을 살다가 아이 둘을 놓아둔 채, 시댁에서 쫓겨났다.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10년 동안 아이들 생각만 하면서 울며 지냈다. 집을 나온 후에는 주로 식당에서 일하며 지냈다. 이 때는 돈을 모을 줄도 몰랐다. 외롭고 허전해서,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푸는 주위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떤 식당 주인 내외의 소개로 두 번 째 남편을 만났고 다소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남편은 원래 군속이었는데 뇌물상납 심부름을 하다가 발각되어 군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그는 심성이 착했고 부지런했으며 점잖은 사람이었다. 남편과 함께 조그만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는 그런 대로 잘 되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서 불행이 찾아왔다. 남편의 도박벽은 날로 심해져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었다. (만일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지만 않았다면 지금까지 잘 살았을 것이다)

두 번 째 남편과 헤어진 후, 그와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멀리 섬으로 들어가 8년여 동안 살았다. 주로 유치원에서 아이들 밥을 해주며 생활했다. 56살 때 서울로 올라와 3년 동안, 몸이 불편한 할머니의 간병을 하면서 지냈다.

60살부터는 취로사업 등, 손에 닿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다 혼자 기거하는 방에서 심하게 앓으면서 정신을 잃고 큰 병원에 실려갔다. 깨어나 보니 자신은 온 몸이 묶어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우울증에 의한 발작이었다.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퇴원을 시켰는데, 다시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하고 다시 퇴원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시설로 들어왔다. 시설에서도 오래 있으면 영영 못 나갈 것 같아서, 퇴소를 했었는데 우울증이 재발해서 한달만에 다시 입소했고 3년째 생활 중이다.

첫 남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정씨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성장해서도 그녀 만나기를 거부했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죽기 전, 사실을 말해주어 오해는 풀렸지만 같이 살 처지는 못 된다.』

(A-라) 임태희(66세)씨 사례

『9살 때까지 일본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나온 지 3년 만에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후 어머니는 일꾼을 구해서 농사를 지었다. 임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학교에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 말았다. 그 후 줄곧 집에서 밥하고 농사일을 거들었다. 어머니는 굉장히 엄해서, 혹시라도 일을 안 하거나 잠시 게으름을 피우면 엄청나게 혼을 냈다. 또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곤 일한 기억밖에 없다.

17살까지 농사 짓고, 청소하고, 소죽을 주는 등 집안 일을 하다가, 17살 때 어머니가 자녀 3명 딸린 남자에게 임태희씨를 시집 보내버렸다.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일은 안 하고 도박에만 빠져서 생계를 돌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노름방에 앉아 있었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모두 탕진해 버렸다.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임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직접 손찌검을 하지는 않았다. 결국 생계는 임씨가 혼자 농사를 지으며 꾸려 나갔다.

남편이 노름으로 집, 소 등 재산을 모두 날려버려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임씨는 29살까지 사과장수를 하며 집안을 꾸리다가 너무 힘들어 가출해버렸다. 임씨가 시집오기 전, 전처(前妻)도 가출했다고 한다.

그 후 어떤 회사와 우체국의 구내식당, 일식집 등을 전전하며 일했으나 주로 숙식을 제공받았을 뿐,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다. 일식집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 몸이 불편한 불구자인데 그녀를 도우며 함께 지내자고 권유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 부인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6년여 동안을 그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그 부인이 사망한 후 나왔다. 36살부터 다시 식당, 공장 등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조금씩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37살에 배 타는 남자(선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알콜 중독이었고 한달 생활비로 겨우 3만원을 들여놓는 게 고작이었다. 시부모님이 가끔 돈을 주기도 했지만, 옷이나 신발 같은 생필품 구입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때의 힘들었던 생활에 대해 피면접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함으로써 망각을 통해 고통을 벗어나려는 경향 보임) 그렇게 9년을 살다가 46살에 가출하였다.

그 후 55살까지 부산의 개인병원 두 곳에서 가정부 생활을 하였다. 월 40만원을 받고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간호를 10개월 정도 하기도 했는데, 일이 힘들고 지저분해서 그만두었다.

56살에 '나자렛의 집' 주방에서 자원봉사 일을 했고, 이후에도 여러 시설들을 다니며 돈은 받지 않고, 청소, 아이 돌보기, 빨래 등을 해주고 숙식을 해결했다. 그 후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현재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지금은 특히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서 신경불안 증세가 있다.

돌이켜보면 일생 동안 행복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늘 괴롭고 항상 우울했다.』

B. 성장기의 환경이 양호했던 경우

(B-가) 최숙영(72세)씨 사례

『서울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주 큰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생활은 넉넉한 편이었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꽤 되었던지 어머니가 특별히 일을 안 했는데도 두 모녀는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 17살에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당시 흔히 그랬듯이,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5살 무렵에 졸업했다. 17살에 이른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재가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재혼 얘기가 나오면서 김씨를 '아무 데나 적당한 곳에 빨리' 시집보내려 했다. 돌이켜 보면 어머니의 이 같은 무성의한 결정이 참 원망스럽다.

결혼생활은 매우 고단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집살이를 다 받아야 했고,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음주벽(癖)을 보이고 구타도 했다. 의지할 데도 없는 낯선 곳에서 두렵고 힘들었다.

남편의 구타와 주사를 팔자소관으로 여기며 살았다. 더구나 매를 맞는다는 사실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다 얘기도 못했다. 다만, "'애들 학교만 가면 집을 나가야지…, 중학교만 가면 나가야지' 생각하며, 아예 한 발은 밖으로 빼놓고" 살았다.

남편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나 자기 술값 대기에도 바빴다. 외도까지 했다. 결국 김씨가 남의 집 일, 식당일, 파출부 등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 1남2녀를 두었는데 오직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고 힘든 생활을 버텨나갔다. 남편의 행패를 참으면서 가사와 생계,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지려니, '이러다 미치지'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37살에, 친정어머니가 사망했다. 거의 연락도 없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어머니지만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이제 혼자라 생각하니 서러웠다.

집을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현실화된 것은 아들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다. 평생 '주정뱅이' 남편을 참아내며 모든 희망을 걸어온 아들이 애비와 똑같은 '주정뱅이' 짓을 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처음에 아들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릴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오면 나아지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지만 제대 후에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아들의 약혼녀에게 '시집오지 마라, 나 같이 되지 마라'고 해, '친어머니 맞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결혼 37년만인 54살에 가출했다. 몰래 나온 것이 아니라, 출가한 두 딸들에게 알렸다. 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엄마가 나가서 한 달이나 버티겠나' 하는 반응이었다. 섭섭했다. 가출한 지 18년 되는 오늘날까지 독하게 마음먹고 일체 연락하지 않게 된 것도 이때의 섭섭함이 남아서이다.

가출해서 정착한 곳은 대구였다. 집에서 멀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정했다. 곧바로 식당에 취직했다. '집 생각이 날까 봐' 가정부 일은 하지 않았다. 이후 7년간 식당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 가출 7년째 되던 해에 심장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 병세는 매우 심했다. 병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심장이 이 모양이냐?'고 했을 정도이다. 게다가 신장 이상과 관절염도 있었다. 일하던 식당 주인을 통해 현재의 시설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속에서 열이 뻗쳐서' 방 안에서 잘 수가 없다. 겨울에도 시설의 계단참에 장판을 깔고 잔다.』

(B-나) 채영심(62세)씨 사례

『경북 고령에서 4남4녀 중 셋째로 태어나 9살쯤 될 때까지 그 곳에서 살다가 이후 계속 대구에서 살았다. 가정형편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아버지는 사람을 써서 궤짝을 도매로 제작·판매하는 일을 했고, 어머니도 집안 살림을 하면서 이 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또 한편으로 자개농 등을 판매하는 가구점도 운영했다. 집안 경제가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아들들은 모두 대학까지 졸업한 반면, 딸들은 고작 초등학교를 마친 정도여서 채씨도 고등공민학교에 조금 다니다가 야간 초등학교를 한 1년쯤 다닌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한글을 더듬더듬 읽기는 하지만 쓰지는 못한다. 집안에서도 딸들은 천대를 받는 편이었고 꾸지람도 훨씬 많이 들어야 했다. 한번은 큰언니가 놋그릇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아버지가 심하게 언니를 때린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일로 언니가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살아난 적도 있었다. 어릴 때 생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혼 한 이후에는 한번도 부모님이 무섭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어린 시절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다.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이 말할 수 없이 재미있었지만 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20살 무렵까지 교회에 못 다녔다.

채씨는 15살 무렵에 옷감을 짜는 방적공장에 들어가 처음으로 돈 버는 일을 시작했고, 주로 집안 일을 도우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께 '핍박' 받은 것말고는 크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다.

24살에, 신앙이 없는 남자와 맞선을 봤는데 호감이 가길래 결혼했다.

남편은 밑으로 동생이 4명 있는 장남이었다. 남편은 인쇄공장에 다녔는데 한 달 월급이 4천5백원 밖에 안 돼, 한 사람만 다녀가도 표가 날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다. 2남1녀를 낳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3-4년 동안은 가난해도 행복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시동생들 결혼문제 같이 돈이 많이 드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채씨를 빼놓고 시댁 어른하고만 상의하면서 그녀를 소외시키는 거였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 대해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남편에 대해 "자기는 자기고, 나는 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이 안 가니 잠자리도 함께 하기 싫었다. 그냥 애들이나 보고 살자고 생각했다. 남편이 곁에 오면 발로 차버렸고, 애들 방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사이에 애들을 재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 그녀가 32살 되던 해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생활이 한 3년 정도 지속되면서 채씨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고 결국은 정신병이 생겼다. 정신병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35살 되던 1975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먼저 요구를 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5살이던 자녀들은 남편이 맡았는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 애를 하나 더 낳았다.

이혼한 뒤 부산의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조금 호전되자 퇴원했고, 친정에 1년 정도 있다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 큰아들을 몰래 데려다 자신의 식당에서 밥을 먹인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아이들의 계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녀와 비교적 친하게 지내면서 간접적으로 자녀들을 돌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계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자녀와의 연락도 끊기에 되었다. 그 후 큰아들과 막내딸은 한번도 볼 수 없었고, 둘째는 채씨가 시설에 입소해 있을 때, 군복무를 마치고 찾아온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다.

식당을 한 4년 정도 운영하다가 너무 힘들어 문을 닫고 여관을 했는데 그 역시 힘에 부쳐 1년 만에 그만 두었다. 그 후 친정에 잠시 있다가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 곳 저 곳을 떠돌아다녔다. 48살 때 대구에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파출소에 붙들려 갔고 채씨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이 그녀를 시설로 보냈다. 그 후 담을 넘어 도망쳐서 친정에 가서 한 2년 살았다. 자신이 시설에 있는 동안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둘째 아들이 그녀를 만나러 애인과 함께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다 다시 정신병이 재발해서 영주 정신병원에 약 20개월간 입원했다. 그 후 친정에서 퇴원을 시켜 친정집에서 지냈는데, 어머니와 다툰 후 파출소를 찾아가서 재입소 요청을 해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50대 말에 또 한번 탈출과 방황, 재입소를 반복했다. 그 뒤 3년 넘게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채씨의 뒤를 계속 봐주던 친정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양친이 살아있을 때는 친정에 자주 가서 지냈지만,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이라 마음이 힘들다. 지금은 가끔 한 번씩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는 정도이다.

채씨는 현재 시설에서 다른 사람들 뒤치닥거리 하는 게 정말 싫다. 자신에게 정신병이 생긴 건 바람피우고 구타하는 남편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건데,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다니, 그런 면에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

성장기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남성의 음주, 외도, 구타, 도박벽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결과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심한 정신적 학대와 억압이 누적되는 가운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혼자가 된 이후에는 식당일이나 파출부, 간병인 일처럼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여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계통의 임시직·일용직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늘 수요가 있고,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도 낮아서 실업상태에 머무는 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은 편이다. 또한 문화적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은 음주에 노출되고 탐닉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역시

술에 젖어서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적다. 그러나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에 들어서면,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병마에 시달리게 되므로 결국 부랑인시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B-나)의 채영심씨 경우처럼, 그나마 친정식구들이 어느 정도 버팀목의 구실을 해줄 수 있을 때, 부랑인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3) 여성 부랑인의 수가 남성 부랑인에 비해 적은 이유

전국적으로 부랑인시설에 수용돼 있는 여성 입소자의 수는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추론된다.

① 성의 차이에 따른 거리생활의 위험도

노숙을 하며 떠도는 생활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특별히 위험하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위해(危害)와 폭력, 특히 성적인 학대와 폭력의 위험성이 거리에는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정신이상을 일으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어떻게든 거리에서 떠도는 생활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②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효용

학력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의 영역에서, 여성 노동의 효용과 범위는 남성에 비해 크다. 일반적으로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식되는 서비스의 범주는 남성에 비해 다양하다. 이것은 여성을, 남성에 대해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와 관련이 있다. 물론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감수하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망이 끊긴 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남성이 취업하지 않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수가 있다.

③ 성의 상품화 가능성

여성의 성은 사회로부터 늘 상품화의 압력을 받는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기존의 유흥업소 혹은 매춘업소들은 오갈 데 없는 여성을 포섭해서 묶어놓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립된 여성 가운데 일부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들어가거나 거리로 방출되기 전까지, 이러한 향락산업의 공간에 몸을 의탁하고 생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④ 문화적 성역할의 차이

문화적으로 남성은 가정에서 도구적 기능을, 여성은 정서적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가부장 문화의 전통에서도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 책임을 맡는 것으로,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남성은 경제활동의 부담과 책임을 느끼면서 분투하다가 좌절과 실패가 계속되어 본연의 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모든 역할을 포기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반면, 여성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어떻게든 자녀를 데리고 안전한 지대에 남으려 한다. 거리는 여성에게 뿐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위험하고 해롭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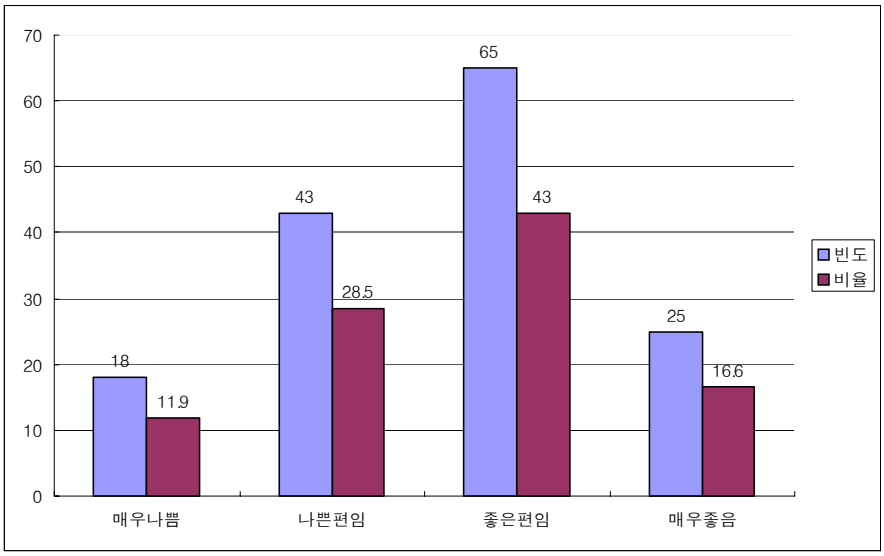
⑤ 음주, 도박, 외도에 노출되는 정도

역시 문화적으로, 그리고 성역할의 차이에 따른 생활패턴이 다름으로 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술, 도박 등에 노출되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여성은 이들에 탐닉하거나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서, 상습화에 따른 무기력, 의욕 상실, 노동 기피 현상이 적게 나타난다. 대신, 남성은 술이나 외도를 통해, 정신적 압박과 긴장을 해소하는 데 비해, 여성은 그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편의 그런 행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므로, 정신건강상에 심한 상처와 위해를 입는다. 부랑인 시설의 여성 입소자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많은 것은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의 억압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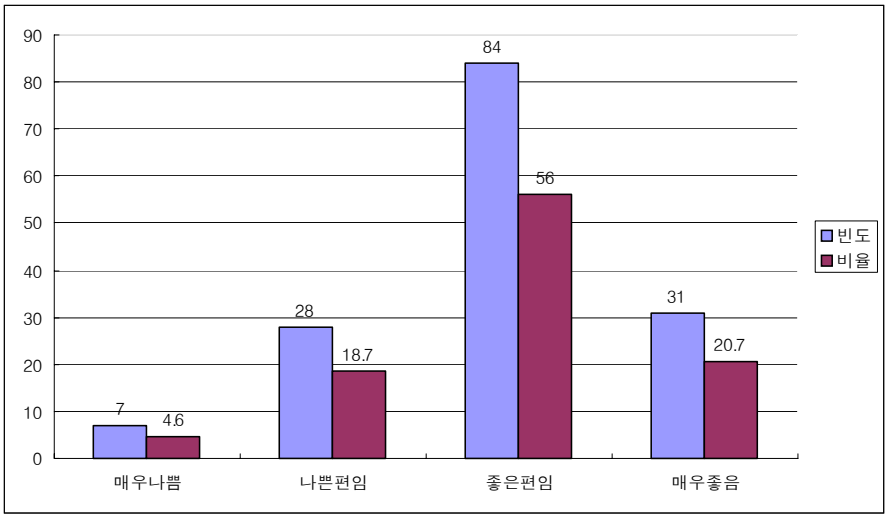
2.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의 생활실태

1) 현재의 생활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각각 59.6%, 76.7%에 이른다. 이는 부랑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하는 주관적 인식 정도로서, 긍정적인 답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의 건강 상태에 비해 현재 많이 좋아졌다는 상대적인 평가가 응답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육체적 건강 정도



<그림 37> 정신적 건강 정도

그러나 정신적 건강 정도를 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남성은 나쁘다는 응답이 17.1%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51.8%에 이른다. 이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의 생활에서 여성이 자아를 억압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심층면접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성 부랑노인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정신적 건강상태×성별

			성별		계
			남	여	
정신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Count	4	3	7
		% within 성별	3.3%	11.1%	4.7%
	나쁜 편	Count	17	11	28
		% within 성별	13.8%	40.7%	18.7%
	좋은 편	Count	78	6	84
		% within 성별	63.4%	22.2%	56.0%
	매우 좋음	Count	24	7	31
		% within 성별	19.5%	25.9%	20.7%
계		Count	123	27	150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χ^2=.000

한편 만성질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50.7%)와 '없다'(49.3%)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없다'(61.7%), '지체장애'(21.5%), '정신장애'(10.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지체장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경우 여성 부랑인에게서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한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정신장애로 분류될 수 있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0> 만성질환 유무

	빈도	비율(%)
없다	76	50.7
있다	74	49.3
계	150	100.0

<표 51> 장애유형

	빈도	비율(%)
지체장애	32	21.5
시작장애	5	3.4
청각장애	2	1.3
정신장애	16	10.7
신장, 심장장애	2	1.3
없다	92	61.7
계	149	100.0

질병에 걸렸을 때는 '실무자에게 이야기한다'(72.7%), '참는다'(1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기 등 질병에 걸렸을 때 76.7%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랑노인들에 대한 건강 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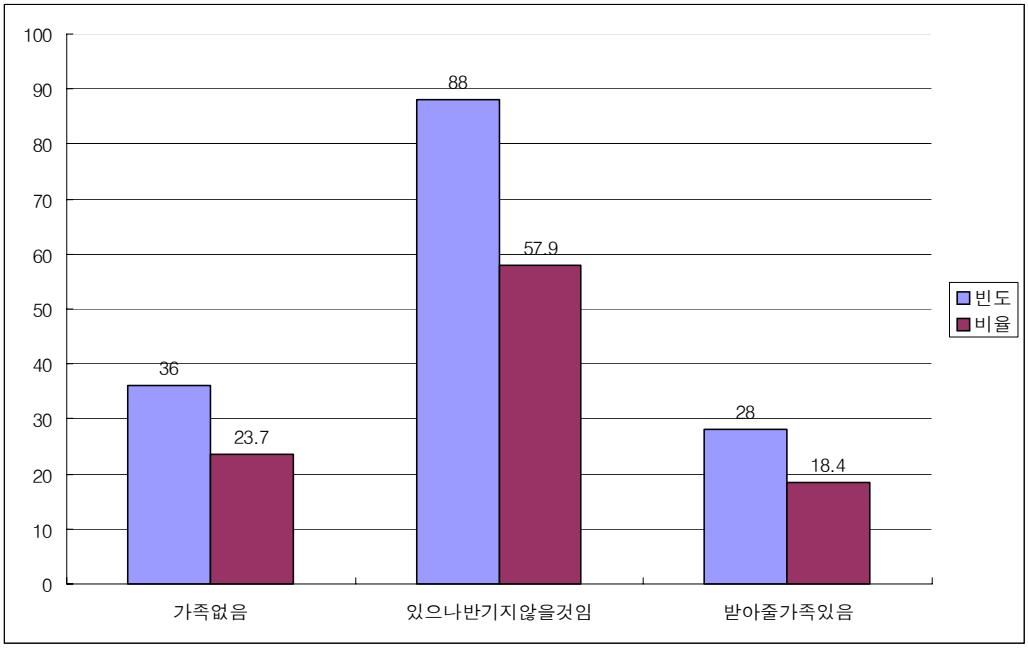
<표 52>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

	빈도	비율(%)
술을 마심	2	1.3
참는다	28	18.7
실무자에게 이야기함	109	72.7
기타	11	7.3
계	150	100.0

<표 53> 지속적인 치료 경험 여부

	빈도	비율(%)
그렇다	113	76.4
그렇지않다	35	23.6
계	148	100.0

한편 반길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있으나 반기지 않을 것'이 57.9%로 '받아줄 가족이 있다' 18.4%에 비해 몇 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받아줄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연고자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가족들이 부양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희망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적인 가능성과는 별개로 가족과 연락이 닿는 경우 '받아줄 가족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8> 반길 가족이 있는지 여부

또한 가족이나 친지와의 연락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있지만 일부러 연락 안 함' 33.8%, '여러번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안 됨' 13.2%로 나타났다.

<표 54> 가족이나 친지와의 연락 여부

	빈도	비율(%)
만날 가족이나 친지가 없음	34	22.5
있지만 일부러 연락안함	51	33.8
여러번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안됨	20	13.2
1년에 한 두번 연락	11	7.3
가끔씩 만나거나 연락	35	23.2
계	151	100.0

그러나 함께 살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0.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싶기는 하지만 현재 자신의 처지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판단과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버렸다는 죄의식에 의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소의향 여부에 대해 68%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현재로선 시설생활을 마지막 대안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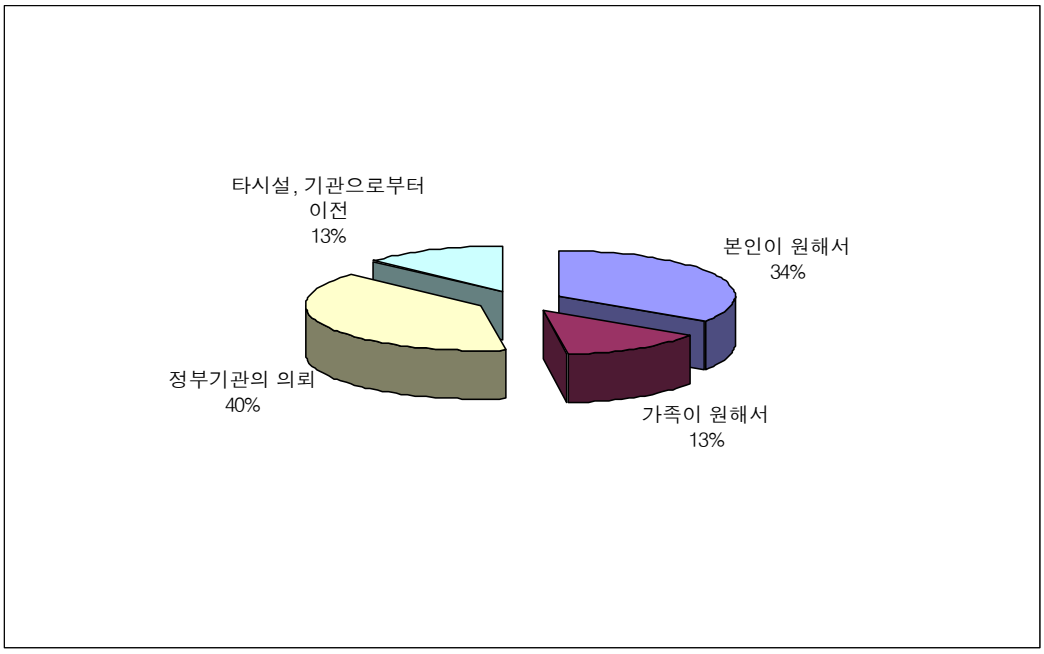
<표 55> 함께 살고 싶은지 여부

	빈도	비율(%)
예	62	50.8
아니오	48	39.3
잘 모르겠음	12	9.8
계	122	100.0

<표 56> 퇴소할 계획

	빈도	비율(%)
없다	102	68.0
있다	48	32.0
	150	100.0

입소 경위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의뢰'(39.1%), '본인이 원해서'(34.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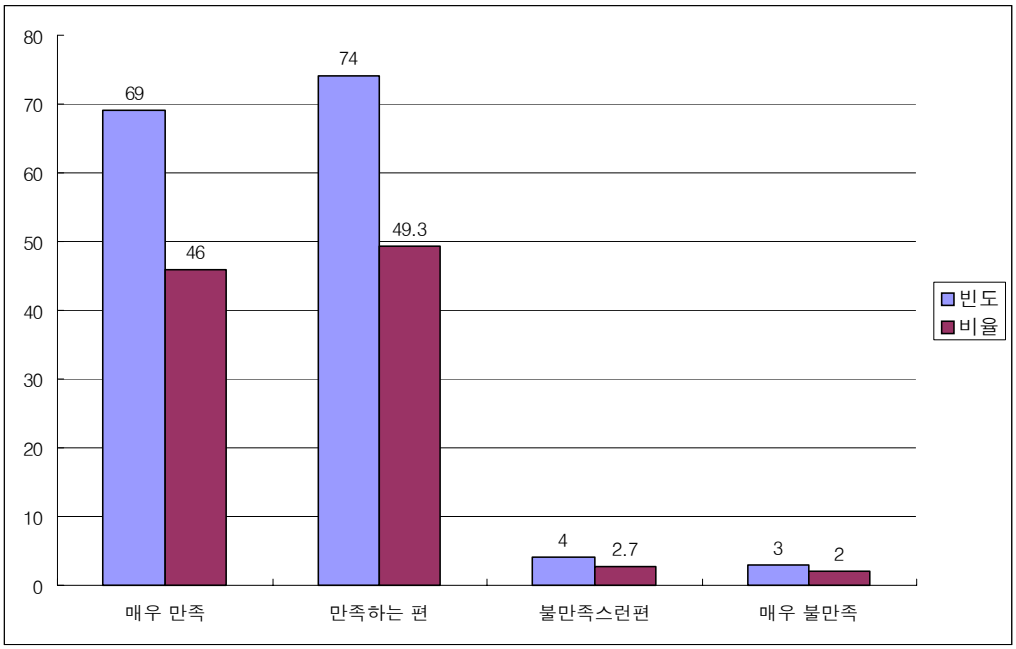


<그림 39> 입소경위

2) 시설에 대한 평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평가는 '만족'이 95%로 나타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는 면접결과가 시설관계자에게 전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체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0> 현재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능하면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다'와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4%와 53.6%로 나타나 시설생활을 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 소극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7> 시설에 대한 구체적 평가

		빈도	비율(%)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는 편이다	그렇다	86	56.9
	아니다	22	14.6
	그저그렇다	43	28.5
가능하면 이 곳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렇다	61	40.4
	아니다	79	52.3
	그저그렇다	11	7.3
이 곳에 있으면 푹 쉴 수 있고 맘이 편하다	그렇다	119	78.8
	아니다	15	9.9
	그저그렇다	17	11.3
이 곳에 있으면 심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그렇다	116	76.8
	아니다	13	8.6
	그저그렇다	22	14.6
이 곳은 통제와 간섭이 심한 편이다	그렇다	18	12.0
	아니다	119	78.8
	그저그렇다	14	9.2
이 곳의 식사의 양과 질이 만족스럽다	그렇다	139	92.1
	아니다	2	1.3
	그저그렇다	10	6.6
실무자들이 잘해준다	그렇다	138	91.4
	아니다	13	8.6
	그저그렇다	151	100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마지못해 있다	그렇다	81	53.6
	아니다	60	39.7
	그저그렇다	10	6.6

좀 더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공근로 등 일자리 확보, 생활공간 부족 등 시설환경의 개선 등을 꼽아, 건강과 일자리 마련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부랑의 발생 원인과 유형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개개인의 생애사를 살펴보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삶의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는 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생애의 굴절시점은 아주 어린 나이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순탄한 청·장년기를 보내고 거의 노년에 이르러 꺾이는 경우도 있어 사례별로 다양하다. 굴절시점 직후의 생활의 특징은,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며, 일상생활의 규칙이 헝클어지고, 주거가 불안정해져 정주성(定住性)이 떨어지며, 심리적으로는 삶의 목표나 의욕을 상실하고 노동의 의지가 약해져서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때 노동 형태의 변화는 직업의 종류가 (예를 들면, 사무·기능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정규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달라지는가 하면,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 한 곳에서의 취업기간이 짧아지고 직종의 변화가 잦으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생애가 굴절된 이후에는 심한 고독감과 소외감, 때로는 헤어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져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폐쇄적인 심리상태를 보인다. 흔히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심리적 고통을 술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알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 입소자들은 간혹 시설에서 나가 자립적인 생활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과 가사노동에 대한 서투름 때문에 알콜에 탐닉하다가 건강을 해쳐 재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생애의 굴절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동기는 (1)부모로부터의 지지관계 상실 (부모의 사망, 모의 가출 등), (2)배우자의 상실 (사망, 이혼, 가출, 별거 등), (3)건강의 상실 (질환이나 장애의 발생), (4)실직, (5)경제적 실패 (사업 실패, 빚 보증, 사기 등) 등으로 요약되는데, 굴절의 동기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4)실직이나 (5)경제적 실패가 원인이 되는 예는 없으며, 대부분 결혼생활의

실패로 인한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이 삶의 굴절을 가져온다.

굴절의 원인과 과정에 따라서 남성의 굴절 유형을 살펴보면, 순탄한 성장기를 보냈으나 (A-1)경제적 실패로 중년 이후에 일시에 몰락한 유형, (A-2)실직으로 인해 굴절된 유형, (A-3)20대에 직업능력을 성취하지 못한 유형,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B)불우한 환경에서 조기에 부랑아가 된 유형, (C)빈곤을 벗어났으나 배우자 상실의 충격으로 굴절된 유형, (D)자수성가했으나 경제적 실패로 몰락한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성장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결혼생활의 실패가 굴절의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한다. 사회관습에 따른 성 역할의 차이로 인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보통 주(主)소득원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직업의 문제, 그것에 영향을 주는 교육이나 기술 습득 여부가 생활력의 차이를 낳지 않는다. 대부분 남편의 음주와 학대, 도박 혹은 외도 때문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이혼하는 시점이 삶에 굴절이 일어나는 계기이다. 여기서 배우자를 잃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볼 수 있다. 위에서 (C)에 해당하는 남성의 사례는 '자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자포자기하고 무분별한 습관에 빠지게 되는 유일한 이유이자 직접적인 계기가 (사별이든 이혼이든간에) 부인과의 헤어짐이다. 부부금실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성은 부인의 상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고 그 심리적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하지 않다. 이는 남성은 자녀 양육을 비롯해서 가정사 전반에 있어 여성에게 의존적이고 오직 수입을 책임지는 도구적 기능에만 익숙한 반면, 여성은 남성에 대해 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고달프고 힘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 조사 결과의 요약

1) 양육 과정상의 어머니에 대한 높은 의존도

10대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어머니를 일찍 여읜 경우는 아버지가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자립'하는 비

율이 높아, 어머니의 사망이나 가출이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세 이전의 주 양육자가 아버지였던 경우는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으로 형제자매(67%)를 부모, 즉 아버지(33%)보다 먼저 꼽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주 양육자가 어머니였던 경우는 부모, 즉 어머니(59%), 형제자매(18%)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성장기의 가정해체와 이후의 위기 대처 능력

조사대상자의 약 1/3 정도는 20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 또는 가출해서 가족이 해체됐거나 본인이 가출함으로써 성장기에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청소년기 이전에 부모로부터의 지지관계를 상실하면, 이후 직업능력과 심리적 사회적응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손상을 입는다. 흔히 청소년기 이전의 가정해체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따라서 저학력이라는 사회적 장애가 성장한 이후에 안정된 직업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아동기의 극심한 방치 내지 학대는 건강한 자아의 발달과 대인관계 능력을 저해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적응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무관심 속에 성장한 사람과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 일찍이 가출생활을 경험한 사람 사이에는, 성장한 이후에 직업의 안정성 및 노동에 대한 적극성, 배우자와의 결합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즉, 굴절시점 이전까지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는 직업력(職業歷)이나 가정생활이 극도로 불안정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후자는 직종의 전환이 잦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그냥 답답해서' 가출했다가 되돌아오는 부랑 습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일감을 따라서 떠도는 삶은 장기화될 경우 습성화·기질화 되기 쉬운 것이다.

3) 직업능력과 삶의 안정성

남성의 경우, 생애의 굴절시점을 좌우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직업능력이다. 최소한의 보호와 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은 이후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고, 직업의 안정성이 높으면 배우자와의 결합도나 가정생활의 안정성도 높아서 굴절시점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복한 가정에서 컸더라도 20대까지 이렇다할 직업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는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노동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성장기의 가정형편이 빈곤했고 학력이 낮더라도, 사회적 수요가 웬만큼 있는 중급 기술(예: 운전)이나 경험적 능력(예: 경매중개인, 유흥업소 관리자)을 개발한 사람은 비교적 꾸준한 직업력을 가짐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도도 비정규직 종사자에 비해서 높으며 굴절시점 역시 후자에 비해 늦는 편이다.

4) 성 역할과 부부관계의 해체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는, 남성은 61%가 '행복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오히려 과반수인 57%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배우자와 결별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도 남성은 실직으로 인한 만성적 빈곤(25%)을, 여성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환이나 장애(32%)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공히 불륜(외도) 등의 중대한 과오(22%~26%)와 알콜중독, 구타, 도박 등의 습관(26%)을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심층면접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혼(별거)이나 가출의 원인은 대부분 여성의 정신질환과 남성에 의한 외도와 구타, 알콜중독 등이 주된 원인이며,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불행한 가정생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남성의 17%만이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2%가 나쁘다고 대답한 것을 보더라도 생애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신적 억압과 불행감이 더 큼을 볼 수 있다. 이는 불평등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5)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삶의 불안정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이 1년 이하로 비교적 짧았던 사람은, 입소 전까지 주로 월세방이나 친지의 주거와 같은 정상적인 '집'(37%), 혹은 '여인숙이나 쪽방'(27%)에서 거주한 반면, 2년 이상 거처 없이 지냈던 사람은 입소 직전에 '여인숙이나 쪽방'(40%) 거주 이외에도 거리노숙(27%)을 한 비율이 높

다(2년 이상 일정한 거처가 없었던 사람이 입소 직전에 '집'에서 거주했던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따라서 거처 없는 삶으로 들어선 기간이 길지 않을 때는 거의 거리노숙을 경험하지 않는 반면에, 그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주거의 안정성도 떨어져서 점차 자활이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된다. 즉, 노숙은 만성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시설 입소 전에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이 1년 이하였던 응답자는 77%로, 만성적인 거리 노숙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설에 들어오기 전까지 상당 기간을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떨어져서 월세방이나 여인숙, 쪽방 등지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이러한 기간이 장기화되면 심신이 피폐해지고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노숙 생활로 전락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애의 굴절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보호 조치는 노숙이 만성화되기 전에, 되도록 빠른 시기에 취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6)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자기 삶에 대한 의욕과 노동의 의지를 좌우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이다. 보통 생애에 굴절이 일어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가족 관계의 단절이고, 굴절 이후에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의욕을 발휘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과 외로움이다. 이러한 지지의 상실에서 오는 고립감을 잊기 위해서 노숙자들은 거리 생활이 만성화됨에 따라, 같은 처지의 노숙자들과 새로운 제휴 관계를 맺고 '노숙문화'에 안주하게 된다. 한편 현재의 부랑인 시설은 각종 질환과 장애를 가진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의 혼합수용시설이어서, 그 안에서 생각과 정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친구 관계란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시설의 현재 여건상,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수용의 기능을 넘어서, 입소자들간의 정서적 교류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은 생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 시설 입소자들의 상황은, 과거와 비교해서 생계의 기본 욕구가 해결됐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하지만, 교제나 노동과 같은 사회·문화적 욕구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으로 충족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부랑인복지시설 안에서의 인권 문제

부랑인 시설 입소자들의 기본적 인권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권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가시적인 문제점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보호의 수준이 향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선진화된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인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신장이 요구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는 크게 정부 지원 예산의 부족 및 제도의 미비에서 연유되는 문제와, 복지수혜자들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대별된다. 현재의 부랑인복지시설은 임시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을 받고 있고, 이는 관리 인력의 부족이라는 운영 구조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각한 일손의 부족은 입소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나 상담을 어렵게 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방임 내지 소극적 의미의 인권침해를 낳기도 한다. 많은 경우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소자로 하여금 중증의 입소자를 수발 들게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들 중에는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며 그처럼 '강요된' 노력 봉사가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입소자들 간의 언어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도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원인을, 시설 관리자측의 독단적 운영으로 돌리기 이전에, 충분한 서비스와 진정한 공동체의 분위기 형성을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랑인 시설 입소자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 자체가 미약하다. 시설 내에서 생활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대한 참여의식도 낮은 편이다. 이는 통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무상으로 (그것의 원천이 정부예산이나 외부의 기부금이라 할지라도) 제공받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비수평적 관계에서 기인한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늘 감사하고 관리자에게 협조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관리자와 입소자 양편 모두에게 깔려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간혹 '입소자 본인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자'라는 독선이 싹틀 수도 있다. 관리자측으로부터 종교행사에 참가하도록 '권유' 받은 입소자들은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수혜자들은 항상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의식은,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사람의 인간적 권리를 축소 해

석하려는 사회적 통념과 관계가 있다.

3. 제언

1) 현행 부랑인 보호제도의 개선책

(1)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 확대

현재 부랑인 보호시설은 일시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기능을 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예산을 배정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인권의 제약 현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입소자들에게 장기적인 거처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현재 시설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안정된 삶의 자리로서는 부적절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 또한 실무인력의 부족과 그들의 저임금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예산의 확대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이후에 열거할 개선 조치들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2) 전문기능에 따른 현행 보호시설의 재편

각종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혼합 수용돼 있는 현재 시설들은 그 기능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노숙자를 포함한 입소 대상자의 건강 및 심리상태, 사회적 연고와 조건 등을 면밀히 사정해서 장기보호대상자와 재활이 가능한 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각 시설들도 하나의 기능을 전담하도록 스스로를 특성화해야 한다. 이 같은 기능의 전문화는 질병이나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알콜중독자, 치매환자, 복합장애인 및 일반 노인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보는 시설들을 각기 구분해서 해당 부랑인을 전문시설로 전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들 전문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상태의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다 적합한 시설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편 재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시설

에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게 된다(38쪽 전달체계 모형 참조). 이러한 구상은 기존 복지전문시설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충·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구조적 개혁안으로서, 정부가 제도 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행 부랑인 복지시설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3) 적절한 노동의 기회와 여가 프로그램의 확충

가벼운 노동이 가능한 입소자들은 시설 안에서 소일거리로, 그리고 용돈 마련이라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보수가 매우 낮은 단순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감들은 삶의 의미를 느끼는 노동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선택의 폭이 좁으며 반대급부가 미약하다. 상당수의 입소자들에게, 변화가 없는 일상의 무료함은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다. 대책 없는 출소를 감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재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일감들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그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노숙자 의료 체계의 개선

부랑인복지시설 입소 전 단계에 있는 노숙자의 질병 치료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만 적용되는 의료구호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숙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은 제한돼 있고, 거리 노숙자의 경우는 자원봉사 의료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숙자의 상당수는 간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콜중독, 우울 장애, 정신분열증 등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병에 노출돼 있다. 그러므로 노숙자의 의료 문제를 임시방편적 제도가 아닌, 기존의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5)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계도

‘부랑인’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가 공식 제도 안에서 사라지도록 정부에 권고

해야 한다. 또한 부랑인시설 내 입소자의 인권을 축소 해석하려는 정부관계자와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보다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권고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부랑인에게 의식주를 이 정도로 제공하고 자유를 보장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 '선진국의 인권 기준을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상 시기상조' 라는 식이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회·문화적 권리 등에 관해서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리자와 수혜자간의 비수평적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 안에, 지금까지 사각권에 있던 인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지시키고 계도해야 한다. 또한 인권적 측면의 기준들이 상시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부적합한 사례가 발견될 때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사회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복지수혜자의 인권에 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예방 차원의 대책

생애의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과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굴절의 원인 가운데, '경제적 실패'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직'과 '건강의 상실'이라는 요인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는 노동복지 정책의 강화, 보건의료 체계의 확충만이 최선의 예방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가족관계가 해체됨으로써 일어나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이다. 연일 버려지는 아동과 가출청소년의 장래에 관해서 국가 및 사회 차원의 보호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이 장차, 지금까지 살펴본 '부랑인'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1) 보호시설의 아동과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직업 능력은 일생동안 삶의 안정성과 위기 대처 능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더구나 청년 실업자가 늘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산되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방치되는 아동과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 사회가 그들의 직업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들의 장래는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 보호시설 차원의

직업 훈련이나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진로 지도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소년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단일화된 직업교육 체계와 전문화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적이고 무차별적인 단기 교육과정이나 취업 상담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소질이나 적성의 진단, 그에 맞는 능력의 개발, 그리고 지속적인 추적 상담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개방형 집단 교육훈련 제도는 그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그룹 홈과 청소년 쉼터의 확충

직업 능력 못지 않게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는 건강한 자아의 확립과 인성의 개발이다. 가족원과의 지지관계를 상실함으로써 인성 발달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심리적 상처와 장애는 어떻게든 치유되고 건강한 자아의 성장을 통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좌절과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 원만한 대인 관계 능력, 적극적인 노동의 의지와 정신적 활력을 배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개 대규모 보호시설은 아동 개개인의 심리나 정서의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나누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버려진 아동을 보살피는 그룹 홈과 청소년 쉼터의 운영은 전 사회적으로 적극 장려되고 또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은 조속한 개입과 보호가 없으면 부랑생활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방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현장방문상담(outreach) 활동이 중요하다.

가족이 해체된 이들의 문제는 성장한 이후에도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좌절을 겪지 않도록 동질 그룹간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망, 그리고 외부와의 후견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당사자들간의,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과의 소규모 공동체운동은 인간관계의 복원을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건강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과 상담

삶을 굴절시키는 가족의 해체는 죽음과 같은 불가항력의 요소를 제외하면, 부부관계의 인위적 해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는 상당 부분, 남성의 외도, 지나친 음주, 아내와 자녀에 대한 구타와 정신적 학대, 도박 등이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에 그 뿌리가 있고, 이러한 불평등 관계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혼인 관계의 파국을 불러온다. 오늘날 가족학 전문가들은 부부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들 가운데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만큼은 교육과 상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선진국가들은 가정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울타리 안에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며, 필요할 때 사회가 개입함으로써 인간관계도 사회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기 시작했다. 독일 사회는, '가족이 갖고 있는 중차대한 사회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오클라호마, 플로리다 등)에서는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학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결혼 전에도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부부의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 등 올바른 가족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잔재가 특히 뿌리깊은 우리나라에서도 평등한 부부관계, 민주적인 부모·자녀 관계, 건전한 가족문화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정규 교과과정과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들의 문화운동 등을 통해서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올바른 부모 역할의 모델을 경험해보지 못한, 방치된 아동과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성 역할, 가치관 및 실용적인 지식 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한편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쉬운 조건에 있는 저소득층 내지 취약계층의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관찰과 전문가의 개입 및 상담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역복지체계의 내용 안에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포함시켜서 일상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여성 가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강화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때로는 여성과 자녀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독립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작금에는 여성 가장의 수가 늘고 있고 편모 가정은 새로운 빈곤층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양육에 대한 책임 역시 여성이 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쉬운 여성 가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 항상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의 지위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 가장의 취업과 소득 보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자녀에 대한 탁아와 방과후 교육 사업이 확대된다면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5) 의료 및 사회보장 체계의 강화

생애 중에 맞이하는 위기 가운데 건강의 상실은 치명적이다. 근로 중에 입은 재해나 장애, 또는 한 가족원의 심각한 질병은 가족의 경제를 일시에 몰락시키기 십상이다. 그러나 가족 전체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심지어 가족의 해체까지 불러오는 중증의 질병들은 대부분 현행 의료보호나 건강보험체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장 요긴하게 기능해야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정작 저소득층의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보장제도가 실질적인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재보험과 같은 여타의 사회보장체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4. 본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 가운데, 대화가 가능하고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입소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화 불가능자, 즉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생애사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사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의 연구 결과가 부랑인복지시설 내 입소자 전체의 삶과 생각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 입소자의 문제이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가 가능한 여성 입소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과, 그들의 생활력의 유형이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여성 부랑인에 대한 접근은 조사지의 내용과 구성부터가 남성의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향후의 새로운 연구에서는 첫째, 여성 부랑인에 대한 조사 방법과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여성 부랑인의 생활력의 특징을 포착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따로이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실제 부랑인과 다름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사회관습 혹은 문화가 규정한 성 역할의 차이에 때문에 다른 공간에 '잠복'해 있는 잠재적 여성 부랑인에 대한 접근과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 대상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해야만 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 시설 종사자, 동료 입소자들의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 이들의 진술을 깊이 있게 충분히 듣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으나, 입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화 불가능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작업이다. 셋째, 질적 조사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도 양적 조사보다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조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설문지의 통계 처리 결과로는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한 사람의 생애는 매우 많은 사건과 요인 및 상황적 변수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 질문으로는 끌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다. 따라서 성, 연령, 계층에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생활력에 대한 조사는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질적 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정, 2000,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명진, 1998, “부랑인 유형별 재활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미숙 외, 2001, 『노숙자 관리체계 평가를 통한 노숙자, 행려자, 부랑인 연계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1-14

김태진 외, 2001, “지역사회 부랑인 시설의 실태와 운영 개선 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권 특집호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2000, 『노숙인복지연구』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1, 『자활의 관점에서 본 노숙자의 이해와 지원 체계』

린다 포스버그 외 (편저), 『노숙인복지, 그 실천을 위해』,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박태영, 2001,“부랑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적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9집,제3호

보건사회부, 1986, 『보건사회』

엄영태, 2000, “부랑인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연, 1999, “시설부랑인의 사회복귀 저해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현철, 2002, “노숙인과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특성 비교”,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국실직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외, 2000,『한국의 노숙자: 2년의 흐름과 진단』

정원오, 2001,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숙, 2000,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우림, 2000, “노숙자의 노숙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도시연구소, 2000, 『쪽방연구』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2, 대정부 건의안 「부랑인복지시설 운영개혁방안」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2, 제11회 부랑인복지세미나 자료집 「부랑인복지시설의 나아갈 방향」

Bauman, D. & Grigsby, C., 1988, Understanding the Homeless; From Research to Action, Austin, Texas

Bhugra, Dinesh (ed.), 1996, Homelessness and Mental Heal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wman-Kruhm, M. & Wirths, C. G., 1998, Coping with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Rosen Publishing Group

Coates, Robert C., 1990, Street Is Not a Home: Solving America's Homeless Dilemma, Prometheus Books

Failer, Judith L., 2002, Who Qualifies for Rights?: Homelessness, Mental Illness, and Civil Commitment, Cornell University Press

Shinn, M & Weitzman, B.C., 1990, Toward a Longitudinal Analysis of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6, No.4

Stoner, Madeleine R., 1983, The Plight of Homeless Women, Social Service Review,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57, No.4

Stoner, Madeleine R., 1995, The Civil Rights of Homeless People: Law,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Practice, Aldine de Gruyter

사회복지 시설 내 노인분들의 생활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도시연구소'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민간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의 생활실태, 특히 생애사 (살아오신 내력)를 조사해서 부랑의 예방책을 연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조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비밀에 부쳐질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에 응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생활의 침해나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이번 조사 목적의 순수성과 유익함을 헤아리셔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십시오.

☎ (02) 738-4292~4 / kocer@chollian.net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부소장

2002. 11. 4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조 명 래

조사지 번호 _____ — _____

시설명 : _____

조사일자 : 2002년 11월 일

조사자 : _____

피면접자 : _____

1.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_____)세

2.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가 태어난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당시 기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4. 귀하가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_____)년
【예】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등으로 표시.

5.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생존 □사망 □생사를 알 수 없음)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까?
· 부의 사망 : 내가 _____세 때
· 모의 사망 : 내가 _____세 때

6. 부모님이 주로 하신 일은?
· 부 : · 모 :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농업
④ 단순노무직(일용노동, 잡역부, 서비스업 보조, 경비원, 청소원 등)
⑤ 단순사무직(회사원, 하급공무원 등)
⑥ 기능기술직 (배관공, 전기기사, 택시기사 등)
⑦ 영세자영업(노점상, 행상, 신문팔이, 폐품수거, 잡화점 등)
⑧ 전문직(교사, 의사, 고위공무원, 장교급 이상 군인 등)
⑨ 개인사업(중소기업, 대기업)
⑩ 기타

7. 귀하의 성장기에 가정형편은 대체로 어떠했습니까?

① 아주 잘 사는 편이었다
②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다
③ 비교적 못 사는 편이었다
④ 아주 못 살았다

8.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① 군필 ② 미필(미필사유: □무적자 □기타)
③ 면제(면제사유: □가정형편 □학력 □건강 □기타)

9. 귀하의 종교는?
① 종교 없음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다음은 귀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태어나서 10대까지 귀하를 주로 양육해준 보호자(혹은 보호기관)는 누구였습니까?
①부모 ②부 ③모 ④조부모 ⑤형제자매 ⑥친척 ⑦고아원
⑧자립했음 ⑨기타 (_____)

11. 그 분(기관)과 현재까지 교류나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① 간혹 만나 대화한다 ☞ 13번으로
② 살아있지만 거의 만나지 않는다 ☞ 12번으로
③ 돌아가셨다 ☞ 12번으로
④ 생사를 알 수 없다 ☞ 12번으로

12. 그 분(기관)을 거의 만나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게 된 것은 몇 살 때부터였습니까?
(_____) 살

13. 귀하는 성장기에 부모형제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4. 성장기 명절(설이나 추석 등)을 주로 누구와 보냈습니까?

① 가족이나 친척
② 고향 친구/고향 선후배 (고아출신은 고아원의 친구/선후배)
③ 사회에서 만난 동료나 선후배
④ 혼자 보냈음
⑤ 수용시설에서 보냈음
⑥ 기타

15. 성장기에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무도 없었다
② 아버지 혹은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조부모 혹은 가까운 친척
⑤ 고향 친구/고향 선후배 (고아출신은 고아원의 친구/선후배)
⑥ 사회에서 만난 친구/선후배
⑦ 수용시설의 관계자
⑧ 기타 ( )

16. 성장기에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장차 _____가(이) 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다 ☞ 18번으로
②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17번으로
③ 특별한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았다 ☞ 17번으로
④ 기타 _____

17.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① 열악한 환경과 자원 (가정해체, 빈곤, 학교 못 다님 등등)

②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탓

③ 기회와 운이 안 따름

④ 기타

18. 혹시 귀하의 어린 시절에는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각각 체크)

□① 부모(혹은 대리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②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구타 등 가정 폭력

□③ 부모의 음주문제

□④ 부모의 정신질환

□⑤ 부모의 만성질병

19. 귀하가 처음 가족(=부모형제)을 떠나 살게 된 것은 몇 세 때입니까?

_____ 세 (고아출신인 경우는 0으로 표시)

20. 당시 가족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① 부모의 사망

② 부모의 가출

③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④ 부모의 재혼

⑤ 자신의 결혼

⑥ 자신의 취업이나 학업

⑦ 자신의 가출

⑧ 전쟁 또는 천재지변

⑨ 기타

□ 다음은 귀하의 결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1. 귀하는 결혼 또는 동거 경험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결혼　　② 동거　　③ 무경험 ☞ 30번으로

22. 결혼 혹은 동거를 시작한 것은 몇 살 때였습니까? (_____) 살

23. 총 몇 명의 배우자와 결혼 또는 동거를 하셨습니까? (_____) 명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24. 결혼생활 혹은 동거생활을 지속한 기간은 총 얼마동안이었습니까?
(_____) 년
(2번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

25.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① 예 (_____) 명
② 아니오

26. 본인의 결혼생활은 행복한 편이었습니까?
① 매우 행복했다
② 그럭저럭 행복한 편이었다
③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④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27. 결혼 혹은 동거생활이 중단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①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계속 함께 살았다. ☞ 29번으로
② 배우자의 사망 (결혼 뒤 몇 년 후에? _____년 후)
③ 합의이혼 혹은 별거 (결혼 뒤 몇 년 후에? _____년 후) ☞ 29번으로
④ 배우자의 가출 (결혼 뒤 몇 년 후에? _____년 후) ☞ 29번으로
⑤ 본인의 가출 (결혼 뒤 몇 년 후에? _____년 후) ☞ 29번으로
⑥ 전쟁 또는 천재지변
⑦ 기타 _____

28. (배우자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실직으로 인한 만성적 빈곤
② 사업의 실패
③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질환이나 장애
④ 자녀의 질병 혹은 사망
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오래된 습관 (알코올중독, 구타, 도박, 낭비벽 등)
⑥ 성격 차이
⑦ 본인 혹은 배우자의 중대한 과오 (불륜, 범법행위 등)
⑧ 전쟁 또는 천재지변
⑨ 기타 _____

29. (결혼이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떨어져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 결혼이나 동거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로 표시)

30. (결혼이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결혼(혹은 동거)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할 상대가 있겠나' 싶어서 처음부터 포기했다.
② 하고 싶었지만 상대를 구하지 못했다.
③ 어릴 때 경험한 가정생활의 환멸 때문에
④ 혼자 사는 것이 홀가분하고 좋아서
⑤ 기타 _____

□ 다음은 귀하가 살아온 주거지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애기간동안 주거불안정 정도를 판단하는 질문들>

31. 귀하가 시설 입소 전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았던 곳은?

	어디서	누구와	어느 정도(기간)
1순위			
2순위			
3순위			

32. 현재 시설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어디서 생활하셨습니까?

① 집(가족)

② 여인숙 또는 쪽방

③ 친척집

④ 시설 (고아원, 부랑인 보호소, 노숙자 쉼터, 병원 등)

⑤ 거리(노숙)

⑥ 기타 _____

33. 귀하가 현재 시설에 들어오기 전까지 일정한 거처(집) 없이 생활한 것은 총 얼마동안이었습니까?

_____년 정도

34. 귀하는 현재 시설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_____ 년 _____개월

35. 과거에 다른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기입해주십시오.

【예】(현재의 시설, 다른 부랑인시설, 장애인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 교도소 등 등...)

	시설 종류	이용기간	퇴소한 이유
1		년	
2		년	
3		년	

36. 귀하는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살았던 편입니까? 아니면, 이곳 저곳을 자주 이동하며 사셨습니까?

①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살았던 편

② 이곳 저곳을 자주 이동

□ 다음은 귀하가 살아오면서 하신 일이나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7. 돈을 벌기 위해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였습니까?

(_____)세

38. 돈을 벌기 위해 20살 이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20살 넘어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직종번호)	어느 정도(기간)
20살 이전			
20살 이후	1순위		
	2순위		

① 전업주부

② 단순노무직(일용노동, 잡역부, 서비스업 보조, 경비원, 청소원, 건설현장, 농업노동 등)

③ 공장노동자

④ 서비스업 고용원(배달원, 식당종업원, 가게점원, 판매원 등),

⑤ 단순사무직 보조(사환 등),

⑥ 영세자영업(노점상, 행상, 폐품수거, 잡화점 등)
⑦ 단순사무직(회사원, 하급공무원 등)
⑧ 기능기술직(배관공, 전기공, 택시기사 등)
⑨ 전문・관리직(교사, 의사, 고위공무원, 장교급 이상 군인 등)
⑩ 개인사업(중소기업, 대기업)
⑪ 구걸/앵벌이
⑫ 소매치기/절도
⑬ 농업(자영농)
⑭ 기타

39. 이 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돈벌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① 거의 일을 안 하고 지내다가 간혹 주위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② 거의 일을 안 하고 지내다가 다급한 경우에만 잠깐 하는 식이었다
③ 일거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기다리고 했는데, 노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많았다
④ 여러 일터를 전전했지만,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평균 3~4시간은 되었다
⑤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평균 6시간 이상 되었다
⑥ 건강이나 연령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
⑦ 기타

40. 생애를 뒤돌아보면 귀하는 지금껏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
② 열심히 일했으나 불운 또는 실수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③ 열심히 일하려 했지만 일자리의 기회가 없었다.
④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또 후회도 없다
⑤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선 후회된다

41. 귀하는 현재 반길 가족이 있습니까?
① 가족은 아무도 없다
② 가족은 있지만 반기지 않을 것이다

③ 받아줄 가족이 있다

42. 요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거나 연락하십니까?
① 만날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
② 있지만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있다
③ 여러 번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④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한다.
⑤ 가끔씩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한다.

43.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경우) 그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학대의 경험이나 구속의 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해)
③ 잘 모르겠다
④ 없다

□ 다음은 귀하가 현재 느끼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44. 현재 귀하에게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가족(배우자, 자녀)
② 형제자매
③ 친척
④ 친구
⑤ 시설의 실무자
⑥ 종교인
⑦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동료이용자
⑧ 기타 (구체적으로:_____)
⑨ 없음

45. 귀하가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건강
② 경제적 여유 (돈)
③ 가족
④ 폭넓은 사회관계
⑤ 사랑과 관심
⑥ 기타 (_____)

46. 귀하가 일생동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특별히 없었음
② 아버지 혹은 어머니
③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④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인척
⑤ 배우자 (동거 이성 포함)
⑥ 자녀
⑦ 사회에서 만난 친구/선후배
⑧ 시설 관계자
⑨ 기타 _____

□ 다음은 귀하의 건강 정도 및 현재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47. 현재 귀하의 육체적 건강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48. 현재 귀하의 정신적(심리적) 건강 상태의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49. 귀하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50. 귀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지체
⑦ 발달장애(자폐증)
⑧ 정신장애
⑨ 신장/심장장애
⑩ 없다

51. 귀하는 감기 등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①술을 마신다 ② 참는다 ③ 실무자에게 이야기한다
④기타( )

52. 이 곳에 오신 후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현재 받고 있거나 혹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3. 귀하가 받고 있는 (받았던) 치료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불만족스럽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 다음은 시설 이용과 관련한 귀하의 생각을 묻습니다.

54. 만일 귀하께서 시설에서 퇴소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입니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년 (_____) 개월 후

55. 귀하는 시설에서 퇴소하신 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구체적으로 _____)

56. 귀하는 이 곳에 어떻게 입소하게 되었습니까?

① 내가 원해서

② 가족이 원해서

③ 정부기관(시, 군, 구청 또는 경찰서)이 입소를 의뢰해서

④ 타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관하여

57. 귀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곳에서 다른 분들에 비해 차별 혹은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①그렇다(구체적 내용 _____)

② 아니다

58. 귀하가 지금 생활하고 시설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불만족스런 편이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59. 현재 이용중인 시설에 대해 느끼는 대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0. 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이나 국가에서 좀더 배려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